역사와 자연이 숨쉬는

산하 이야기

Storytelling

발간사

낙동가람의 끝자락에 선조들이 터를 잡고, 생활의 뿌리를 내려 연연히 이어져오고 있는 우리 고장 사하(沙下).

인구 36만 명에 가까운 큰 도시로 발전되었지만, 한편으론 산업화와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바쁘고 힘겨웠던 일상에 떠밀려 등한시 되고, 또 우리들의 뇌리에서 서서히 잊혀져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유래와 그곳에 얽힌 이야기, 자연마을의 자취와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사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이야기들...-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 흔적을 찾아가는 작업을 2010년 말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장을 고찰(考察)했던 옛 문헌을 뒤적여 역사적 사실을 찾아내고, 동네 토박이 어르신들의 희미한 기억들을 되살려 내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그 작업의 결실을 엮어 한 권의 이야기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책자는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가공 과정을 거쳐 관광 자료와 교육 자료로 사하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민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가지게 되고 학생들은 사하를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시는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쉼 없이 변화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하와 사하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미처 발굴하지 못한 이야기와 미흡한 부분,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변화의 과정은 계속 기록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끝으로, 이 책을 발간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9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사하구(沙下區) 낙동강 700리 끝자락

사하의 기원을 찾아

낙동강 700리 끝자락, 부산의 서남단에 위치한 사하(沙下). 고려시대에는 동래현, 동래군에 속했으며 조선후기‘ 동래부지(1740)’에 따르면 7개면(읍내면, 동면, 남천면, 동평면, 사천면, 서면, 북면) 가운데 사천면(沙川面)의 영역으로 기록하고 있다.

‘사하’라는 명칭은 고종 5년에 편찬된 ‘동래부사례(1868)’에 ‘사천면은 사상면과 사하면으로 분리되었다’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제말인 1942년 행정구역 변경으로 부산에 편입되어 부산부의 사하출장소가 설치됐고 1957년 서구 사하출장소로 바뀌었으며 1983년 서구에서 분구되면서 사하구로 승격됐다.

현재 8개의 법정동(괴정동, 당리동, 하단동, 신평동, 장림동, 다대동, 구평동, 감천동)이 있으며 16개의 행정동으로 나눠진다.

※ 면적 41.75㎢ (부산시의 5.4%, 16개 구 · 군 중 5번째)
인구 33만3,925명(남:16만6,816명, 여16만7,109명)

– 2017년 7월말 현재

물류중심지와 특산품

강을 끼고 있는 사하는 배가 드나드는 포구와 물류의 중심지였다.

이름만 남아 있는 하단포, 장림포, 홍티포, 보덕포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사람과 물자를 나르던 하단도선장은 낙동강하구둑 건설로 이 일대가 매립되면서 자취를 감췄다. 지금도 매월 2일과 7일에 열리는 5일장인 하단장은 과거 물류중심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사라진 하단 재첩, 장림 김, 장림 소금은 전국에서 맛이 좋기로 유명했고 재첩국을 이고 대티고개를 넘나들던 상인들의 행렬은 추억의 풍경을 만들기도 했다.

낙동강변에 지천으로 깔린 갈대로 엮은 깔자리, 고기잡이 통발, 갈삿갓, 갈대발, 삿자리 등 갈대 수공업도 명품으로 이름을 날렸다.

군사요충지, 그리고 인물

지리적 위치상 왜적의 침입이 잦았던 사하는 조선시대 경상좌도 7진 가운데 하나로 다대진이 설치될 정도로 군사적 요충지였다.

왜적과 관련한 역사적 인물로 다대첨사 윤흥신 공과 이순신 장군의 우부장 정운 장군을 빼놓을 수 없다. 임진왜란 부산포해전에서 왜적과 싸우다 전사한 윤흥신 공과 정운 장군은 다대동‘ 윤공단’과 몰운대‘ 정운장군순의비’에서 만날 수 있으며 주민들이 해마다 순절일을 기려 향사를 지내고 있다.

다대포는 오늘날에도 역사의 현장으로 남아 있다. 1983년 무장공비가 잠수정을 타고 침투, 국군과 교전을 벌이기도 한 분단의 아픔이 서린 곳이고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 북한 응원단 300여명이‘ 만경봉-92호’를 타고 다대포항에 정박하면서 남북 화합의 장소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사하의 오늘과 내일

사하는 산업도시와 생태도시의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1981년 신평장림공단이 낙동강변을 따라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2천여개의 기업들이 뿌리를 내려 부산지역 산업역군으로서의 핵심역할을 담당했으며 지금도 이를 이어가고 있다.

사하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생태도시이기도 하다.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는 1966년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 동양 최대의 철새 낙원으로 이름나 있고 이곳에 위치한 을숙도는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을숙도문화회관, 축구장 등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돼 있다.

사하는 다대포해수욕장, 몰운대, 승학산 등 산과 강, 그리고 바다를 모두 접하고 있는 자연자원과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낙동강하구 아미산전망대, 아미산 자생식물원을 비롯해 각종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다.

최근,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감천문화마을 조성,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통하여 생태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다.

Contents

Part 1 풍요롭고 살기좋은 사하의 마을이야기

1. 회화나무가 있는 정자마을, 괴정동

01. 괴정동은 배산임수(背山臨水)의 명당터 16
02. 괴정동에는 말들과 사람이 함께 살았다 19
03. 팔정자 나무, 아픈 전설의 사연 23
04. 괴정동엔 아름다운 마을들이 많다 27
05. 구불구불 고갯길을 넘어가보자 32
06. 괴정동의 젖줄, 그리고 물 38
07. 새로움과 희망을 간직한 마을들 43

2. 하늘과 소통하는 신성한 마을, 당리동

01. 어머니의 양수(羊水) 같은 당리동 48
02. 하늘과 연결되었던 제석골 50
03. 역사의 체취를 담은 성지(城地)터들 55
04. 마을의 복을 비는 당리마을의 당제(堂祭) 57
05. 어머니의 젖줄 같은 당리천(川) 59

3.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하단동

01. 낙동강 맨 아래쪽이라 하단(下端)인가 64
02. 하단의 옛날 옛적에 66
03. 새들이 쉬어가는 곳 '을숙도' 82
04. 하단의 감탄사 '낙조(落照)' 87

05. 신선이 내려왔다는 강선대(降仙臺), 그리고 에덴공원 91
06. 신선암(神仙岩)의 전설 93
07. 분뇨처리장(糞尿處理場)에 얽힌 사연 96
08. 하단의 명품 갈대수공업 98
09. 경부선 하단철도에 얽힌 사연 100
10. 낭만의 시온섬과 샛강, 복판등 102

4. 물류의 고장, 신평동
01. 매일 새로워지는 땅 신평(新坪) 108
02. 신평 사람들이 목을 축였던 새미(샘) 113
03.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자연마을 115

5. 고개마다 구비구비 이야기가 있던 마을, 장림동
01. 장림(長林)의 역사는 길다 124
02. 다대진(多大鎭)은 원래 장림동에 있었다 127
03. 소금가마가 있었던 장림 129
04. 맛좋기로 유명했던 장림 김 132
05. 이주민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됐던 장림 135
06. 옛날 옛적에 139
07. 그밖에 재미있는 전설들 146

Contents

6. 발길 닿는 곳곳이 절경과 명소, 다대동

01. 다대포는 군사, 교통, 어업의 중심지였다 150

02.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다대진(多大鎭)을 찾아서.. 157

03. 임진왜란 때 부산포해전에서 순국한‘ 정운 장군’ 167

04. 천하절경 다대포해수욕장과 다대포해변공원 176

05. 기네스북에 오른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178

05. 주민들의 생명의 젖줄‘ 다대샘’ 180

06. 박영효의 묘터는 과연 천하명당이었을까 181

07. 구렁이에 얽힌 사연 185

7. 번영을 꽃피웠던 교역의 중심지, 구평동

01. 구평은 군사적 요충지였다 190

02. 풍어제를 올렸던 구평동의‘ 당집’ 197

03. 마을 축제였던 독지(禿旨)장터 199

8. 하늘 아래 첫 동네, 감천동

01. 감천(甘川)의 물은 달다 204

02. 감내포, 현대적 항만으로 거듭나다 207

03. 물반 고기반이었던 어장들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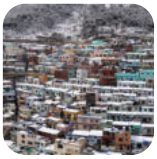
04. 감천은 군사요충지였다 214

05. 반달고개인가 아미고개인가 216

06. 태극모양처럼 아름다운 태극도마을 218

07. 닦고 닦으면 꿈이 이뤄진다는 예언 228

08. 감천의 부산복합화력발전소는 부산의 명물 230



Part 2 당신이 몰랐던 사하구의 또 다른 이야기 속으로

1. 에덴공원에 세워진 시인 청마 유치환의 시비(詩碑) 236
2. 감천2동 문화마을에 있었던 태극도(太極道) 이야기 240
3. 다대팔경(多大八景) 이야기 245
4. 우리나라 최초의 민권운동가 한광국(韓光國)은 다대포 사람이었다 248
5. 화준구미(花樽龜尾)를 아시나요 252
6. 다대진 장대(將臺)놀이를 아시나요 255
7. 다대포 매일선, 편리호(每日船, 便利號)를 아시나요 258
8. 다대포 처녀 윤백련(尹百連)을 아시나요 262
9. 모래톱 이야기1 _ 소의 잔등을 닮아‘ ~등’이라 불렀다 266
모래톱 이야기2 _ 백합조개 많아 백합등, 맹금류 살아 맹금머리등 269
모래톱 이야기3 _ 서도·경도·목도… 다대포 앞바다‘ 부산의 다도해’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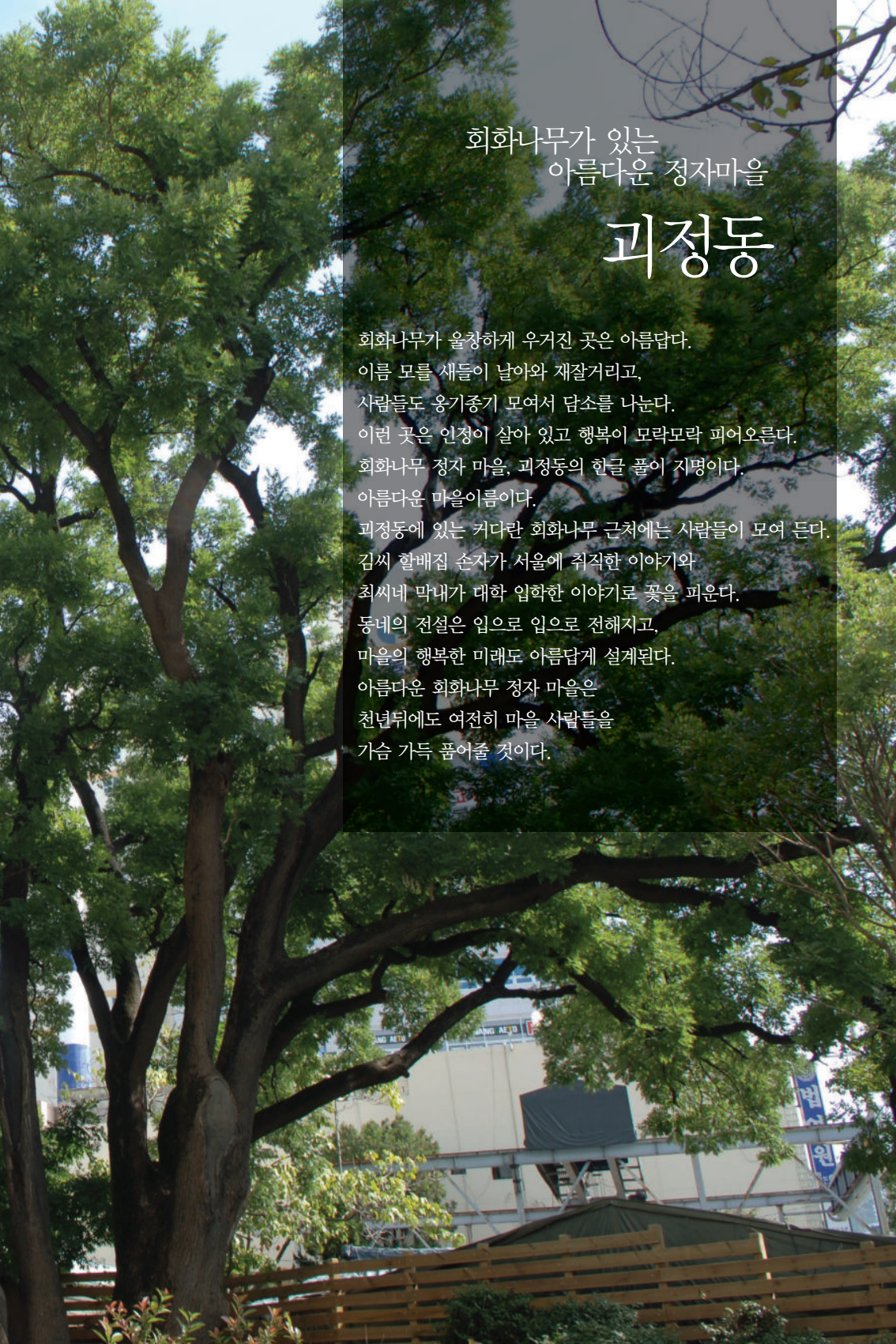
Part 3 사하, 그 향기로운 발자취를 찾아서

1. 부산지역에 남은 유일한 객사, 다대포객사(多大浦客舍) 278
2. 나라를 위해 순절한, 정운 장군의 정운공순의비(鄭運公殉義碑) 282
3. 임진왜란 때 목숨바쳐 항전한 윤흥신 첨사의 윤공단(尹公壇) 284
4. 사하의 절경(絶景), 몰운대(沒雲臺) 288
5. 모두가 즐겼던, 다대포후리소리 295
6. 새들의 천국,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305
7. 한국의 전통 신발의 장인(匠人), 화혜장(靴鞋匠) 310
8. 바람을 싣고 물상을 헤쳐나가는 황포돛배 조선장(造船匠) 314

풍요롭고 살기좋은

사하의 마을 이야기

I



회화나무가 있는
아름다운 정자마을

괴정동

회화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곳은 아름답다.
이름 모를 새들이 날아와 재잘거리고,
사람들도 옹기종기 모여서 담소를 나눈다.
이런 곳은 인정이 살아 있고 행복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회화나무 정자 마을, 괴정동의 한글 풀이 지명이다.
아름다운 마을이름이다.
괴정동에 있는 커다란 회화나무 근처에는 사람들이 모여 든다.
김씨 할배집 손자가 서울에 취직한 이야기와
최씨네 막내가 대학 입학한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동네의 전설은 입으로 입으로 전해지고,
마을의 행복한 미래도 아름답게 설계된다.
아름다운 회화나무 정자 마을은
천년뒤에도 여전히 마을 사람들을
가슴 가득 품어줄 것이다.

01
괴정동은 배산임수(背山臨水)의 명당터

따뜻한 기후, 나지막한 언덕, 해풍을 막아주는 산, 게다가 엉키지 않고 잘 뚫린 교통망, 사람살기 좋은 곳이다. 그래서인지 괴정동은 예부터 많은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 선사시대 때도 이곳에 사람이 살았다고 하니 역사가 꽤 오래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물 좋고 산 좋은 곳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마련이다. 괴정동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이곳이 항상 물 좋고, 산 좋고 인심 또한 후한 곳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풍수지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곳 괴정동을 매우 좋은 길지로 봤다. 풍수지리는 대개 주산을 중심으로 맥이 어떻게 내려오는지와 물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관찰하는 학문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괴정동은 산맥과 물길이 잘 형성되었다고 한다.

괴정동 주민들은 괴정동에서 낙동강쪽으로 뻗어내린 '아랫머리' 구덕산을 '용호부리'라 말하는데, 정확한 어원은 확인은 안되지만, 현재 구덕산은 '九德山'이라고 한자로 표기되며, 또는 예전에는 '舊德山'이라고

도 불리워졌다. 하지만, 아랫머리, 용호부리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것은 '거북'의 의미가 짙다. 몇몇 풍수가들은 이 구덕산을 한자로 거북 '龜' 자를 넣어 '龜德山'이라 말하기도 한다. 구덕산의 기운을 이어받은 승학산에 거북약수터가 있는 것을 보면 이 말의 개연성이 없어보이지는 않는다.

풍수가들은 금정산에서 구덕산으로 이어지는 산맥이 다대포와 몰운대로 향하고 있어 이 구덕산을 영구하산형(靈龜下山形), 즉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산에서 내려오는 형국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괴정동에서 낙동강쪽으로 내려오는 구덕산의 산맥을 아랫머리라고 하지 않았나 짐작한다. 거북이는 물에서 올라와 강가에서 산란을 하므로 낙동강으로 내려오는 아랫머리는 바로 거북이의 성기일 수도 있다.

용호부리는 용의 '혹부리'로 용 머리위의 뿔을 일컫는 말이 변화되었을 것이란 설이 있다. 거북이는 당연히 용궁과 연관이 많은 동물이다. '용의 머리에 난 뿔'과 '거북의 아랫머리'는 같은 의미의 다른 말일 수 있다고 짐작해본다.

아무튼 거북의 아랫머리는 다산(多産)을 상징하고 자손의 번영과 발전을 의미하므로 예부터 이곳 괴정동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았다고 전해진다. 또 풍수지리에서는 구덕산의 강안(江岸 : 강물에 잇닿은 가장자리의 땅)에 뻗은 말맥(末脈)이 병풍처럼 둘러쳐서 세찬 폭풍과 낙동강을 타고 내려온 강바람을 막아주고, 동쪽에는 시약산이 버티고, 남쪽에는 금티산이 솟아 그 줄기들이 서쪽으로 감아 돌면서 나지막한 구릉을 이루어 해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원래 풍수는 장풍득수(藏風得水 : 바람을 감추고 물을 얻는 곳이 명당)라 하여 바람을 막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겨왔다. 요즘이야 주거의 중심

이 아파트이므로 바람이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예전에는 주거지에 들어오는 바람을 막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다. 따라서 이곳 괴정동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인 하나의 분지를 형성하고 있어 생활입지로 아주 윤택한 곳이다. 풍수의 개념에서 득수(得水)도 매우 중요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물을 얻어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 괴정동 서쪽 두송반도의 줄기를 막아주는 배오개를 넘으면 낙동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괴정동 주민을 먹여 살리는 젖줄인 것이다.

배오개는 배고개, 즉 밝아오는 고개(밝고개)라는 뜻으로 신평쪽에서 보고 지어진 고개이름이다. 또 아랫머리 서단(西端)을 돌면 하단에 이른다. 낙동강의 마지막 용트림을 이곳에서 볼 수 있으며, 낙동강 하구 삼각주에 끝없이 펼쳐진 갈대밭의 황금물결을 가슴에 안을 수 있었다. 괴정동은 이 낙동강의 힘찬 물 기운을 그대로 받고 있다. 바람을 감추고 물을 얻었으니 이곳을 어찌 명당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02
괴정동에는 말들과 사람이 함께 살았다

괴정동의 옛 지명은 목장리(牧場里)였다. 말을 기르는 곳이라 그렇게 이름지어졌다. 낙동강의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초원에서 유유히 풀을 뜯고 있었을 말들이 족히 수백 마리는 되었을 것이다. 지금의 제주도 목장지대를 생각하면 될 듯하다. 주변 마을의 아이들은 좋은 구경거리였고 어른들은 이곳이 생계의 터전이었으며 부역의 고통이 이어진 곳이기도 하다. 나중에 이러한 부역의 과중함으로 인해 목장리 주민들의 집단 항의가 일어났지만, 아무튼 괴정동은 말과 떨어질 수 없는 지역이었다. 부산의 일부 지역은 조선중기까지 국가의 요구에 따라 말을 생산했다. 전쟁시 필요한 군마(軍馬), 이동에 필요한 승마(乘馬), 관원의 공무에 필요한 역마(驛馬) 등 필요한 말들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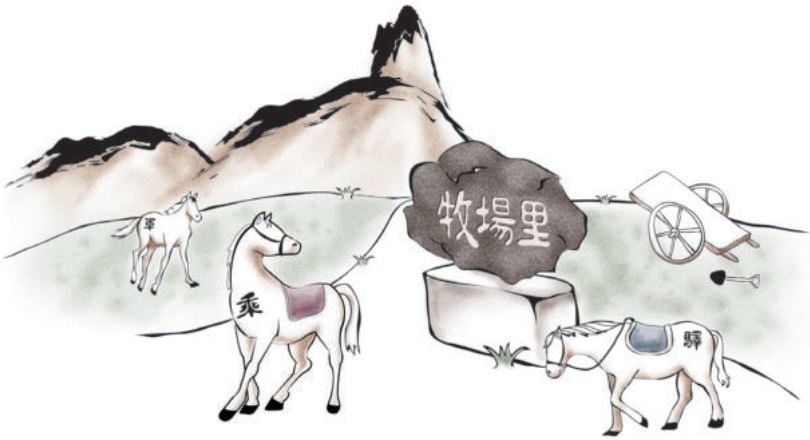
예전에는 '말의 부(富)가 나라의 부(富)' 라고 말할 정도로 말의 생산은 국가의 주요한 사업이었다. 빠른 이동성은 군사적으로도 유용하지만 산업발전의 척도이기도 하다.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으로 사용된 말은 지금

으로 치면 자동차와 휴대폰과 같았을 것이다. 따라서 말 기르기는 조선의 조정에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일 중 하나였을 것이다. 《동래부지(東來府誌)》에 보면 목장리는 동래헌에서 서쪽으로 40리에 있다고 했다. 10리가 4킬로미터이니 동래구 수안동 근처(그 당시 동헌이 있었던 자리)에서 서쪽으로 16킬로미터를 내달리면 지금의 괴정동이다. 이로써 괴정동이 바로 목장리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무렵의 목장은 군마를 길러 나라에 헌상하던 곳이다. 부산에서는 영도에 가장 규모가 큰 목장이 있었다. 낙동강 동쪽 언덕 주변에는 괴정, 하단, 장림, 다대 등에 말을

목장리의 역사적 자료

조선초기 1469년에 발간된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尚道續撰地理志)*를 보면 석포목장(石浦牧場)에는 목마(牧馬)가 232필(匹)이 있고, 오해야목장(吾海也牧場)에는 739필의 말이 있다고 적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석포목장은 지금의 남구 대연동을 지칭했고, 동국여지승람에는 오해야항의 위치를 동래현(현재 동래구)에서 서쪽으로 43리밖에 있다고 한다. 동래부지는 목장리(牧場里)를 동래현에서 40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즉 오해야항은 현재의 괴정동과 거의 일치한다. 또한 해동지도(海東地圖)는 오해야항을 석성산 서쪽에 기록하고 있다. 역시 괴정동이다. 월인석보(月印釋譜 :1459년 刊), 두시언해(杜詩諺解 : 1481년 刊간)를 보면, 오해야(吾海也)는 '마구간' 이란 뜻으로 한자의 음을 따서 이두식(吏讀式)으로 표현한 것으로 나와있다.

* 경상도지리지의 속편으로 조선 예종1년(서기 1469년)에 간행되었으며 경상도지리지를 더욱 상세하게 보강한 책이다.



길렀다. 이 중 괴정만이 목장리로 불린 까닭은 다대진 관하의 목장으로는 괴정동의 목장이 가장 규모가 컸기 때문이었다.

지금의 희망촌(希望村 : 괴정4동) 일대가 예전부터 마골(馬谷), 마하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진 것으로 미뤄 짐작해보면 이곳에서 말을 집중적으로 길렀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목장들은 대개 다대첨사가 감독관으로 겸임했다. 이곳에서 길러진 말은 백작포, 또는 모치포란 곳에 가서 헌상했다고 전해진다. 모치포란 모지포(毛知浦)라고 적히며, 모짓개라는 말로도 불리는데 이곳은 현재의 혈청소(血淸所) 옆의 마을이름이다. 수백마리의 말이 머물고 분류되고 헌상되는 모양새가 장관이었으리라.

목마장의 시설 중 목책(木柵)은 일제시대까지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부산부사원고(釜山府使原稿) *》에는 그 위치에 대한 기록은 없다. 기록을 남길 당시의 빛바랜 목책(木柵)은 조선의 몰락처럼 바람소

* 1937, 1910년 한일합방 후 1914년 행정개편에 따라 생겨난 부산부의 수장(현재의 시장)인 부사의 공문서 초안 집

릴 내었을 것이다. 다만 이곳이 목장리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유물로는 목장성(牧場城)이 있다. 「목장성은 목마성(牧馬城) 혹은 국마성(國馬城)으로 불리어졌으며 축성연대는 미상이다. 돌로 만들어진 이 성은 현 대티고개에서 시작해 당리뒷산까지 굽이굽이 돌아서 3킬로미터 가까이 이어진다. 곳곳이 허물어져 있고, 끊어져 있으며, 현재의 집들과 벽을 기대어 겨우 버티는 곳도 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지난 역사를 지워가고 있다. 다행히 그중에 비교적 형태를 잘 갖춘 곳도 있다. 희망촌 동쪽 산곡에 있는 성곽은 두께 8척에 높이 8~12척으로 버텨내 과거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성의 상단은 높이가 고르고 하단은 지형에 따라 차별이 있어 군사적 시설로도 사용했음을 짐작해본다」 (‘사하지’ 1986 발간).

이 성에는 신라토기의 파편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신라시대 때부터 성이 있었다는 증거일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없다. 말들이 힘차게 뛰어놀았던 목장리, 현재는 그 흔적이 조금씩 남아 있어 그 옛날의 흘러간 역사를 증명해주고 있다.

03
팔정자 나무, 아픈 전설의 사연

괴정동에는 흥미로운 전설이 하나 있다. 팔정자 나무에 얽힌 사연이 그것이다. 민초들의 아픔과 설움이 짙게 밴 이 전설은 역사적 기록으로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야사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다. 말을 길렀던 이곳 괴정동 목장리는 수백마리의 말을 키우는 광경은 장관이었을지는 몰라도 말을 돌보는 부역을 맡아야 했던 민초들의 수고로움은 대단했을 것이다.

목장리(현 괴정동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말이 달아나지 않게 목책(木柵)을 구축한다거나 석성을 쌓고 고치는 일 또한 여간 부담이 아니었을 것이다. 게다가 한번씩 목책을 넘어 달아나는 말들로 인해 주변 농작물이 피폐해지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 주민들도 괴로운 일이었지만 목장을 관리하는 감독관인 다대첨사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다.
나라에서 할당한 말을 잘 키워서 조정에 바쳐야 하지만, 목책을 넘어서 달아나는 말도 있었을 것이며, 병이 들어 죽어가는 말도 있었을

팔정자 나무

것이며, 간혹 춘궁기에는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잡혀 먹는 말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목장리 주민들은 불만이 많았고 다대첨사는 그 불만을 잠재우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마침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다대첨사의 심각한 폭정이 발생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한 몇몇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이 터져 나오게 되었다.

그 당시 괴정동에는 회화나무(槐木 : 괴목) 여덟 줄기가 땅속에서 하늘로 솟아올라 커다란 나무를 형성했는데, 이를 팔정자(八亭子)나무라고 불렀다. 대개 민간신앙에서는 마을의 큰 나무는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목(守護木)의 역할을 하여 마을의 길흉을 관장한다고 믿어왔다. 그때 마침 다대첨사가 그곳을 지나는 일이 있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 여덟명이 이 팔정자 나무 아래에 모여 국마장의 과도한 부역과 다대첨사의 폭정을 규탄하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전달하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다대첨사가 내놓은 대책은 주민들이 원하는 해답과는 거리가 멀었다. 다대첨사가 잔혹한 성품을 지녔는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항의 과정이 지나쳤는지 몰라도 다대첨사는 그들 여덟명을 국법을 어긴다 하여 모두

처형하였다. 그리고 다시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팔정자 나무 마저도 베어버렸다. 이 팔정자 나무를 베어버린 것은 동래부사였다는 설도 있으나 확인할 길은 없다.

원래 목장관리는 강력한 군사력을 쓰는 수군(오늘날의 해군)의 수장인 다대첨사가 맡았다. 당시의 다대첨사는 정3품 당상관이었다. 동래부사는 문관으로서 같은 정3품 벼슬이었으므로 다대첨사와 동래부사는 같은 위상을 갖고 있었다. 대개 당시의 수군 수장은 선참후계(先斬後啓) 즉 죄인을 먼저 참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지금으로 본다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권한이었지만, 당시의 시대상으로는 이러한 일이

통용되었다. 주민들의 정당한 항의였을 수 있는 그 상황을 선참후계의 권한으로 무참히 베어버렸다는 것은 이유여하를 떠나 과도한 형 집행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팔정자 나무까지 잘라버리는 '씨를 말리는 형 집행'은 지역 주민들의 가슴에 큰 한을 남겼을 것이다. 그 후 베어버린 팔정자 나무인 회화나무 밑동에서 다시 여섯 가지가 살아나왔다. 그 나무는 현재 괴정동 1247-24번지에 수령 600년의 거대한 회화나무로 남아있다. 동래부지에 목장리로 되어 있던 이 마을 이름이 1904년 발간된 《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에서 괴정동으로 개명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원래 회화나무는 한자어로 표기하면 괴목(槐木)인데, 그 팔정자 나무와 이름을 함께 따서 현재의 괴정동(괴목의 정자 동)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괴정동 회화나무 아래에는 지금도 양력 5월 7일이 되면 제(祭)를 올리는데, 마을의 무사평안을 비는 제(祭)이다. 그때 참수당한 사람들의 원혼은 이미 사라졌을지는 몰라도 다시 피어오른 회화나무는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굽어보고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나무는 1982년 천연기념물 제316호로 지정되어 국가의 지속적인 보호를 받아왔는데, 나무가 너무 오래되고 쇠약하여 지금은 천연기념물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만 마을에서는 마을보호수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전설의 회화나무는 그 푸르름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 1896년 행정개편에 따라 경상도가 남북으로 분할되면서 생겨난 경상남도의 19개군 중의 하나인 동래군의 도시계획도

04
괴정동엔 아름다운 마을들이 많다

괴정동에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부락들이 많다. 그 지명들도 옛 냄새를 물씬 풍긴다. 지금도 사릿골, 배고개, 삼밭골 등 예전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정감을 느끼게 만든다. 마을의 인심이 후한 것도 이러한 지명 때문이 아닐까.

사릿골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자연이 있어도 그저 고마울 뿐이다. 꽉 막힌 콘크리트 숲을 벗어나 숲을 즐기고 새소리를 들을라치면 묵은 스트레스가 한방에 풀린다. 현재의 동주대학 뒷산에 사리나무가 많아 이름이 붙여진 사릿골은 바로 괴정동 주민들이 사랑하는 산책코스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오르기도 하고 가벼운 복장으로 혼자서 사색을 즐길 수도 있는 곳이다. 괴정천이 있는 상류 골짜기인 이곳 사릿골은 사리곡,

사릿골 입구

새리골이라고도 불린다. 동주대학과 사하도서관이 근처에 있어 산책이 지루해지면 동주대학 교정을 둘러봐도 좋고 내친김에 사하도서관에서 책을 읽어보며 한낮의 여유로움을 즐기면서 마음을 살찌우는 것도 좋을 것이다.

고분들 마을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피우던 시절에~~", "옛날 옛적에 고리짝 시절에~~"

어린 시절, 할머니들이 손자손녀를 무릎에 앉혀놓고 옛날 얘기 들려줄

사릿골로 가는 진입로(동주대 부근)

때 즐겨 사용했던 서두였다. 이 말은 아주 아주 오래전이라는 뜻인데, 할머니들의 구수한 입담이 이어졌던 이 서정적인 서두는 지금도 그 손자손녀들이 자신의 손자손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변함없는 첫머리이기도 하다.

이 중 고리짝은 고리짝을 만들었던 시절이란 의미로 쓰이기도 했고,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건을 담는 대나무 등으로 엮은 고리짝이 아니라, '고려적' 즉 고려시대란 의미였다는 설도 있다. 아무튼 그 고리짝이 고리짝이든 고려적이든간에, 괴정1동 일대는 옛날옛적 고리짝을 잘 만들었던 자연마을이었다. 이 마을 이름을 다른 말로는 고분도리라고도 불리기도 했다. 고분도리는 '고블(고불)'과 '드르'에서 온 것이라

고 추측된다. 고블은 고리짝을, 드르는 들을 말하므로 고블드르는 고리짝을 만드는 들을 가리킨다. 아마 이곳이 고리짝을 만드는 재료가 많이 나거나 고리짝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을 것이다.

옛날 옛적 고리짝을 잘 만들었던 자연마을 괴정 1동은 현재는 고리짝을 만들지는 않지만, 이 곳 주민들은 여전히 손자손녀들에게 '옛날 옛적 고리짝 시절에~~' 를 말하고 있으리라.

대티마을

괴정2동 일대에 있던 자연마을이다. 대치마을이라고도 부른다. 지금의 괴정동에서 서대신동으로 넘어가는, 대티터널 위쪽에 있는 고개가 대티(대치)고개이며 다른 말로는 재첩고개라고도 불렀다. 이 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대티(대치)마을이라 하기도 했다.

1678년에 부산진에 있던 두모포왜관을 용두산 주변의 초량왜관으로 옮길 때 초량왜관 주변에는 조선인 촌락이 있었다. 왜관이 옮겨진 뒤에 일본인들이 마을을 침범하여 충돌이 자주 일어났다. 이에 조선인들을 대티고개가 있는 산골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대티촌이 생겼다고 전하나, 분명하지는 않다. 《동래부지*》에 의하면 대치리는 사천면 관내에 있으며 관문에서 30리 거리에 있었다고 전해진다. 《다대진지》를 보면 당시 대치리는 원호 73호, 인구 209명(남자 99명, 여자110명)이었다. 1904년에 편찬된 《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에 의하면 사하면 관내에 대치리가 있다. 당시 대치리의 호수는 42호이다. 박, 김, 이씨가 많이 살고 있었다고 기

* 1740, 조선시대 동래도호부의 행정관계를 기록한 책

괴정2동 치안센터에서 바라본 현재의 대티고개

록돼 있다. 1910년 6월 20일 현재 조사된 사하면의 일본인 인구수는 괴정동 2명, 평림동 28명, 대티동 3명, 하단동 84명이다.

대티마을 사람들은 일본인을 몹시 증오하여 일본인을 보면 시비를 걸고 대티고개를 넘는 일본인을 보면 기왓장과 돌을 던지는 일이 많았는데 이것은 일본인 때문에 마을이 산골로 옮겨진 데 대한 앙갚음이었다. 일제 강점기 때는 이곳을 곡정(谷町)이라고 불렀는데, 곡정 사람이라면 일본인이 벌벌 떨었다고 전한다. 이러한 대티마을 사람들의 강렬한 기상이 현 괴정동 발전의 원동력이었을지도 모른다.

05
구불구불 고갯길을 넘어가보자

회화나무 정자 마을엔 전설같은 고개도 많다. 도적이 출몰했던 고개, 장꾼들이 몰려 다녔던 고개, 짐승들이 출몰해 무서움을 더 했던 고개도 있다.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다. 아마 그 당시에는 그 고개에 많은 사연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사연을 찾아보자.

재첩고개(대티고개)

대티고개의 또 다른 이름이다. 예부터 괴정, 하단 주민들은 괴정에서 대신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재첩고개라 불렀는데, 바로 대티고개를 말하는 것이다.

또 소나무가 유난히 울창해서 솔티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 고개는 본래 길이 험한데다가 산짐승과 도적이 자주 출몰해 악명 높은 곳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악명이 높다 해도 낙동강 하구에서 재첩을 캔 아낙네들

1980년, 양동이에 재첩국을 팔기위해 차를 기다리는 여인네의 모습

은 부산장이 서는 날이 되면 이곳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다. 혼자서 넘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장이 서는 날 아침이 되면 재첩을 이고 진 아낙네들은 괴정삼거리에 모두 모였다. 일정한 인원이 채워지면 모두 이 고개를 넘었다. 길게 줄을 지어 넘어가는 하얀 옷의 아낙네들의 모습이 가히 장관이었을 것이다. 재첩고개란 이름도 이렇게 해서 지어졌다고 전해지나 확실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고 짐작할 따름이다.

현대로 넘어오면서 대티고개는 도로가 생기고 차량이 통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도로는 좁고 굴곡이 심하여 차량 운행에 불편이 많았다. 1973년 대티터널이 준공되어 이러한 교통문제도 해결되었고 이로 인해 사하의 발전이 눈부시게 달라졌다. 터널의 준공은 사하지역을 완전히 시내권으로 포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티고개 넘어 사람들이 시내에 갈 때에는 '부산간다'라고 하였을 정도로 사하지역과 시내권은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지금은 지하철 1호선이 이 고개 아래를 지나가면서 고개를 이용하는 빈도가 크게 줄었으나 지하철 서대신동역과 괴정동역 사이의 역명이 대티역일 만큼 대티고개는 사하를 대표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대티고개를 오르면 여전히 재첩고개의 냄새가 베어있는 것 같다. 먹고 살 걱정과 자식 뒷바라지의 일념으로 그 험한 산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 땅의 아낙네들, 그 굳센 의지와 눈물의 인내가 재첩고개인 대티고개에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 이 고개를 넘는 사람의 발길을 멈추어 서게 한다.

배고개

배고개는 괴정4동에서 신평1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배오개 또는 이티라고 부르며 한자로 이현(梨縣)으로 쓰고 있다. 원래 고개와 관련된 지명은 '고개', '재', '티', '치', '개' 등이 있어 '배오개', '이티'로 다르게 불러졌을 것으로 본다. 이 배고개는 배나무가 많아서 배고개로 부르게 되었다고 하나 배(梨)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동쪽에 있는 고개이므로 '붉고개'의 '붉'에서 '배'로 전음(轉音)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고개는 선사시대의 신평 패총인과 괴정동 패총인이 왕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하단장과 부산장, 그리도 구평동의 독지장을 보러 다니는 장꾼들이 넘나들었던 유서깊은 고개다. 하지만 1980년대 괴정~장림간의 간선도로로 확장, 포장되면서 차량통행량이 많은 잘 정비된 현대식 포장도로로 바뀌었다.

시대는 달라지고 고개도 변화가 이어지지만 그곳을 지나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은 모두 한결같을 것이다.

삼밭골

삼밭골이란 이름에서 이미 삼을 재배한 곳임을 알 수 있다. 삼밭골은 배고개로 올라가는 골짜기에 있었다. 이 곳 주민들이 삼농사를 많이 지어 인근 마을에 팔기도 하고, 스스로 삼옷을 만들어 입기도 했다. 올이 얼기설기 잘 뚫려 있어 여름철에 즐겨 입었던 삼옷은 그 당시로 치면 에어컨 같았다. 삼농사는 농가소득으로도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 한다. 하지만 나이론 의복이 주종을 이루고 선풍기와 에어컨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삼밭으로 이름난 삼밭골은 서서히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또 1980년 이후 크고 작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옛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하지만 골짜기 골바람 속에 삼밭을 매는 아낙네들의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1970년, 사하우체국과 배고개 주변의 괴정동 옛모습

"삼밭 매는 아낙네야.. 배적삼이 흠뻑 젖네.."

칠갑산의 노랫자락을 흥얼거리며 이곳을 거닐어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일 것이다.

현재의 괴정에서 배고개 모습

06
괴정동의 젖줄, 그리고 물

어머니의 젖줄은 아이를 먹이고 괴정동의 젖줄은 사람을 먹인다. 맑고 시원한 괴정동의 젖줄, 아직도 그 원천이 남아 있다. 단물 같은 그 젖줄은 지나는 길손을 잡아끌며, 괴정동을 살아있게 만든다.

괴정통샘

우물은 어머니의 젖과 같다. 가정의 식수에서부터 지나는 길손의 갈증난 목젖을 축여주는 생명수다. 괴정1동 1244-1번지에 있는 괴정통샘은 역사적으로 꽤 오래된 우물이다. 이 우물은 괴정동패총 바로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아 괴정패총인들이 살던 변한시대부터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우물은 예부터 물맛이 좋아 주민들이 단물샘이라고 불렀다 한다. 지금도 예전 맛이 그대로 남아 지나는 길손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통샘 바로 밑에는 예부터 빨래터로 사용되어온 큰새미걸이 있다.

통샘과 빨래터

괴정동 큰새미걸 빨래터

큰새미걸

옛날 빨래터는 여인들의 고단한 노동의 현장이었다. 겨울철에는 시린 손이 피가 나도록 얼어붙기도 했고, 여름에는 여린 손이 물집으로 물러터지기도 했다. 하지만 옹기종기 모여 사담을 나누는 사랑방이기도 했으며, 남편 흉과 자식 자랑을 한껏 쏟아내 스트레스를 푸는 일종의 해방구이기도 했다. 또한 마을의 중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정보소통의 장소이기도 했다. 큰새미걸은 바로 괴정동 여인들이 모여들었던 빨래터였다. 수량이 풍부한 통샘 바로 아래에 위치한 이곳은 최근까지만 해도 마을 여인들이 빨래감을 가지고 와서 빨래방망이를 두들기며 시집의 스트레스를 풀었던 곳이었다. 도시개발과 각 가정의 수도시설이 완비되어 이곳을

찾는 이가 거의 없어졌으나, 최근 사하구에서 회화나무와 큰새미걸터를 복원해 '회화나무샘터공원' 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역사가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괴정천

구덕산 남쪽의 시약산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동주여중 앞에 이르러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괴정, 당리, 하단동을 차례로 관류하면서 낙동강 본류에 흘러드는 도심하천이다. 예전에는 괴정동의 중요한 젖줄이었다. 이 하천은 상류(사릿골)가 급한 계류하천으로 되어있으나 중 · 하류는 폭이 점점 넓어지면서 완만한 것이 특징이다. 중류에서는 반월형으로 괴정동 시가지를 감싸고 흐르면서 괴정 침식분지를 형성하고 하류에서는 승학산에서 발원한 당리천과 함께 좁고 긴 하곡평지를 이루고 있다.

괴정천은 예부터 집중호우시 자주 범람하는 재해가 잦은 하천으로 이름나 있었으나 1980년 하천유로를 정비하면서부터 홍수와 사태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괴정천은 상류와 하류일부만을 제외하고 대부분 복개되어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재 기능을 못하고 회복이 힘든 상태로 놓여져 있다. 언젠가는 도시하천이 정비되어 괴정천이 진정한 괴정동의 맑은 젖줄이 되어 물고기가 뛰어놀고 아이들이 물장구치는 모습을 보게 될 날을 기대해 본다.

1980년대 사하구의 유일한 준용하천인 하단동 주변 괴정천 복개전의 모습

현재 복개된 괴정천 모습

07
새로움과 희망을 간직한 마을들

회화나무 정자 마을은 새로움과 희망을 품은 곳도 많다. 한국전쟁 후 피난민들이 대거 몰리면서 형성된 이 곳 마을은 그 희망의 산실이다. 미래를 여는 사람들이 서로 어깨동무하며 밝음을 지향했던 그 역사의 현장에 가보자.

신촌

신촌(新村), 글자 그대로 새롭게 형성된 마을이다. 이 마을은 '용두산 대화재'와 '부산역전 대화재'로 인해 생긴 마을로 괴정3동에 있던 마을이다. 원래 이 곳에는 집은 별로 없고 밭만 있었다. 신촌을 중심으로 한 일대의 들을 '중맥들'이라고 불렀다. 1950년 한국전쟁 때 부산에는 전국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많이 살았다. 6·25가 끝난 이듬해인 1954년 12월 10일 새벽, 피난민 판자촌 1천여채가 빼곡히 들어선 용두산공원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이때 판자촌 전체를 불태우고 8천여명의 이재민

신촌과 양지마을에 대한 회상

양지마을 경로당 _ 이정숙 할머니 · 하영주 할아버지의 증언

- 40~50년 전 괴정3동은 산과 밭만 있는 곳이었다고 한다. 피난민 주택, 수혜민 주택들이 생겨나면서 동네가 빠르게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해방 후에는 수용소가 있었다고 하는데, 주로 정신이상자들이 수용되었다고 말한다.

- 1959년 9월 경상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라호 태풍 때 시에서 구호주택을 지었다고 한다. 이 주택은 한 동에 4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왓집 형태의 주택이었다.

이 생겼는데, 이것을 "용두산 대화재"라고 한다. 그 1년 전인 1953년 11월 27일에도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부산역전에서 일어났다. 밤 8시 30분경 때마침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타고 화마가 이 일대의 판자촌을 완전히 집어 삼켰다. 피난민들이 옹기종기 붙어살았던 판자촌 3천1백여채가 한꺼번에 잿더미가 됐다. 사상자 29명, 6천여세대의 3만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른바 '부산역전 대화재'였다. 이 두건의 화재로 졸지에 집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 갈 곳이 없어진 이재민들은 신촌으로 집단이주하게 되었다. 고단한 피난민들이 또다시 절망스러운 이재민으로 전락했지만, 신촌으로 이주한 뒤 이들 이재민들은 이를 악무는 의지로 자신의 삶을 억척스럽게 개척해 나갔다. 지금의 신촌은 판자집의 흔적은 거의 찾을 수 없고 희망의 물결속에서 거듭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한편 이곳에는 해방 후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잔류해 있는 일본인을 수용하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소속의 외국인 수용소가 괴정

천가의 신촌 남쪽에 있었다. 그러나 수용자는 별로 많지 않았다.
▶신촌은 현재 괴정3동 주민센터 주변

양지마을

괴정3동에 있던 마을이다. 신촌 건너편 북쪽 산기슭에 간이 주택촌이 들어서서 '양지(陽地)' 마을을 형성하였다.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라서 양지마을이라 한 것 같다. 이 마을도 피난민과 이재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금은 동네 이름 그대로 밝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희망촌

괴정4동에 있던 마을이다. 희망촌(希望村)이라 불리는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주민들의 바람이 담겨서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희망을 가지자는 의미로 보았을 때 이곳도 피난민과 이재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생겨진 이름이 아닐까 짐작된다. 원래 이 일대는 말골(馬谷), 말꼴, 마하골, 마하곡, 소태미 등으로 불리었다. 아마 괴정동 일대를 목장리로 불렀을 당시의 이름이 그대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희망촌은 현재 사하중학교 주변

소고(小考)

신촌, 양지, 희망이라는 명칭은 새주소 안내지도에 그 지역을 알리는 고유지명(신촌 ○길, 양지 ○길, 희망 ○길 등)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

하늘과 소통하는 신성한 마을

당리동

하느님과 직접 소통하는 동네, 비가 오기를 빌면 바로 비를 내려주는 마을, 당리동이 가진 예전의 위상(?)이다. 당리동에는 하느님과 직접 소통하는 공간인 제석골(帝釋谷)이 있고, 비가 오기를 비는 기우소(祈雨所)도 있었다고 전한다.

과거에는 이곳이 사하구의 다른 동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수도 작고 면적도 협소하였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 기능만큼은 대단하였을 것 같다.

예전에는 이곳에 가뭄이 들면 하늘에 비를 비는 전통 기우제를 지낸 적이 많았다. 빈다고 비가 왔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을 사람들의 경천애인(敬天愛人 :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01
어머니의 양수(羊水) 같은 당리동

노자 도덕경에 보면 곡신불사(谷神不死)란 말이 있다. 직역하면 계곡의 신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다. 의역은 다양한데, 무위자연(無爲自然)을 노래한 노자의 뜻으로 보면 세상의 풍진에 벗어나 계곡에 들어가 신(神)이 되면 불노불사(不老不死)한다는 뜻일 듯하다.

계곡은 어머니의 자궁이다. 큰 산들이 호위하고 그 속으로 흐르는 맑고 시원한 물은 생명을 잉태하는 바로 어머니의 양수일 것이다. 당리동은 바로 어머니의 양수(羊水) 같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엄광산(嚴光山) 줄기를 북쪽으로 등지고 맑은 계류를 따라 좁은 골에 형성된 마을이다. 마을의 한가운데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 그 사이 너머로 보면 북쪽에 위치한 승학산(乘鶴山) 동쪽에 산불량(山不良 : 부영벽산블루밍아파트 뒷산) 남쪽은 독뫼(獨山 : 동매산)가 버티고 서 있다.

하늘의 뜻과 연결되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만한 좋은 명당(明堂)이다. 당리(堂里)라는 마을 이름 자체도 당리동에 있는 제석골에 사당을

짓고 여신을 모신데서 비롯했다고 전해져 오니, 모두 새로운 생명잉태의 어머니와 연관되는 것 같다.

참고로 해발 476M의 승학산은 고려말 무학대사(無學大師)가 전국을 두루 다니며 산세를 살피다가 이곳에 이르러 산을 보니 산세가 준엄하고 기세가 높아 마치 학이 웅비하는 듯하다고 하여 산의 이름을 승학산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산불량은 소맥산맥의 줄기가 이곳까지 뻗어 와서 아깝게도 끊어져 버렸으므로 못쓸 산이라고 하여 산불량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어 흥미롭다. 모두 도참설(圖讖說)에서 유래되어 구전되어 온 것이 아닌가 싶다. 참고로 도참(圖讖)은 참위(讖緯)라고도 하는데, 내용과 형식에 관계 없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 혹은 징조를 통칭하는 낱말로, 특히 인간 생활의 길흉화복 또는 성쇠득실(盛衰得失 : 성하고 쇠퇴함과 얻음과 잃음)에 대한 예언 혹은 징조를 가리키는 말로 두루 쓰여진다. 특히 땅과 관련한 기운과 길흉화복 예언 등에 대해서는 '지리도참설' 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한다.

당리에 대한 역사적 기록

1740년 간행된 《동래부지》에는 당리라는 지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1904)》에 당리동이란 지명이 기록되어 있고, 호수도 18호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촌락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당이 있었으므로 당곡 또는 당리라 하였는데, 부산부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동래군 사하면으로 편입되었으며 1942년에 다시 부산부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02
하늘과 연결되었던 제석골

사하구의 당리동에는 제석골(帝釋谷)이라 불리는 계곡이 있다. 이 계곡의 명칭은 제석단을 쌓고 기우제를 드리는 데에서 붙여진 듯 하며 일설에는 제석골에 사당을 짓고 여신(女神)을 모신 데서 온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말 이곳에 기우소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동래부지》의 승악산(勝岳山) 기우소라는 말과 일치하고 있으니 가능성이 많다.

현재 이곳에는 무학사라는 절이 있고 당제를 지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이 절 부근에서는 고려시대의 목엽문(木葉文)기와 조각이 발견되어 역사적으로 꽤 오래된 터임을 증명하고 있다. 또 누석단(累石檀)도 있어 민속학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제석(帝釋)이란 불교 용어로서 대체로 '하늘 임금'이라는 의미로 알려져 있다. 전국적으로 제석사, 제석골이란 이름이 붙은 곳이 상당히 많다. 수십 곳이 넘는다. 이런 곳에는 대개 기우제단이 있다. 가뭄이 들면 지역의 수장이 머리를 풀고 제단 아래에 머리를 조아린다. 자신의 부덕으

제석골 올라가는 입구

제석 [帝釋]

①수미산(須彌山) 정수리에 있는 도리천(忉利天)의 임금. 곧 사천왕(四天王) 삼십삼천(三十三天)을 통솔하는 도리천의 임금을 말함. 선경성(善見城)에 있어 사천왕(四天王)과 삼십이천(三十二天)을 통솔하면서 불법과 불법에 귀의하는 사람을 보호하며 아수라(阿修羅)의 군대를 정벌한다는 하늘 임금. 제석은 서천(西天) 말의 석가제바인다라(釋迦提婆因陁羅)를 줄여서 이른 말이니, 어진 하늘 임금이란 뜻임. 석제환인다라(釋提桓因陀羅). 천제석(天帝釋).

②환인(桓因).

(출처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경로당 본동 할머니
이춘옥 · 전연옥씨의 증언

제석골 계곡 무학사 맞은편에 제단이 있으며, 삼월 삼짇날 제를 지낸다고 한다. 키가 작고 얼굴이 붉으며 다리에 털이 수북히 난 제단 할머니가 돌에 앉아 있다가 돌산 공사 폭음 때문에 떠나버렸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진다고 한다.
예전에 제당 앞에 큰 웅덩이가 있었는데 외부인들이 웅덩이의 물이 맑아 목욕을 하다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로 인해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며 하늘이 용서해줄 것을 아뢴다. 지역의 수장은 일체의 금기사항을 지키며 비만을 기다린다. 경천애인(敬天愛人 : 하늘을 숭배하고 인간을 사랑함)의 결정판이다. 이 기우제는 비가 올 때까지 이어진다. 지금이야 비가 오고 안 오고는 기상청에 문의하면 금방 알 수 있지만, 당시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하늘만 쳐다 볼 수밖에

제석골(동원베스트 쪽)

제석골 (제석당에서 바라본 전경)

없었다.

제석골 가까이에는 아치섬이 있다. 이곳을 제석곶이라고 부르며 여기에도 역시 기우소가 있었다. 아마 제석이라는 지명과 이름은 하늘과 직접 소통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듯하다. 민간신앙이 불교적으로 융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어찌 되었던 지역의 민심은 제석골이 하늘의 좋은 기운을 당리마을과 사하구에 잘 뿌려주는 매개체가 되어주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03
역사의 체취를 담은 성지(城地)터들

그 지역이 오래된 곳인지 아닌지는 그 터에서 나오는 유물을 보고 알 수 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성(城)터이다. 성이라는 것이 원래 외적의 침입을 막고 마을을 보호하는 의미로 만들어진다. 성터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에 중요한 사람이나 동식물이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당리는 동네는 작지만 성터가 두 곳이나 있어 이 지역이 과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곳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당리의 성터는 많이 허물어 진 곳도 있고 비교적 원형이 남아 있는 데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현재는 찾을 수가 없다.

허물어진 곳은 허물어진 것대로 과거에 대한 아스라한 상상을 가져볼 수 있고, 원형이 남은 곳은 그 곳대로 역사의 상황을 짐작해볼 수 있어 지나는 길손은 발길을 멈춘다.

제석곶 성지(城地)

아치섬, 즉 제석곶의 주변에 쌓인 석축이 바로 제석곶 성(城)이다. 제석곶 성은 《동래부지》의 성곽조에 기록되어 있어 성축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던 것이 삼포왜란 뒤, 동래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폐지한 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아쉬운 마음에 성터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은 지나온 과거에 대한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당리동 성지(城地)

목장성(木場城) 목마성(牧馬城) 혹은 국마성(國馬城)으로도 불리우고 있는 당리동의 성(城)은 석축으로 된 성이었다. 원래 괴정동 일대를 목장리(牧場里)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 그 연장선에서 의미를 둘 수 있을 듯하다. 이 성은 지금의 대치고개에서 시작하여 당리 뒷산까지 약3킬로미터의 길이로 이어져 있었다고 한다. 그 중에서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1980년대 중반까지 남아 있었던 곳이 지금의 희망촌 동쪽 산골에 있는 것이었다. 두께 8척에 높이 8~12척의 단단한 성이며 상단의 높이만 맞추어 쌓은 성으로 지형에 따라 높이가 일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성지에서도 역시 신라 토기편이 많이 발견되는데 그 전부터 쌓여진 성을 후에 목장성으로 수축하였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목장성은 말들을 가둬 놓는 용도로 사용했고, 후에는 외적의 침입을 막는 용도로도 사용했을 것이다. 괴정동에서부터 이곳 당리까지 나라의 말들을 키웠던 목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푸른 초원 위에 뛰어놀았을 말들은 찾을 수 없지만, 이곳 성곽 주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당리동은 여전히 힘찬 동네임을 느껴본다.

04
마을의 복을 비는 당리마을의 당제(堂祭)

당리동에서는 매년 3월 3일 당제(堂祭)를 지낸다.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잡귀를 막고 마을을 수호하고 복을 비는 제례의식이다. 당제는 당산신(堂山神) 등의 제당신을 모시면서 마을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의례인데, 걸궁(乞窮), 줄다리기, 마당밟기, 풍물굿, 매구 등을 함께 해서 흥을 돋운다. 다른 이름으로는 당산제(堂山祭), 당고사, 당마제 등으로 알려져 있다.

당제를 지내는 곳은 대개 거릿대(솟대)가 있는데 이곳에서 당제를 올린다. 이곳은 마을의 성역이기도 하다. 이 거릿대는 장승이나 입석, 또는 수목(樹木)을 사용한다. 수목은 큰 소나무와 포구나무를 택하여 신목(神木)으로 하는 것이고 입석은 돌을 쌓아 탑을 만드는 것이다. 다른 지역은 대부분 목신일 경우가 많지만, 당리동은 석탑을 만들어 당제를 지냈다. 이 석탑은 당리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제석골에 있으며 동신(洞神)을 제사 지내는 서낭당도 있다. 참고로 제장(祭場 : 제사를 지내는 장소)

제석당

은 제단형(祭壇型)과 제당형(祭堂型)이 있다. 제단형은 나무가 신의 매개체인 경우가 많은데 그 앞에 있는 소박한 제단 위에 제상을 차려 제사를 모신다. 제당형은 일반적으로 도서 · 해안 지역에 많다. 당산신을 모시는 서낭당이 마을에 있다. 제당형의 경우 서낭당을 두고 당산제를 진행하는데 인공물인 장승 · 입석 · 솟대 등을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즉 제당형은 제단형과 서낭당을 함께 결합시키는 경우다.

바다가 가까운 당리동도 이러한 영향이 있어 보인다. 솟대인 입석이 있으며 서낭당도 같이 있다.

05
어머니의 젖줄 같은 당리천(川)

하늘 아버지와 땅 어머니라고 한다면 땅에서 흐르는 내(川)는 어머니의 젖줄과 같다. 식물과 동물을 키우고, 나아가 그 마을을 먹여 살리고 인물을 만들어내는 생명수(生命水)다. 그래서 마을이 형성되는 데는 어김없이 맑은 물이 흐른다. 그런 면에서 당리천은 다른 어느 마을 보다 물이 깨끗하고 수량도 풍부해 예부터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당리천의 옛 이름인 당리거령은 구덕산에서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흐르다가 당리동 시가지를 관통하여 하단 1동에서 괴정천과 합류한다. 이 당리거령의 발원지를 따라 올라가면 승학산과 산불량 사이의 깊은 골짜기가 나온다. 이 골짜기가 제석골이다. 이곳에서 내려오는 물은 흐름이 빠른 계류천을 이루다가 당리시가지를 지나 괴정천에 합류하는 하류에서는 하상구배(河床勾配 : 상류에서 하류에 이르는 사이의 강바닥의 기울기)가 완만한 망상하천(網狀河川 : 하천에서 퇴적된 토사가 많은 삼각주나 산기슭의 선상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강이 그물 모양으로

1970년, 승학산 기슭 돌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빨래를 하고 있는 당리천 상류의 옛 모습

얽혀 흐르는 모양을 말한다)을 형성한다. 이 당리거령은 예부터 물이 맑기로 유명했다. 최근까지도 간이상수원으로 사용될 정도였으니 물의 깨끗함은 짐작할 만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도시화가 되면서 그 맑은 물은 상류에서만 만나 볼 수 있게 됐다.

복개된 현재의 모습

물이 맑지 않아 생명수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어머니의 젖줄이 말랐다고 어머니의 젖줄이 아니라고 어찌 말할 수 있을까. 당리동 주민들의 피와 살 속에는 과거에 마셨던 어머니의 젖이 지금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으니 말이다.

210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하단동

철새들의 낙원, 한국에서 저녁 낙조가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 그리고 예전에는 하단도선장이 있어 서부산권 물류의 중심지이기도 했던 곳, 바로 하단동(下端洞)이다. 에덴공원으로 불리는 아름다운 강선대의 숨겨진 사연도 흥미롭고, 승학산의 풍수적 의미도 예사롭지 않다.

소의 잔등을 닮아 '무슨 무슨 등'이라 불리는 아름답고 신비한 모래섬도 곳곳에 형성돼 있어 낙동강 하구의 하단동을 더욱 이채롭게 한다.

하단동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다. 아무리 도시화가 진행되어 옛 정취를 많이 잃어가고 있다지만 이곳은 전통과 문명이 함께 어우러져 몇백년이 흘렀고, 앞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공존하는 아름다운 마을이 될 것이다.

01
낙동강 맨 아래쪽이라 하단(下端)인가

이처럼 많은 아름다움과 흥미로움을 간직한 하단동의 하단(下端)이라는 이름은 언제,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을까.

하단이란 한자의 뜻은 아랫 끝이란 의미인데 무엇의 가장 아래쪽에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1740년 편찬한 《동래부지》에 의하면 동래군 사천면(沙川面)을 다시 상단(上端)과 하단으로 나누었는데 상단은 사상지역이고 하단은 사하지역이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당리, 괴정리, 감천리, 구평리, 신평리, 장림리, 다대리를 모두 하단이라 하였다. 동명(洞名)의 유래에 대해서는 구덕산(九德山)이 용호부리(용호머리)이고 거기에서 강(江)을 향하여 괴정(槐亭) 뒷산 줄기를 이루어 뻗은 곳이 아래몰리(아래머리)이니 아래몰리의 끝을 아래치 즉, "하단"으로 불렀다는 설이 유력하다.

또는 낙동강의 맨 아래쪽이라는 뜻에서 아래치 혹은 끝치라는 데서 하단(下端)이라는 이름이 생겨날 수 있었다고 보여 진다. 즉 하단은 아

래치, 끝치가 한자로 변하면서 형성된 이름이다.

옛 이름 중에 평림리(平林里)라고 불린 일도 있으며 하단리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한다.

일설에는 《동래부지》에 기록된 구초량이 하단을 이른 것이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이 설은 '동래부지'에 의하면 '구초량리는 관문에서 32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다른 하단 지역들이 관아와의 거리가 '40리'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거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구초량이 하단이라고 하는 설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과거의 이 동네는 타 지역에 비해 가구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동래부지'에 의하면 786호의 호수가 기록되어 있다. 동래읍내의 호수가 1,165호인 것과 비교하면 동래에 버금가는 대집단 마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이 많이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 좋았다는 뜻이다. 경치도 좋고, 물류도 발전할 만큼 도로망이 잘 되어 있었을 것이고, 생산도 원활할 만큼 자연환경이 잘 갖춰져 있었던 곳이 바로 하단이었을 것이다. 인간이 한 지역에 정착하는 데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도 하단은 이러한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02
하단의 옛날 옛적에

물류의 중심이자 하단을 활기차게 만든 하단포와 하단도선장, 김해지역과 직접 교역했고 마을사람들이 항상 기다려왔던 5일장인 하단장, 맛 좋기로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하단재첩 등은 불과 몇십년전만 해도 이곳 하단에서 숨 쉬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기억 속에서만 남아있는 곳이 돼버렸다. 배가 들고 나고, 재첩국으로 속을 풀고, 장터 바닥에서 씨름을 하고 검정고무신을 들고 환하게 웃었을 하단동 주민의 삶의 추억들을 찾아가보자.

하단포와 하단도선장

노를 저으며 들어오는 배를 보며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모두 긴장된 표정이다. 김해 명지에서 배에 실려 들어오는 소금을 받아서 각자가 가져온 수레에 실어야 했다. 이 소금은 부산에 풀리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분류돼 낙동강 수로를 따라 내륙지역 곳곳으로 이송됐다. 그리고 삼랑진, 왜관, 상주 등지의 벼와 교환해서 다시 들어왔다. 이 벼는 부산에서 소비되는 벼들이다.

이곳에서 소금과 벼를 기다리는 사람들 대부분은 소금도매상들과 양곡도매상들이다. 모두 관록을 갖춘 상인들로 연간 거래되는 양이 상당한 규모다. 또 배에 실린 각종 생필품을 사고파는 일도 벌어졌다. 김해 명지지역과 부산 하단지역의 물류유통의 핵심이 바로 하단포의 하단도선장이었다.

이곳에는 낚시꾼들도 많았다. 민물과 짠물이 교차하는 낙동강 하구는 어자원이 풍부했다. 하단도선장에서 배를 타고 목 좋은 낚시터로 이동하는 낚시꾼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모여 들었다. 배가 들고 나는 틈새 시간에는 하단도선장 주변에 쭉 늘어선 주막집에 들려 막걸리 잔을 부딪쳤다. 이곳 주막집은 꼬시래기회, 재첩국과 대합조개 구이를 내놓고 지나는 낚시꾼 뿐만 아니라 놀러 나온 나들이객과 쌀포대 및 생필품을 지고 나르는 짐꾼, 그리고 소금과 쌀도매상인들을 유혹했다. 맛좋기로 유명한 몇몇 주막집에는 아침부터 술판이 벌어져 왁자지껄하다. “오늘 일은 그만 철수하고 술이나 먹자”를 외치는 호기어린 짐꾼들도 있다. 하지만 배가 들어오면 모두들 약속이나 한 듯 엉덩이를 잽싸게 털고 배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짐꾼들 입장에서는 짐 하나라도 더 받아야 했다. 짐 하나가 바로 돈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단포의 하단도선장은 항상 붐볐다. 심지어 마을의 개구쟁이들이 구경나오는 몇몇 장소 중 손꼽히는 명소(?)이기도 했다. 신기한 물건도 많고 특이한 광경도 벌어지니 재미났을 것이다. 머리에 쇠똥이 벗겨져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이는 아이들은 배삯을 조금씩 모아 멀리 명지

1970년, 낙동강하구 천혜의 절경에서 추억을 가득 담고 돛단배에서 내리는 모습

하단포구비

까지 배를 타고 다니는 것도 쏠쏠한 재미였다.

하단도선장은 지금의 하단1동 근처였는데, 강선대(降仙臺, 지금의 에덴공원)와 동매산 북서 산기슭 사이 하단동 일대의 바닷가 포구인 하단포에 자리잡고 있었다.

1932년 구포다리가 건설됨에 따라 하단 도선장은 물류집하장으로서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명지와 을숙도를 오가는 낚시꾼과 유람객을 태워주는 조그마한 나룻배의 도선장으로 전락했고, 1987년에는 낙동강 하구둑 건설로 이 일대가 매립되면서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졌다.

1978년, 떨어지는 낙조를 아쉬워하며 하단선착장 다리를 건너고 있는 모습

아무튼 하단도선장이 있었던 하단포는 1970년대 까지만 해도 야트막한 수심과 주변의 갈대숲들이 우거져 아름다운 포구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의 포구를 헤집고 다니던 자그마한 돛단배와 노를 젖는 배들이 많아 정겨운 추억의 장소이기도 했다.

이 하단포에 있었던 하단도선장은 구포다리가 건설되기 전까지만 해도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김해, 대동, 대저, 강서의 명지와 녹산을 오가는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 도선장으로 이름난 곳이었다. 특히 곡창지대인 김해지역의 벼농산물이 대저나루터에서 낙동강 하류일대의 가장

큰 미곡시장이었던 하단장으로 옮겨가기 전에 이 곳 하단도선장에 집하되었다. 또한 삼량진, 왜간, 상주의 벼농산물도 이곳에 집하되었다. 명실공히 물류의 중심지였던 곳이다. 하단포에는 나락을 사들여 도정하는 객주업(客主業)이 발달하였고 소금, 벼, 노적거리가 곳곳에 쌓여있어 물동량이 상당하였음을 보여주었다.

1872년 7월에 처음으로 기계시설에 의한 도정시설(정미소) 부산정미소(釜山精米所)가 하단포에 설립되면서 낙동강 유역과 김해평야의 벼가 이곳으로 운반되어 정미소로 들어가기도 하고 일부는 일본으로 수출하기도 하였다. 미곡(米穀) 거래시장으로서 하단의 번창은 대단하여서 부산에서 대티만 넘으면 모두 하단이라고 여겨질 정도였다. 또한 다른 상품이나 농산물의 교역지로서도 발달하고 구포와 함께 큰 장이 섰던 곳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하단도선장에는 포탄껍데기를 매달아 놓은 포탄종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배의 출발을 알릴 때 이 종을 나무막대기로 때렸다고 한다. '땡, 땡, 땡' 하는 경쾌한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하단포의 하단도선장의 위치는 세월이 변하면서 몇 차례 이동이 있었다. 처음의 하단도선장은 지금의 가락타운 3단지 놀이터 마당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나룻배의 코스는 을숙도와 일웅도 사이의 사잇강을 지나 명지나루(처음엔 영강포구였다가 후에 신포마을 앞으로 옮긴다)까지였다. 그러다가 이 뱃길이 메워지자 하단도선장이 이동하게 됐는데, 당시의 동산유지와 하단2동 주민자치센터 앞이었다. 동산유지 터는 현재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다.

당시의 뱃길은 엄궁앞 새 갈밭과 일웅도 사이에 난 물길을 따라 명지까지였다. 그 후 뱃길이 다시 조정됐는데, 지금의 가락타운 1단지에서 을숙도까지 운행했다. 하지만 지금은 하단포와 하단도선장은 역사의 뒤

안길로 사라졌다. 그 당시 북적거렸던 그 많은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진 지 오래다. 꼬시래기회와 재첩국과 대합조개를 구워 팔았던 주막집도 흔적이 없다. 다만 하단1동 가락타운과 하단2동 주민자치센터 근처를 지나는 나이 지긋한 노인들만 그때의 이야기를 할 뿐이다.

하단장

하단포의 이야기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단장에 대한 이야기다. 하단장은 정기시장으로 5일마다 장시가 서는 5일장이었다. 하단장의 중심은 하단포였는데, 당시 부산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정기시장 중 하나였다.

하단장은 하단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시장이 아니었다. 인근의 김해 대동, 대저, 녹산, 명지에서 들어오는 각종 농산물과 생필품, 그리고 그것을 사고팔려는 사람들로 항상 붐볐다. 꼭 물건을 사고팔기 위해서 시장을 가는 것은 아니다. 신기한 물건을 구경하려고 방문하는 사람도 있었고,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나기 위해 시장을 찾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로 항상 흥청거렸고 그 흥청거림이 좋아 시장이 서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다.

장터에는 장터 나름의 문화가 있다. 장터 사람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풍물놀이와 씨름경기, 각종 공연 등도 자주 열렸다. 이러한 흥겨움은 서울에서 내려온 서커스단도 한몫했다. 오색창연한 커다란 천막을 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서커스단 선전꾼의 확성기소리에 사람들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위험한 외줄타기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엉덩이가 빨간 원숭이의 재롱

에는 모두들 박장대소를 했다. '서울에서 내려온 유명한 여가수'라고 소개된 '이름 모를 여가수'의 구성진 노래소리에 노인들은 일어서서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어댔다. 커다란 천막 끝에는 아이들이 드나들 만큼의 작은 '개구멍'이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에 따라, 아이들은 무섭게 생긴 문지기의 눈을 피해 그 개구멍을 찾는데 혈안이었다.

이 모든 정겨움이 인근에 사는 성인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이 하단장을 좋아했던 이유였다. 며칠간 사용할 찬거리를 지게에 올리고, 부인과 남편에게 줄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아이들의 주전부리도 챙겼던 그 시골의 장터풍경이 바로 하단 5일장이었다.

하단장 같은 5일장 정기시장 체계가 확립된 것은 조선후기부터였다. 하단장이 기록에 처음 나오는 것은 1830년대에 편찬된 《임원경제지*》이다. 이로 보아 일찍부터 하단포를 중심으로 장시가 발달하였고 조선후기에 5일장이 되면서 하단장이 더욱 발전한 것으로 짐작된다. 개항 이전부터 물자수송의 중요한 장소였던 하단포구는 개항 이후에는 개항장인 부산과 내륙을 연결하는 중계지점으로서의 기능도 겸하였다. 1889년의 《동래부보(東萊府報)*》에 의하면 당시 실제 영업세 납부대상이 되고 있는 부산의 객주는 44명으로 나타나 있다.

1890년에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연안의 각 포구와 낙동강 각 포구의 객주수는 160명 정도였다. 이들 객주는 부산, 초량, 서하(署下), 영도, 부평, 하단, 엄궁 등 주요 거래지에 분포해 있었다. 하단에도 객주들이 많이 있었다. 하단포의 객주들은 물품 거래량의 증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 조선 후기에 농업정책과 자급자족의 경제론을 편 실학적 농촌경제 정책서
* 동래부보(東萊府報) – 조선명종(서기 1545년)때 동래현이 동래부로 바뀐 이래 1909년까지 동래부에서 발행한 행정관계 공문기록

사재를 털어서 1887년경에 축부굴항(築埠掘港 : 부두를 축조하고 항구를 파내는 공사)을 하였다. 1893년에는 축부굴항하는 비용을 거둘 때 하단포에 들어오는 곡물 구문(口文:흥정을 붙여 주고 받는 돈) 전액을 상납하기도 하였다. 1893년에는 하단포에 객주조합인 상회사가 설치되었다.

이처럼 하단장이 섰던 하단포의 객주조합이 그 규모가 커지자 타 지역의 객주들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대구, 청도, 밀양 세 읍의 객주들이 하단포와 엄궁의 객주조합에 가입하였다. 같은 해 5월에는 다시 밀양, 진주, 고성 세 읍의 객주가 하단포 객주조합에 적을 두게 되었다. 상인들은 인근 명지에서 생산되던 소금을 싣고 삼랑진, 왜관, 상주로 드나들며 쌀과 교환하였다. 하단포에는 쌀을 사들여 도정하는 객주업이 발달하였고 소금이 곳곳에 쌓여 있었다. 1892년 7월 부산정미소가 생기면서 하단포는 더욱 발전하였고, 따라서 상품이나 농산물의 교역지로 흥청댔고 구포와 함께 큰 장이 서면서 하단장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이러한 하단장의 명성은 '샛바람 반지 하단장, 엉덩이가 시러버(워)서 못보고, 골목 골목 부산장, 질(길) 못찾아 못보고, 나리(루)건너 맹호(명호, 명지)장, 선개(선가, 배삯) 없어 못보고 ...중략... 꾸벅 꾸벅 구포장, 허리가 아파 못 보고(후략)' 라고 부르는 구포장타령에서 느껴볼 수 있다.

하단장은 부산장, 구포장, 동래장 등과 함께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 명맥을 유지해 오던 하단장은 낙동강 수운의 쇠퇴, 하단포의 매립, 도시의 발달로 인한 재래시장의 약화와 하단 일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조성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규모가 축소돼 버렸고 현재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부산지역에 남아 있는 대표적인 5일장은 구포장과, 동래 오시게장이 전신인 노포동 오시게장 정도로 부산의 다른 5일장보다 규모가 크

1978년, 채취한 재첩을 팔기위해 배에서 찌꺼기를 고르며 씻고 있는 모습

다. 부산에는 녹산장(강서구 녹산동), 사덕장(강서구 대저1동), 월내장(기장군 월내동), 다대장(사하구 다대2동), 덕두장(강서구 대저1동), 좌천장(기장군 좌천리), 송정장(기장군 송정장) 등의 5일장도 있으나 모두 규모가 작다. 최근에는 큰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서는 7일장도 있는데, 예전의 5일장과 비교할 바는 아니다.

5일장은 시장기능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대동(大同)의 장이기도 했다. 5일장이 사라져 가고 있는 지금, 하단동 사람들은 어디에서 대동의 장을 만들고 있을지 궁금하다. 도시화로 나날이 인심이 척박해지고 있는 요즘, 대동의 장을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본다.

하단재첩

새벽녘에 '재첩국 사~이~소, 재첩국~"이라는 아낙네들의 소리에 선잠을 깬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은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재첩국 아지메들이 부산의 골목골목을 휘젖고 다닌 적이 있었다.

1977년, 재첩잡이 출항에 분주한 어민들

그 싱싱한 재첩국에 정구지(부추의 경상도 사투리)를 쑹쑹 다져넣고 고춧가루를 뿌려 밥을 말면 한끼 식사로 최고의 영양식이었다.

이 재첩국은 향이 좋고 맛이 좋아 가족들 모두가 즐겨 먹었지만, 술꾼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다. 전날 과음한 남편을 위해 부인이 끓여주는 재첩국맛은 아내가 베푸는 남편 사랑의 대명사였다.

술꾼들이 재첩국을 즐겨 먹었던 이유는 재첩국이 숙취해소에 좋고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었다. 재첩은 간 해독작용을 촉진하는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해장국으로 가장 많이 요리된 식품중 하나다. 또한 부추를 곁들이므로 부족한 비타민 A를 보충할 수 있어 더욱 인기였다.

'동의보감' 에도 재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간 기능 개선과 황달 치유에 좋으며 위장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적혀 있다. 재첩은 모래가 많은 진흙 바닥에 서식하는 백합목 재첩과의 민물조개를 일컫는다. 따라서 낙동강 하구의 하단은 재첩생산에 더 없이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다. 물이 맑았고 모래가 많아 재첩이 좋아하는 각종 유기물이나 플랑크톤, 조류 등이 풍부했다. 이 재첩은 낙동강 하구가 오염되기 이전인 1970년 이전까지만 해도 하단지역의 명물이었다. 강물에 배를 띄워 긴 대에 철사로 된 소꾸리체를 장치하여 그 체로 강바닥 모래를 거두어 올리면 모래는 빠져나가고 재첩만 거두어 올릴 수 있었다. 이것을 고아서 만든 국물이 재첩국이었다. 이 재첩국을 아낙네들이 양철동이에 담아서 새벽에 머리에 이고 대티고개를 넘어 부산거리를 누비며 팔았다.

대티고개를 넘어오는 재첩국 아지메들의 긴 행렬은 보기 드문 장관이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이곳 대티고개에는 산짐승과 산적들이 많아서 고개를 넘으려면 괴정에서부터 함께 모여 길게 줄을 지어 넘어 다녔다.

재첩장사가 잘 되자 하단 사람들의 본업이 재첩채취가 되다시피 한 적도 있었다. 남정네는 재첩을 채취하고 아낙네들은 그것을 받아서 밤새 국을 끓여 새벽에 고개를 넘어 시내로 나가 팔았다.

어찌 보면 고단한 일상이지만, 돈 버는 재미가 있어 짭짤한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60년대부터 산업화로 장림, 사상 공업지대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로 낙동강이 오염되자 재첩도 해마다 줄어들어 70년대 후반부터는 멸종상태가 되어 채취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는 대부분이 섬진강 유역에서 채취되며 중국에서 물 건너오는 씨알이 굵은 재첩이 많다. 중국산은 국산에 비하여 크기는 크나 껍데기가 딱딱하고 광택이 없으며 국물을 우릴 경우 맛이 떨어지는 편으로 알려져 있다.

재첩에 대한 방언도 많은데. 가막조개, 갱조개, 다슬기, 애기재첩, 재치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색, 크기 등은 지역에 따라 변이가 심한데 모래바닥에서 서식하는 것은 황갈색을, 진흙 펄에서 사는 것은 흑색을 띄는 것이 많다. 하단에서 채취되었던 재첩은 대개 황갈색을 띈 것들이었다. 섬진강 쪽은 흑색이다. 한해 중 5~6월이 제철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향이 좋고 살이 잘 올라 맛이 뛰어나다. 이때가 지나면 산란기이므로 잘 먹지 않는다. 대부분 국물을 우려 국으로 많이 섭취하지만, 숙회(익힌 회), 덮밥, 전으로도 즐겨 먹는다. 하지만 생것으로 먹을 경우 기생충에 감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새벽에 '재칩국 사~이~소, 재칩국~"하며 잠을 깨우는 소릴 이제 더 이상 들을 수는 없지만, 요즘도 재첩국 한 그릇을 먹을라치면 항상 그때 하단 아지메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03
새들이 쉬어가는 곳 '을숙도'

을숙도(乙淑島)는 새들이 많고 물이 맑아 을숙도라고 지어진 모양이다. 한자로 새 을(乙)자와 물 맑을 숙(淑)을 쓴다.

근처의 몇몇 섬과 함께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로 1966년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179호로 등재돼 있다.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이다.

을숙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당연히 철새들이며, 둘째는 갈대숲이다. 무성한 갈대숲 사이로 창공을 올랐다 내렸다 하는 철새들을 보노라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이 을숙도를 찾아 새를 관찰하는 탐조객(探鳥客)들의 발길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학습장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이 을숙도는 1978년 2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김해군에서 부산시로 편입되었고, 1983년 12월 15일 강서구 대저 2동에서 사하구 하단동으로 편입되었다.

이곳 대부분이 저습지대로 홍수 때는 수몰될 위험이 컸기 때문에 섬

크기에 비하여 살고 있는 주민이 많지 않았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윤중제(輪中堤 : 강이나 섬의 둘레를 둘러서 쌓은 제방. '둘레 둑', '섬둑'으로 불려짐)가 만들어지고, 경지정리 사업도 진행되었다. 그 후 주민들의 숫자가 불어났고 이곳에 원예작물을 심어 부산에 공급했다.

하지만 1987년 4월에 완공된 낙동강 하구둑은 이러한 을숙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사람의 발길이 뜸했던 이곳이 공원화되면서 많은 갈대밭이 훼손되었고,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철새들도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이곳의 철새들은 지금까지 오리과, 도요새과, 백로과, 황새과 등 43과 130여종의 조류가 기록되어 학술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개체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한편 이에 부산시는 을숙도 개발계획을 백지화하고 이 일대를 핵심보전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을숙도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을숙도는 시민들과 보다 가까이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을숙도문화회관을 비롯해,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을숙도자동차극장 등을 갖추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꾸몄다.

이중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부산 최초의 '생태전문전시관'으로 하구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보전하며 나아가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낙동강 하구에 서식하는 각종 어류와 조류, 식물들을 전시하고, 실시간으로 철새와 텃새를 관찰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또 일반인을 상대로 각종 자연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해 인기를 끌고 있다.

승학산에서 바라본 을숙도

과거에 을숙도는 인기 데이트코스로 각광받은 적이 있었다. 하단도선장에서 연인들이 배를 타고 을숙도로 넘어가 한동안 시간을 보낸 뒤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아름답게 우거진 갈대숲이 연인들의 사랑을 키우기에 좋았던 모양이다. 지금도 을숙도문화회관 주변의 공원을 찾는 연인들이 많다.

아름다운 갈대숲과 짝을 지어 오르는 철새들의 운무와 해질녘 황금빛 낙조의 환상적인 모습은 이곳을 찾는 연인들 뿐만 아니라, 가족 나들이 객들에게도 인기 최고의 장소로 손꼽히고 있다.

04
하단의 감탄사 '낙조(落照)'

하단의 아름다움 중 '낙조(落照)'를 빼놓을 수 없다. 사실 사하의 모든 지역이 이 낙조의 아름다움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단의 낙조는 그 아름다움이 매우 빼어나 저녁시간만 되면 넋을 놓고 바라보는 사람이 많다. 하단 동아대학교 캠퍼스에서 바라보는 낙조도 절경이고, 에덴공원에서 살피는 것도 운치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름다운 곳은 을숙도다. 바람결에 하늘거리는 갈대숲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멀리 떼지어 날아가는 철새도 황금색으로 색칠해버리는 이 감동의 낙조는 여운을 오래오래 남긴다.

세상의 어떤 화공(畵工 : 화가)이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이런 아름다움을 자아낼까. 조물주가 만들어내는 자연의 그림만큼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없다고들 한다.

소설가 박종화씨가 쓴 '임진왜란'의 한 구절을 보면,

1982년, 저녁 노을을 아쉬워하며 배들이 하단선착장으로 귀향하는 모습

"서편 하늘로 고개를 돌이키니 찬란한 금빛 낙조가 서산 허리에 반나마 걸렸는데 뭉게뭉게 떠오르는 여름 흰 구름이 벌겋게 취해서 물들기 시작한다."

라고 적고 있다.

흰 구름이 벌겋게 취해서 물들기 시작한다는 구절을 되뇌며 이곳 하단의 낙조를 볼라치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도 발갛게 취해오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자연도 취하고 사람도 취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도 취하는 하단의 낙조는 지금도 매일 저녁 하단을 취하게 한다.

05
신선이 내려왔다는 강선대(降仙臺), 그리고 에덴공원

얼마나 그 땅의 기운이 좋았으면 신선이 내려왔다고 하였을까. 전하는 말로는 고려말 무학대사(無學大師)가 전국을 두루 다니며 산세를 살피다가 이곳에 이르러 산을 보니 마치 학이 웅비하는 것 같다 하여 승학산(乘鶴山)이라 하고, 이 산에서 신선이 학을 타고 이곳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강선대라 불렀다고 한다.

현재 승학산은 동아대학교 하단캠퍼스가 자리 잡고 있고, 강선대는 오늘날 에덴공원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강선대 즉 에덴공원은 하단의 하구언 북쪽산(하단동 산786번지) 일원이다.

이 강선대가 에덴공원으로 이름 한 것은 이 곳의 소유주가 독실한 기독교 교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에덴동산을 기리어 이곳을 에덴공원이라고 이름 짓고 공원을 개발하여 도시인의 휴식공간과 함께 관광명소로 만들어나갔다.

에덴공원의 모습

에덴공원은 1970년대만 해도 강변에 야외음악당과 공연장, 그리고 토속적인 술집들로 젊은이의 광장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지금은 주위에 주택가가 들어서서 지난날 보다 지역이 크게 줄었다. 아침나절은 근처 마을 사람들의 소요와 운동의 장소로 이용되고 저녁나절은 연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었다. 에덴공원이 도시생활에 지친 사람들의 낙원으로 계속되어질 것을 기대해 본다.

06
신선암(神仙岩)의 전설

세상에 신선(神仙)이 있을까 싶지만 한국의 지명에는 신선이 들어가는 지명이 꽤 많다. 에덴공원의 강선대도 신선과 관련이 있고 이곳 신선암도 신선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하단 동편의 산 모양이 범과 비슷하다 하여 '호복구(虎伏口)'라 부른다. 과거에 이 산기슭의 낙동강가에 신선암이라 불리는 큰 암석이 우뚝 솟아 있었다.

이 바위에 신선이 와서 놀았다는 전설이 있어 신선암이라 불려졌다. 신선암의 바위 밑에는 작은 굴이 형성되어 있어서 선사시대의 주거지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확인할 길은 없다.

아무튼 이 신선암에 얽힌 재미있는 전설이 있다. 1934년 낙동강 호안공사를 맡은 일본인이 있었는데, 이 바위를 깨어서 돌을 이용하려고 한 석공을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 이 석공이 일본인의 지시에 따라 돌을 깨뜨리려는 순간 그 석

무학대사

무학대사(無學大師, 1327~1405)는 조선초기의 고승이었다. 1344년(충혜왕 5) 출가하여 소지(小止)의 제자가 되었으며, 진주(鎭州) 길상사(吉祥寺), 묘향산 금강굴(金剛窟) 등에 머무르면서 불도를 닦았다.

원나라 연도(燕都)로 가서 인도승 지공(志空)을 만나 불도를 논한 바 있다. 또 법천사(法泉寺)에서 나옹(懶翁)을 만났다고 한다. 나옹과는 인연이 깊었으며, 나옹이 입적한 뒤 전국의 명산을 유력(遊歷)하였다 한다. 공양왕이 왕사로 삼고자 하였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다고 전한다.

1392년(태조 1) 겨울, 태조는 그를 왕사로 책봉하고 '대조계종사 선교도총섭 전불심인 변지무애 부종수교 홍리보제 도대선사 묘엄존자(大曹溪宗師 禪敎都摠攝 傳佛心印 辯智無碍 扶宗樹敎 弘利普濟 都大禪師 妙嚴尊者)' 라는 호를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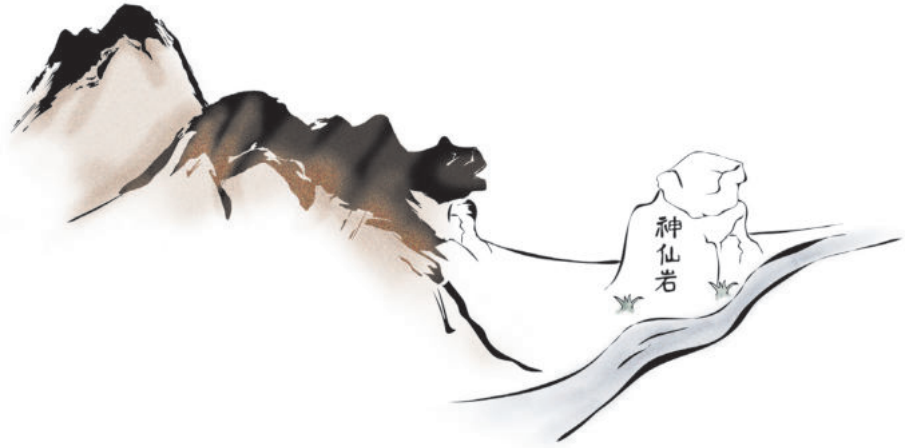
1393년 왕도(王都)를 옮기려는 태조를 따라 계룡산과 한양 등을 돌아다니며 지상(地相)을 보고, 마침내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는데 찬성하였다. 무학대사의 전설에는 이 한양천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1397년 태조의 명으로 회암사 북쪽에 수탑(壽塔)을 세웠으며, 1405년 금강암으로 옮겨 그곳에서 나이 78세, 법랍 62세로 입적하였다.

저서로는 〈인공음(印空音)〉1권이 있었다고 하나 전하지 않으며, 〈무학대사어록(無學大師語錄)〉1권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현존하는 분명한 저서로는 〈불조종파지도(佛祖宗派之圖)〉가 있다.

공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고 한다. 그 뒤 이 원인불명의 죽음이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이 신선암에 감히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세월이 한 참 흘러, 그 신선암도 낙동강 강변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깨뜨려져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다. 그 공사를 맡았던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전해지는 말은 없으나, 세상이 하도 시끄러워 신선이 이곳을 떠나면서 바위의 영험함도 사라지지 않았나 하는 말도 들린다. 이 전설의 진위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마을 사람들의 입과 입으로 아직도 전설은 이어지고 있다.



07
분뇨처리장(糞尿處理場)에 얽힌 사연

주민들이 싫어하는 기피시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 분뇨처리장은 단순히 심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주변에 심각한 '냄새'를 풍기기에 최고의 기피시설 중 하나일 수밖에 없었다.

일제시대때인 1930년에 부산부(釜山府)가 9만석을 수용하는 분뇨탱크를 만들어 대티고개의 투기장에서 버리게 했는데, 그렇게 버린 분뇨는 지하구(地下溝)를 통하여 하단에 저장되었다.

이곳에 저장된 분뇨는 낙동강으로 뻗어나간 분뇨관을 통해 배출되어 분뇨선에 실려 김해평야에 나가기도 하고 낙동강에 버려지기도 하였다. 즉 분뇨탱크가 있었던 대티고개와 그것이 저장된 하단은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자 하단은 거주 기피 지역이 되었다. 따라서 이곳으로 이주해 오는 사람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나마 거주하고 있던 사람마저도 타지역으로 이사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하단

은 그 시절 메마른 빈촌으로만 남아 있었다.

그랬던 분뇨처리장이 마침내 사라졌는데, 그것은 1982년 낙동강 하구언이 하단에 구축되기 직전이었다. 50여년간 이어진 이 분뇨처리장이 완전히 철거되면서 마을 사람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었고, 점차 하단에 이주해오는 사람들도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제도 활성화되었다.

부산의 타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의 분뇨로 인해 50년간 힘들게 살아온 하단주민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08
하단의 명품 갈대수공업

갈대는 소용처가 많았다. 종이가 발달되기 전에는 갈대에 글을 써서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으며, 갈대를 이리저리 엮어 각종 생활도구로도 즐겨 사용했다.

하단은 을숙도가 근처에 있어 무엇보다 갈대가 지천으로 깔려 있었다. 따라서 1950~1960년대만 해도 하단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강가 지역은 삼각주에서 자생하는 갈대로 갈대 수공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갈대로서 그늘을 짓는 발을 엮고, 바람이 잘 통하는 깔자리를 엮고, 고기를 잡은 통발과 갈삿갓, 도시락 같은 것을 만들어 집에서도 쓰고 갈대발과 갈삿갓과 삿자리는 시장상품이 되기도 했다.

그 갈대는 지붕을 올리는 재료에도 쓰이고 부엌의 땔감으로도 쓰였다. 목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이전은 마른 갈대꽃이 방한용 솜 대신으로도 쓰이고 갈대잎은 습기를 제거하는 유용한 자리방석 역할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갈대는 하단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강

1970년, 낙동강하구 갈대밭 평원에서 마을잔치가 열리고 있는 모습

변 사람에게 소중한 생활재료로도 사용되었으며 각종 갈대제품의 생산 또한 겨울의 부업으로 각광받았다. 이 제품들은 겨울철에 만들어져 봄, 여름에는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하단사람들의 손재주가 남달리 뛰어났고 갈대의 재질이 매우 좋아 최고의 인기상품이었다고 한다.

그 당시 하단에서는 마당 한 가득 갈대를 쌓아두고 아낙네들이 함께 모여 갈대를 이리저리 엮어나가는 장면이 쉽게 목격되었다. 그 갈대제품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학비가 되고 고단한 살림살이의 주름을 펴주었을 것이다.

현재는 갈대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그때 생산된 갈대제품 한두 가지는 지금도 어느 집 한 켠에 손때 묻은 채로 살아 숨 쉬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09
경부선 하단철도에 얽힌 사연

현재 경부선 철도는 구포역을 거쳐서 사상 주례로 이어져 부산역인 종착역을 향한다. 그런데 처음 경부선 철도가 계획될 당시는 이곳 하단을 거쳐서 가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하단 사람들이 강력한 항의를 하는 바람에 지금의 경로가 확정되었다고 한다.

일본은 대륙침략정책의 일환으로 철도교통을 도입하기로 하고 1898년 9월에 자신의 음흉한 속마음을 감춘 채 대한제국과 경부철도합동조관을 맺고 철도회사를 설립했다.

이 철도회사의 철도기술자들은 1896년부터 대한제국 전역의 철도 선로 입지를 조사했는데, '조선철도사'에 따르면 이들이 확정한 경부선 철도 경로는 부산지역을 기준으로 삼랑진에서 낙동강 서쪽강가를 건너 하단동과 괴정동을 거쳐, 지금의 대티터널 쯤에서 굴을 뚫고 대신동을 거쳐 동광동에 그 종착역을 세운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하단포 사람들은 객주들과 함께 이곳에 철도가 부설되는 것을 반대

하였다. '쇠말(鐵馬)이 동네로 들어오면 동네가 망한다'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이 반대는 상당히 맹렬해서 경부선 철로의 부산 진입로가 북부산(현재의 구포)으로 옮겨지고 말았다.

철도 이야기 중에 '하단철도회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 1893년 4월부터 1894년 2월까지 다대첨사로 재직했던 박기종(朴琪淙, 1839~1907)이 1895년 다대진이 파하자 사업가로 변신하여 1898년 5월 부산과 하단포를 연결하는 경편(輕便)철도를 부설하는 '부하(釜下)철도회사' 설립인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공사는 노선의 부적합과 경부선 부설계획의 결정적 이유와 더불어 일본의 자금줄 압박이 큰 작용을 하여 중단되고 말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1890년에 일본에서 구입한 기선으로 낙동강 연안의 포구(구포, 삼랑진 등)를 왕래하면서 상업을 한 사업가였다고 한다.

만약 경부선 철로가 현재의 구포가 아니라 원래 계획대로 하단으로 확정되었고 또 '부하철도회사'가 설립되었다면 하단의 모습은 또 다른 양상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역사는 이프(IF : 가정)가 있을 수 없지만, '쇠말'이 들어옴으로 인해 동네가 망하는 일은 최소한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10
낭만의 시온섬과 샛강, 복판등

하단포구 앞에는 젊은이들이 즐겨 찾았던 낭만의 섬이 있었다. 시온섬이 그것인데, 이 섬은 하단포구 앞에서 신평의 낙동강 안으로 길게 뻗은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작은 섬이었다. 하단포구와는 좁은 물목 '샛강'을 사이에 두고 있었으며 섬 전체가 갈대숲으로 덮여 아름다운 자태를 갖고 있었다.

이 정도면 낙동강 하구의 황금빛 낙조와 그 빛에 반사된 갈대숲과 더불어 낭만을 찾는 젊은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장소였다고 할 만하다.

특히 낙동강이 흘러 삼각주를 이루는 이 지역은 토사유입으로 사빈(沙濱, 모래가 깔린 바닷가)을 이루고 있어 수심이 얕아 물놀이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었다.

시온섬과 을숙도 사이에는 '복판등'이라는 곳도 있었는데, 이 등은 폭이 30m 정도이고 남북 길이가 100m에 이르는 긴 모래톱이었다.

이 복판등과 시온섬 사이에 발을 담그고 노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물

가에서 노는 발가벗은 아이들의 해맑은 목소리가 평화로운 강가의 갈대숲을 흔들어 이 시온섬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전해져 온다.

하단포에서 시온섬을 오갈 때면 구름다리를 건너야 했는데, 이 다리는 나무기둥을 잇대어 아치형으로 만든 다리였다. 이 다리는 신선바위 남쪽에 놓여 있었는데, 지나는 사람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낭만의 섬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한편 이 다리 남쪽 동매산 쪽에는 공동묘지가 조성돼 있었고(지금의 신남초등학교 주변) 공동묘지 아래쪽은 조개무지(패총)가 발견된 '모래구찌' 였다.

한편 복판등도 유명했는데, 여름 피서철이 되면 더욱 각광을 받았다. 비치파라솔 대용으로 사용되어진 군용천막 20~30 여동이 세워지고 각 마을에서 들어온 물놀이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 복판등에 가려면 하단포에서 배를 타야했는데, 흔들거리는 배를 타는 재미도 있었다.

하지만 그 옛날의 아름다움도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다. 시온섬과 복판등은 하구언을 만들면서 사라졌다. 하구언에서부터 직선으로 해안선을 만들고, 신평장림공단을 조성하면서 시온섬 사이의 샛강이 메워졌다.

그 후 남아 있던 복판등도 어느 해 큰 홍수가 진 후 강하구로 점점 밀려 내려가다가 어느덧 사라지고 말았다.

낭만의 섬 시온섬과 샛강, 그리고 복판등의 추억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어느덧 하나 둘씩 사라져 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1971년, 에덴공원, 일웅도 _ 동산유지가 보이는 하단동 옛 전경

물류의 고장

신평동

부산에서 '신평동'이라고 하면 공단만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다. 곳곳에 기계음이 들리고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을 이리저리 옮기는 차량들이 북적이는 곳, 그래서 다소 삭막하고 역사적 사연도 없는 동네로 인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단이 밀집된 신평동에도 전설이 있고, 역사가 있다. 조선시대 임경업 장군과 얽힌 사연도 흥미롭고, 각 우물터와 고개들에 얽힌 옛 사람들의 흔적도 삶의 아름다움이 베어 나온다.

신평(新坪)은 처음 어업 위주의 마을이었고 나중에는 농업으로 변모했으며, 지금은 공업지역으로 탈바꿈했다. 그래서 이름이 신평(新坪)이었을까.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신평은 그만큼 부산과 사하구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신평의 미래는 신평이라는 이름자 그대로 또 다른 모습의 '새터'를 만들어 국가와 지역사회를 발전시켜나갈 것임이 분명하다.

01
매일 새로워지는 땅 신평(新坪)

신평(新坪)은 '새로운 평지'라는 뜻이다. 새마을, 신촌(新村), 새벌, 새마, 새동네와 뜻이 통한다. 그리고 새롭다는 것은 새로움을 생산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은 과거부터 항상 생산과 연관되어 있었다. 이 곳에 처음 사람이 살면서부터는 어업에 종사하여 사람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나갔으며, 1939년 이후에는 근처의 장림동까지 제방이 축조되면서 농지가 형성돼 농작물을 생산했다. 1970년대에는 새로운 공단이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필요한 각종 공산품을 제조생산하고 있다.

풍수지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곳이 동매산, 봉화산, 아미산 등 3개의 산으로 둘러 쌓여있고, 앞으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어 주거지보다는 '생산기지'로써의 역할이 더욱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곳의 기운이 바다를 통한 '개방성과 확장성'을 머금고 있어 진취적이며 창조적이라는 것이다. 풍수적인 관점을 떠나서라도, 장림과 더불어 신평은 부산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공단들이 입주해 있어 진취적이고 창조적일 수밖에

없다. 신평이라는 지명은 오래된 지명은 아니었다. 문헌상으로는 1904년에 간행된 《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에 신평동(新坪洞)이란 지명을 찾을 수 있는데, 촌락의 호수가 29호로 작은 마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을 주민들로는 임씨, 김씨, 배씨 등이 있었는데, 이중 임씨가 15호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고 적고 있다. 당시에는 이곳은 어패류생산을 주로 하는 어촌이었다고 한다.

이곳 지명은 망후촌(望後村)이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임경업 장군의 전설과도 연결된다. 신평동에는 망후마을이 따로 있는데, 이 마을 이름도 임장군의 전설과 연관되어 있어 망후촌과 신평은 예전에는 한동안 같은 지명으로 불렀음을 짐작해 본다.

신평동 산기슭에는 선사시대의 토기편과 고려시대의 기와조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변한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마을 아래쪽 낙동강변에 '초복고'라고 부르는 곳에 나루터가 있었다. 김해(지금의 강서구) 명지로 왕래하는 도선장(渡船場)으로 부산과 김해를 오가는 장꾼들과 나들이객들이 북적였다고 한다. 지금은 다리를 통해 차량으로 빠르게 왕래하지만, 그 당시에는 뱃사공의 노젓는 소리에 맞춰 노래 한 소절을 부르면서 오고갔을 것이다.

'낙동강 강바람이 치마폭을 스치면/군인 간 오라버니 소식이 오네/큰애기 사공이면 누가 뭐라나/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에헤야 데헤야 노를 저어라 삿대를 저어라'

예전에 인기 있었던 가수 황정자씨의 '처녀뱃사공' 노랫말이다. 이 노래를 지은 장소가 남강쪽이었다는 말이 있으나 가사는 낙동강으로 돼 있으니 오히려 부산사람들이 이 노래를 더욱 즐겨 불렀다. 저녁 노을이 붉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낙동강 하구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노를 저어

신평정책이주지

가고 있자면 모든 세상 시름을 다 잊었을 것이다.

한편 신평동은 인구가 갑자기 불어난 일이 있었다. 1959년 사라호 태풍으로 인하여 부산지역에서는 28명의 사망자와 5,0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3,600채가 넘는 집이 완전히 부서졌었다. 당시 태풍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1960년에 55세대 3,000여명이 신평동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이주한 곳은 현재의 동아빌라 건너편 밑 청솔맨션 주변이었다.

이들은 한 세대마다 일곱평 남짓한 집을 짓고 살게 되면서 조용하던 토착민 마을에 변화가 왔다. 1968년 3월에는 서구 충무동의 바닷가 제방을 쌓으면서 이곳의 철거민 1,630세대가 이주하여 15평 집들을 짓고 살았다. 현재 신평동 재래시장 주변에 해당된다.

신평동은 이재민과 철거민들이 이주해 오면서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하였다. 1967년 10월 2일 신평초등학교가 세워졌고 도로가 포장되어 큰 동네로 성장하였다. 1981년 5월부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신평, 장림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신평동은 새로운 공업단지 주변의 마을로 번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02
신평 사람들이 목을 축였던 새미(샘)

신평에는 마을사람들의 목을 적셔주었던 새미가 세 곳이 있었다. 골짝새미, 동매새미, 동쪽새미가 그것이다. 새미는 '샘'의 경상도 사투리다. 재미있는 것은 이 새미는 경상도 지방 사투리로 몇가지 의미가 더 있다. 얼굴에 있는 보조개도 새미고, 수염도 새미다. 수염의 새미는 쌔미로 강하게 발음되기도 한다.

어원학적으로 새미, 샘 등이 생(生)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언어에서 새, 생, 샘, 새미, 신, 씨 등을 자주 접할 수 있어 '새미'는 사람들의 생명을 이어주는 젖줄의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

골짝새미는 신평1동의 신평 본동마을 뒷산인 동매산 골짜기에 자리잡고 있었다. 아낙들이 빨래도 하고 채소와 과일을 씻고 식수로도 이용했다고 한다. 당연히 지나는 길손은 여기에 머물러 아낙이 떠 주는 시원하고 달콤한 새미물로 목을 축였을 것이다. 현재 럭키아파트가 들어선

자리가 옛 우물이 있었던 곳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신평노인정 옆에서 아파트로 올라가기 전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했다고 전해진다.

동매새미는 신평 1동의 본동마을에 자리 잡고 있었다. 현재는 이 자리에 기아자동차서비스 그린정비공장이 들어서 있다. 동쪽새미는 본동마을 동쪽에 위치했다. 지금의 신평1동 새마을금고 제1분점이 있는 곳이 우물터였다. 현재 이 새미터는 남아 있는 곳이 없다. 역사의 뒤안길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곳에 새미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한 것은 무슨 연유일까. 그것은 이곳 새미가 몇 백년이 넘게, 아니면 그 이상으로 마을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왔다는 것이 기특하고 대견하다는 느낌 때문이 아닐까.

어머니의 젖줄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말라버리지만, 장성한 아들에게 그 젖줄은 이미 말라버린 젖줄이 아닐 것이다. 아들의 육체와 영혼에 어머니의 젖은 영원히 깃들어 있다. 마찬가지로 신평동에 있었던 세 곳의 젖줄은 이미 사라졌지만, 이곳에 살고 있는 마을사람들 모두에게 영원히 남아 있는 마음의 젖줄일 것이다.

03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자연마을

역사가 오래된 마을은 전설도 많고 곳곳에 아름다움을 숨겨놓고 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신평동에는 여러 마을들이 있었다. 아담한 동매산 아래에 있는 동매마을, 뒤를 돌아보았다고 이름 지어진 망후촌, 고운 모래가 많아서 모래구찌라 불렸던 마을, 밝은 고개 부근에 있는 배고개마을,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새마을 등 많은 마을이 있었고 현재도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 마을들은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신평 주민들의 삶을 넉넉히 안아준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그리고 미래에도 신평의 아들과 딸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넉넉한 '터'로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동매마을

동매마을의 핵심 포인트는 동매산이다. 이 산은 이곳 주민들의 휴식공

간으로 자주 애용되고 있다. 신평1 · 2동 주민뿐만 아니라, 하단1동, 당리동 중앙에 위치해 이들 주민 모두가 찾는 곳이다. 해발 210m의 야트막한 산 높이는 왕복 1시간 정도로 산책하기에 딱 좋다.

배고개 사거리 동쪽에서 이 산 능선을 타고 올라 정상을 밟고, 다시 도시철도 1호선 신평동역 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마을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코스. 특히 배고개 사거리에서 동매산을 약 20분정도 오르다 보면 신평동 전역이 모두 한 눈에 들어와 가슴이 확 트이는 기분이 든다. 또 다대포로 넘어가는 길인 다대로도 환하게 내려다 보인다. 동매산 정상은 더욱 좋다. 시원한 바람 너머 감천항이 눈에 들어오고, 낙동강 하구의 명지와 을숙도대교도 선명하게 펼쳐진다.

내친김에 하단1동으로 발길을 돌리면, 소나무가 우거진 곳이 나와 산의 정겨움에 빠질 수 있다. 마을 뒤에 이런 산이 있다는 것은 자연이 준 커다란 혜택이다. 동매라는 지명은 동쪽의 산(뫼)이라는 뜻인데, 동산이라 하지 않고 동매라고 한 것이 야트막한 동산이어서 그렇게 부른 듯하다. 하지만 동산보다는 동매라는 지명이 더욱 정감을 갖게 한다.

한편 이 마을에서 오래 살았던 노인들에 의하면, 마을 뒷산인 동매산을 비봉산(飛峯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한다. 동매마을은 동매산 아래에 있어서 지어진 지명임이 분명하다. 아침이 되면, 이 마을 사람들은 동매산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잠을 깨고 산책도 하며 사하구 일대를 바라보는 재미가 솔솔할 것이다.

이런 아담한 산 아래에 사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 풍진에 찌든 마음을 갖고 있어도 저절로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

망후마을

신평동에 있었던 옛날 마을 이름이다. 망후촌(望後村) 또는 다른 한자 뜻으로 망후촌(望候村)이라고도 불렀다. 망후촌(望後村)의 망후는 뒤를 바라다, 기다리다, 기대하다, 희망하다, 그리워하다는 뜻과 뒤를 바라보다는 뜻을 가진다.

이 중 뒤를 바라보다는 뜻이 이곳 지명의 유래라고 하니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자못 궁금해진다.

그것은 이곳 지명이 임경업 장군의 조카가 이곳으로 피신해 와서 살았다는 구전(口傳)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임경업 장군이 김자점 등에 의해 역적으로 몰려 9촌까지 몰살당하였을 때 조카 임중생이 의주에서 신평으로 피난 와서 살았는데, 누가 자기를 잡으러 올까 뒤를 자꾸 돌아보았다고 한다. 그래서 망후촌이란 이름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망후촌의 망후는 또 다른 의미로 '뒤를 기다리다'는 듯도 있다. 가문이 멸망한 상황에서 후세를 기대한다는 의미는 혹 아닐까. 또는 후일을 희망한다는 강한 바람이 담긴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의미였든지 간에 임경업 장군과 그의 조카 임중생의 짙은 한이 담긴 마을 이름임에는 분명하다. 또한 미래를 희망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도 좋을 마을이름이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 모두가 망후라는 희망의 이름처럼 지금의 삶보다 더욱 희망찬 미래를 가꾸어나가길 기원해본다.

모래구찌 마을

이 마을도 신평동에 있었던 옛 마을이다. 신평과 하단의 중간 지점인 강가에 하단동 패총이 있는데, 이 패총이 있는 곳을 '모래구찌'라고 부

른 것으로 보아 마을의 위치가 여기임을 알 수 있다.

이곳은 U자형의 아늑한 산곡으로 산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삼면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고 앞면만 강을 향해 열려있다. 독뫼마을(동매마을)로 건너가는 입구에 위치하며, 비가 많이 내려도 쉽게 마르는 배수가 잘 되는 땅이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넓은 마당을 닦아 놓고 타작을 하거나 아이들의 놀이터로 사용하였다. 명절이 되면 윷판이 벌어지기도 하고 아이들의 자치기, 재기차기, 팽이치기, 투호 등 다양한 놀이판이 이어졌다.

마당놀이란 말이 마당에서 논다는 뜻임을 볼 때 좋은 마당이 있는 동네는 놀이문화도 발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건전한 놀이 문화는 마을의 건강함과 단합이 뛰어났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모두 모여 타작도 하고, 놀이판도 벌어지는 시골의 마당을 상상하면 저절로 입가에 웃음이 흐른다. 조선의 화가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 한편을 상상해도 좋을 듯하다. 김홍도의 그림중 '벼타작' 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양반님네는 누워서 담배를 피워 물고 있고, 노비들은 열심히 벼타작을 하는 그림이다. 여기서 양반을 지워놓고 보면 딱 모래구찌 마을의 마당 풍경일 것 같다.

부산광역시사편찬위에서 만든 부산의 자연마을 제5권에 보면, 모래구찌 마을의 유래에 대해 '이 마을은 모래가 많은 낙동강 하구로서 입(口)을 의미하는 일본말이 첨가되어 만들어진 이름이 아닌가 추정할 뿐 정확히 언제부터 사용된 지명인지는 알 수가 없다' 고 적고 있다.

아무튼 모래가 많은 마을 입구란 뜻이 이렇게 마을 이름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곳 마을 앞에는 유난히 하얀 모래가 많았다. 낙동강 하류에서 흘러내린 모래가 이곳 마을 앞 낙동강 하구에 계속해서 쌓여 고운 모래톱이 많았던 모양이다.

한편, 모래구찌 마을에는 하단동 패총이 있었다. 신평과 하단의 중간 지점인 강가였는데, 패총 주위에는 조개껍질이 쌓여 패각층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석회공장에서 이 일대를 파헤쳐 수십 트럭을 운반해 가 버렸다고 한다. 게다가 지금은 신평공단 조성 때 토목공사로 인하여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역사는 잊혀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것에 관심을 갖는 순간 다시 살아난다. 모래구찌 마을의 하얀 모래톱도, 조개껍질로 쌓여진 패총도, 아이들의 힘찬 팽이질도 잊혀진지 오래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상상할 때 다시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이다.

단원 김홍도의 그림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흘러가버린 과거의 아름다움이 까마득한 오늘에 이르렀어도 다시 새 옷을 입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과거를 우리가 기억할 때 과거와 현재는 항상 같은 곳에 머문다.

배고개 마을

신평1동에서 괴정4동으로 넘어가는 배고개 부근에 있는 마을이다. 배골, 배곡, 배옥곡, 이곡이라고도 불렀다. 배고개는 본 책자의 괴정동 관련 글에도 언급돼 있다.

이 배고개는 배오개, 이현(梨峴), 이티, 적현, 또는 신평쪽에서는 신평고개라고도 부른다. 배나무가 많아서 배고개로 불렀다고 하지만 먹는 배(梨)와는 상관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 고개가 동쪽에 있는 고개이므로, 원래는 밝고개였는데, 밝(박)이 배로 전음(轉音)하여 배고개가 되었다고 한다. 원래 동쪽은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므로 밝다는 의미로 지명

에 많이 사용된다. 따라서 신평동과 괴정동을 태양처럼 밝게 비춰주는 희망의 고개이지 않나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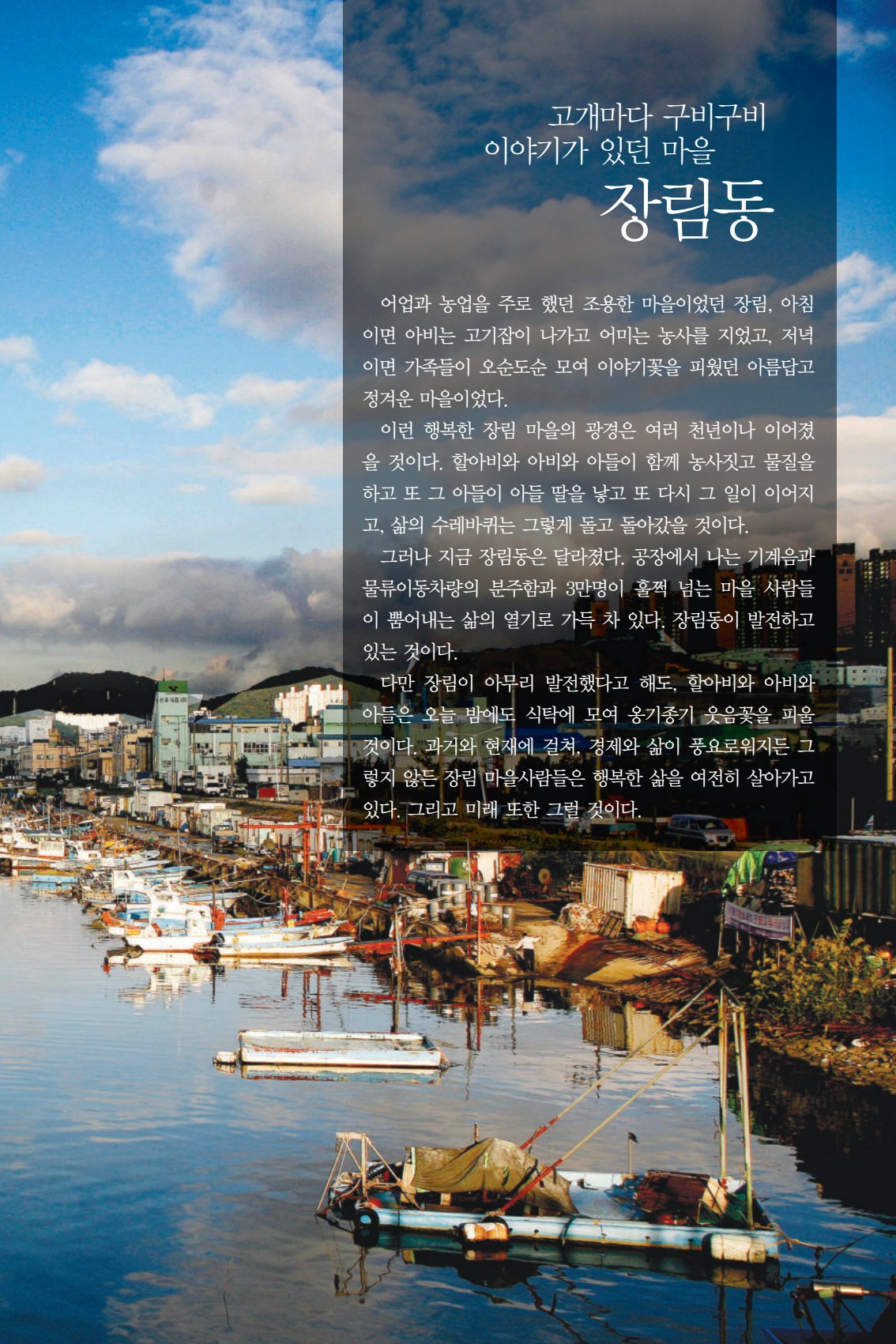
이 고개는 하단장과 부산장, 그리고 구평동의 독지장을 왕래하는 장꾼들이 넘나들던 중요한 고개였다. 배고개, 즉 밝은 고개를 삼삼오오 줄을 지어 가는 장꾼들은 미래의 밝은 희망을 갖고 이 고개를 넘었을 것이다. 배고개 골짜기를 삼밭골이라고 불렀다 한다. 삼을 많이 길렀으므로 삼밭골이라 하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이 고개는 1980년대 괴정~장림간의 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잘 정비된 현대식 포장도로로 바뀌었다.

예나 지금이나 이곳은 교통과 왕래의 중심지였기에 차량통행량이 많다. 배고개를 지나는 사람들 중 이 고개가 밝고개인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한번씩 밝고개를 지날때 마다 마음속에 밝은 희망을 담고 갈 것임을 기대해본다.

새마을

1970년대부터 신평에 공업단지가 급속히 들어서면서 이 공단이 들어선 신평동 일대를 새마을이라 불렀다. 새로 형성된 마을이라서 주민들이 그리 부른 모양이다. 신평이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신평동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엿보인다. 신평(新坪)은 새로운 땅이라는 의미가 있다. 새마을도 새로운 마을, 땅이란 의미이다. 신평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며, 또 계속해서 새로움을 생산해내는 진정한 '새마을'로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

1970년, 당리동 동매교 주변과 신평 배고개간의 옛모습



고개마다 구비구비 이야기가 있던 마을

장림동

어업과 농업을 주로 했던 조용한 마을이었던 장림, 아침이면 아비는 고기잡이 나가고 어미는 농사를 지었고, 저녁이면 가족들이 오순도순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던 아름답고 정겨운 마을이었다.

이런 행복한 장림 마을의 광경은 여러 천년이나 이어졌을 것이다. 할아비와 아비와 아들이 함께 농사짓고 물질을 하고 또 그 아들이 아들 딸을 낳고 또 다시 그 일이 이어지고, 삶의 수레바퀴는 그렇게 돌고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장림동은 달라졌다. 공장에서 나는 기계음과 물류이동차량의 분주함과 3만명이 훌쩍 넘는 마을 사람들이 뿜어내는 삶의 열기로 가득 차 있다. 장림동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장림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할아비와 아비와 아들은 오늘 밤에도 식탁에 모여 옹기종기 웃음꽃을 피울 것이다. 과거와 현재에 걸쳐, 경제와 삶이 풍요로워지든 그렇지 않든 장림 마을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미래 또한 그럴 것이다.

01
장림(長林)의 역사는 길다

장림동(長林洞)은 신평동과 마주보고 있다. 공단도 신평장림공단이 함께 마주보며 형성돼 있어 같은 경제권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나 행정구역은 다르다.

원래 장림동은 안장림(內長林), 바깥장림(外長林), 보덕포(補德浦:부득포 또는 비득포)의 3개 지역이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마을이다. 장림동의 한자 뜻이 많은 나무들이 모여 긴 숲을 만든다는 의미처럼 많은 마을을 합해서 더욱 발전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신평장림공단이 함께 공존하는 것도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아무튼 당초 바깥장림은 농업을, 안장림은 어업을 주업으로 생활형태를 갖추고 반농반어의 취락형태를 이룬 조용한 마을이었다. 지금은 안장림과 바깥장림이 주택으로 이어졌으며, 원래는 안장림이 고래(古來)의 장림이었고, 바깥장림은 부산과 다대포간(多大浦間)의 도로개설 이후 도로변에 집들이 들어서서 생긴 마을이다. 한편 보덕포는 안장림에서 아미산 줄기가 북쪽에 끝나는 능선을

넘어 낙동강 강가로 향하면 응봉봉수대의 북쪽 기슭에 있었다. 이곳은 영세농어민의 마을로 수십 채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보덕포에서 강안(江岸)을 끼고 작은 능선을 넘어 가파른 경사면을 내려가면 거대한 암벽(岩壁)이 있고, 그 밑에 강(江)을 향하여 입구가 있는 천연동굴이 있었다.

선사시대(先史時代)의 주거지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곳이다. 지금은 대부분 채석작업으로 파괴되었다. 굴은 석회암층이 강류(江流)의

1986년, 낙동강하구둑 건설로 조성된 신평장림산업단지 주변 옛모습

침식(侵蝕)으로 용해되어 생긴 공동(空洞)으로 넓은 암반이 내려앉아 형성된 곳으로 50여명이 앉을 수 있을 만하고, 약 20도 정도의 경사진 암반이 바닥을 이루고 있었다.

보덕포와 안장림 사이의 강변 구릉(丘陵) 위에 개간된 밭이 있고 그곳에서 기원 1세기경의 김해문화기의 토기편이 나오는 패총이 있었다. 규모는 작으나, 조사를 할 겨를도 없이 폐멸되었고, 그 성격은 맞은편 신평동 패총과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목(古木)이 서 있는 안장림 일대는 대부분 사빈(砂濱)지대로 모래와 자갈이 쌓여 이룩된 땅이다. 땅속에서 패각(貝殼)도 많이 나오며, 신라의 토기편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아미산에서 보덕포에 이르는 강안(江岸)의 능선을 응봉(鷹峰 : 매봉)이라고 부르며 응봉봉수대가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곳이 독수리의 서식처로 알려졌던 곳이며 낙동강 하구의 철새들을 먹이로 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문헌상에 나타난 '장림동'

장림(長林)이란 지명은 숲이 우거진 곳이라기보다는 지형적으로 아미산 둘레에 길게 늘어선 동네라는 뜻에서 지어졌다고 보인다. 장림이란 지명은 1740년 편찬된 《동래부지》에 사천면(沙川面) 하단에 장림리로 다대진(多大鎭)이 이곳에 있었다 하여 고다대(古多大)라 전해지기도 하였다. 《동래부지》에 의하면, '장림리는 관문으로부터 45리 떨어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1904)》에는 20호의 호수가 거주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1914년 장림동이라 하여 동래군 사하면에 편입되었으며, 1942년 다시 부산부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02
다대진(多大鎭)은 원래 장림동에 있었다

장림은 군사적 요충지였다. 임진왜란 이전부터 진이 설치되었고 수군이 주둔했다고 한다.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誌)*》, 《동래부지(東萊府誌)》, 등을 보면 다대진(多大鎭)이 원래 장림포에 있다가 다대포(多大浦)로 옮겼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진이 언제 지금의 다대포로 옮겨졌는지 기록을 찾을 수는 없으나 임진왜란 이전임은 확실하다. 또한 다대로 옮기기 이전에 진(鎭)이 장림리의 어느 곳에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다만 지리적인 여건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장림동과 신평동 사이로 짐작한다. 장림의 옛 이름 중에 고다대(古多大)라고 전하는 말이 있는데, 신평동을 망후촌(望後村)으로 최근까지 불렀던 것을 보면 장림포(長林浦)의 규모를 대강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장림포가 망후촌 보다는 컸다는 의미다.

* 조선 세종 6년(서기 1424년) 경상도 관찰사 하연(河演)이 편찬한 책으로 경상도의 지리, 풍속, 인구, 산업, 진 등 모든 것이 총 망라되어 있다.

한편 《충무공전서(忠武公全書)*》에 따르면, 우리 수군(水軍)이 장림포 앞바다에서 왜선(倭船) 6척을 발견하고, 5척은 깨어 불살랐고, 1척을 불태운 뒤 낙오병의 목을 이몽구(李夢龜)가 베었다고 한다. 즉 이곳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또 숙종때에 명지만(鳴旨灣)에 표착(標着 : 물결에 떠돌아다니다가 어떤 뭍에 닿음)하여 장림포에 정박한 왜선 1척을 서평만호장(西平萬戶將) 이연정(李淵廷)이 사문(査問 : 조사하여 캐물음)했다고 한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에도 왜선이 가끔 출몰했음을 알 수 있는 말로 장림동은 해양세력을 막아야 했던 중요한 군사적 거점이었다.

* 정조 19년 (1795년)에 발간된 충무공 이순신(忠武公 李舜臣)의 유고 전집으로 14권 8책의 활자본이다.

03
소금가마가 있었던 장림

음식의 맛을 내는데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 식재료 소금,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소금만큼 좋은 재료도 없다. 따라서 예부터 소금생산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었으며 나라에서 직접 생산을 관장하기도 했다.

조선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장림포에 염분(鹽盆 : 소금가마)이 있었다고 한다.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誌)》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誌)*》의 기록을 보면 장림포에서는 조선초에 이미 제염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에 바닷물을 졸여 소금을 만드는 가마가 있었고, 염세(소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던 세금)는 두지(斗地)마다 1양씩으로 정해져 해마다 4월까지 중앙의 균역청에 바쳤

* 1454년(단종 2)에 완성된 세종실록, 즉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의 제148권에서 제155권에 실려 있는 지리지.

다. 이곳 장림소금은 전국적으로도 맛이 좋기로 이름이 났으며 이웃마을 구평의 5일장인 '독지장'에 내다팔면 좋은 값으로 팔렸다고 한다. 굵은 소금은 결이 강한 음식의 숨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가는 소금은 직접 음식요리에 사용하는데, 장림은 소금의 색깔이 맑고 좋아 굵은 소금도 음식요리에 사용될 정도였다고 한다.

기록상으로는 소금의 생산과 보관이 신라시대부터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어 소금의 역사는 꽤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석우로(昔于老)가 "왜왕(倭王)을 염노(鹽奴 : 소금을 굽는 일에 종사하는 남자 종)로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또한 신라의 애장왕(哀莊王)이 죽임을 당하는 809년에는 "서형산성(西兄山城)의 소금창고가 울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들로써 신라대부터 소금을 생산하고 보관하는 체제가 이미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염분(鹽盆)은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굽기 위해 설치한 소금가마를 말하는데, 그 크기에 따라 대, 중, 소, 소소(小小), 협(挾)으로 나누고, 또 재질에 따라 토분(土盆), 철분(鐵盆) 등으로 나뉘었다. 다른 말로 염부(鹽釜), 염조(鹽竈)라고도 불렀다. 소금의 원료에는 암염(巖鹽), 천연 함수(鹹水), 해수(海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해수(海水)에서 소금을 생산한다. 바닷물에서 얻는 소금으로는 자염(煮鹽 : 바닷물을 졸여서 소금을 만듦)과 천일염(天日鹽)이 있다. 자염은 바닷물의 염도(鹽度)를 높인 뒤에 끓여서 석출(析出)하는 소금이다. 천일염은 해수를 끌어들인 뒤에 바람과 햇볕으로 수분을 점차 증발시켜서 결정시킨 소금이다. 천일염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며 태양염 또는 청염(淸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는 오래 전부터 자염을 생산해 왔고, 장림도 이러한 자염생산의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소설가 김주영 작가가 쓴 '객주'를 보면 '멀리 바라보이는 해안 마을의 소금가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그림처럼 바라보였다.'라는 말이 나온다. 바닷가 마을의 아름다운 광경을 노래한 정감어린 글귀다. 그 옛날 장림의 소금가마도 이처럼 아름다운 어촌마을을 배경으로 그림 같은 아스라한 연기를 피워 올렸을 것이다. 솔잎과 갈잎, 통나무 등을 태워 소금을 굽는 구수한 냄새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지만, 장림이 소금처럼 중요한 마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04
맛좋기로 유명했던 장림 김

장림은 소금도 맛이 좋았지만, 김(海苔)도 유명했다. 장림에서 본격적으로 김이 생산된 것은 개항 후였다. 일제시대 때는 일본사람들이 많이 건너와서 김양식을 했는데, 상당한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진다.

장림 마을 사람들도 이 무렵 김양식으로 인해 생활이 넉넉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장림과 홍티(虹峙)에서 생산된 김을 따로 '장림 김'이라 불렀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역 특산물로 각광받았다. 장림 김이 특히 맛이 좋았던 이유는, 이곳이 바닷물과 강물이 합쳐지는 곳이어서 그런지 김 맛이 다른 곳과 달리 독특한 풍미가 있었다고 한다. 먹어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곳 김맛에 길들여지면 다른 김은 찾지를 않는다고 했다. 여기서 생산되는 김 대부분은 좋은 가격에 일본으로 수출되었다고 한다. 이 당시 김양식을 하는 집이 여러 곳 있었는데, 집 마당, 논밭, 마루, 심지어는 지붕위에까지 새까만 김을 말리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사진전문가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사진작가들까지 그 모습을 찍기 위해 찾았다

1970년, 어민들이 김을 말리고 있는 모습

고 한다.

김을 본격적으로 출하하는 시기는 가을인데, 이 때 김 보따리를 이고 지고 줄지어 나가는 아낙들의 모습도 이곳에서 볼 수 있는 낭만적인 모습이었다. 이들 아낙 중에는 각 동네를 돌아다니며 김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장림 김' 하면 어느 곳에 가도 알아주었기 때문에 수익이 꽤 좋았다고 한다. 당시에 가짜 '장림 김'까지 있었다고 할 정도다. 아이들이 김이 맛있어 몰래 한 장 훔쳐 먹으려다가 어른들에게 들켜 혼나는 일도 많았다 한다. 하지만 김생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었고 1960년대 말까지만 겨우 이어졌다. 그후 마을 사람들은 대체 상품으로 재첩잡이를 했는데, 이도 맛이 좋아 크게 인기가 있었다. 삼락(북구)에서 종포를 가지고 와서 낙동강 하류에 뿌려 재첩양식을 하였으며 당시만 해도 다른 고기도 많이 잡혀 생활이 윤택했다고 한다. 그러나 매립과 하구둑 건설로 대부분의 어업이 침체일로에 들어서 그 후에는 겨우 연명하는 수준에 그치게 되었다.

김은 칼로리가 거의 없고 단백질이 풍부해 다이어트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불에 살짝 구워 양념장에 찍어 먹어도 되고, 밥을 돌돌 말아 김밥을 해서 먹어도 좋다. 또 표면에 기름과 소금을 발라 구워 먹는 조미김도 식탁을 풍성하게 한다. 오늘 저녁엔 그 옛날 맛있었던 장림 김을 생각하며 식탁에 김을 올려봄은 어떨까.

05
이주민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됐던 장림

농사와 어업 위주로 조용한 생활을 꾸려왔던 장림동은 공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왔다. 그들로 인해 장림동은 새로운 활기를 띄게 됐으며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70년대 초에 1,400여세대가 장림동에 이주해왔는데, 이때 이주한 이주민들은 서구 남부민동과 중구 대청동을 잇는 산복도로의 개통으로 인해 갈 곳이 없어진 주민들이었다. 또 대티고개에서 살던 주민 360세대도 장림으로 이주했는데, 이는 대티터널 공사로 인해 불량주택들이 집단 철거되면서 이뤄졌다. 이들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따라서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10평 남짓의 작은 집에서 여러 가족들이 옹기종기 살아가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인구의 급증은 한차례 더 일어났는데, 그것은 1981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신평장림공단 조성사업으로 인함이었다. 공장기술자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이 공단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다. 인구가 증가하면 여러 관련 산업

도 새롭게 형성되고, 또 산업이 발전하면 인구가 더욱 증가하는 순 순환 구조처럼 장림동의 인구증가율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1980년대 이후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8.2%로 기록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이 이어졌다.

1983년 무렵 장림의 인구가 3만여명을 기록하면서 그해 10월에는 장림1, 2동으로 분동하게 되었다.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아미산의 능선과 장림진입로 및 장림삼거리에 장림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장림 · 신평공단 도로와 신평 경계 지점을 동서로 분할하여 그 서쪽을 장림 제1동, 그 동쪽은 장림제2동으로 정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장림동이 크게 발전한 이유는 물론 그전에 집단 이주한 주민들이 많아서였겠지만, 1981년부터 장림과 신평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신평 · 장림공업단지를 조성하여 많은 공장들이 이전을 해오면서부터였다. 이 공단의 발전과 더불어 이곳 주민들의 경제사정도 많이 좋아졌다. 새로운 집도 짓게 되었고 상하수도 시설도 완성되었다. 이곳은 아름다운 낙동강을 끼고 있어 주변경관이 빼어난 대표적인 마을이다. 또한 도로의 확충과 조경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주거 환경이 좋은 마을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인구의 유입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음성나환자들과의 갈등

발전하는 장림동의 밝은 모습 이면에는 어두운 그늘도 있었다. 예전 이곳엔 음성나환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했다. 1953년 경상남도에서 유입된 이들 음성나환자들은 장림동과 구평동에 자리를 잡았다.

참고로 나병은 한센병이라고도 하며 양성나병은 전염성이 있고, 음성나병은 전염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소위 '문둥병'이라는 어휘가 갖는 왜곡된 심리적 압박감과 잘못된 의학상식 때문에 양성나환자 뿐만 아니라 음성나환자들까지도 경계했다.

이곳 장림동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1966년 3월 1일 장림초등학교가 문을 열면서 문제가 촉발되었다. 이 초등학교 설립은 마을 사람들의 숙원사업이었기에 당시 그들의 기쁨은 대단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 초등학교에 부랑아 수용기관의 아동과 음성나환자의 아동들이 다니도록 한 데서 마을 사람들과 아동들의 부모들과의 대립이 있었다. 마을사람들의 입장과 부랑아 수용기관 및 음성나환자 부모들의 입장 모두가 딱할 노릇이었다. 배움에 목말라하는 아동을 학교에 못 오게 할 수는 더더욱 없었다. 대개 이러한 문제는 따로 학교를 설립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결국, 당국에서는 일반 동민의 아동은 학교에서 그대로 수업을 하고, 수용기관의 아동은 수용기관(영아숙)안에서 공부를 시키기로 하였다.

또 음성나환자촌에는 따로 분교를 세워 세 곳에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여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처음부터 따로 분교를 세웠더라면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는 대목이다.

장림 본동 경로당 황석용(남. 69세)씨의 증언

황석용씨의 증언에 따르면, 50년 전 장림에는 초가집이 200호 정도가 있었다 한다. 그들 대부분이 농업 및 어업으로 연명하였다고 한다.

그는 또 "마을 앞에는 갈대밭이었으며 집마당에서 김해벌판이 보였으며 겨울에는 철새가 새까맣게 보였다"고 전한다.

김 생산에 대한 이이기도 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사람들이 해태(海苔:김)를 많이 생산하였으며 장림김은 맛이 있고 고급이었으므로 일본으로 대부분 수출하였다고 한다.

아이들이 김이 맛있어 몰래 한 장 훔쳐 먹으려다가 어른들에게 들켜 혼나는 일이 많았다고 하니 어촌의 재미있는 풍경 중 하나였을 것이다.

증언에 따르면 1960년대 들어 해태가 잘 안 되자 재첩잡이가 성했다고 한다. 삼락(북구)에서 종포를 가지고 와서 낙동강 하류에 뿌려 재첩양식을 하였으며 당시만 해도 고기도 많이 잡혀 생활이 윤택한 때도 있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매립과 하구둑 건설로 재첩양식도 점차 재미가 없어졌다고 한다.

그는 또 "현재 중앙약국 자리는 장림주민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큰 우물터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보덕포에 대한 증언도 있었다. 그는 "보덕포는 큰 보덕포와 작은 보덕포가 있었다"며 "작은 보덕포에는 집이 몇 채 있었으며 큰 보덕포에는 양조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06
옛날 옛적에

장림동에는 재미있는 지명도 많고 흥미있는 이야기도 많다. 야시(여우)가 출몰했다 해서 야시골, 감나무가 많이 나서 감나무골, 물이 많이 나와서 큰새미 등 곳곳이 전설이고 추억이다. 장림 곳곳에 숨 쉬고 있는 옛 추억의 장소를 찾아가보자.

감나무골

장림2동의 바깥장림에 있는 골짜기다. 옛날 이 곳에 감나무가 많아서 감나무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원래 감이 많은 곳은 아이들도 많다. 가을이 되면 감이 주렁주렁 영그는데 그것을 그냥 넘길 인내심 많은 아이들은 없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한명을 정해 망을 보게 한 뒤 몰래 감나무에 올라 감을 따먹는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이다. 지나는 까치가 먼저 따먹기 전에 빨리 따먹어야 임자다. 노지에서 비바람을 이겨낸 감은

그 당도가 매우 높은 게 특징인데, 이곳 아이들의 주된 영양간식이지 않았을까 싶다. 지금은 감나무가 사라진지 오래다. 하지만 그때의 추억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다.

내장림 둑

안장림과 신평동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던 낙동강 하류의 자연제방으로 낙동강의 물이 밀려드는 것을 막았던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과연 그 기능만 하였을까. 둑 위에 나있는 둑 길은 산책코스로도 매우 좋은 곳이었다. 이 길은 봄에는 꽃이 피어서 아름답고, 여름에는 이름 모를 풀이 허드러져 정취가 있었다. 개구쟁이들은 그 둑 아래로 풀 썰매를 타고 긴 여름 한철을 보냈을 것이다. 가을이면 억새가 키만큼 우거져 연인의 가슴을 설레게 했었다. 겨울도 좋았다. 한겨울 이곳저곳 흩어진 마른 가리비를 주워 콩이나 고구마를 구워먹던 곳도 뚝 길 아래였다. 이 둑은 지금은 사라졌고 추억의 장소로만 남아 있다.

다대고개

장림에서 다대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응봉산과 두송산 북쪽 산능 사이에 있으며 해발 20~50미터 정도로 야트막한 고개다. 예부터 장림과 다대를 잇는 유일한 고개로 특히 장꾼들이 많이 이용해 유명했다. 1980년대 말부터 괴정~다대를 잇는 자동차도로가 확장, 포장되면서 보행인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장림본동 경로당에서 만난 황석용(69세. 남)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 다대고개를 장승배기 또는 오목고개라고도 하였다고 한다. 장림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옛날의 나이 드신 어르신

현재의 야시골 (장림2동 벽산마마APT 뒷산)

들은 집 마당에서 장승배기와 다대 낫개(현재의 다대2동 주민센터 주변) 쪽으로 보면서 낫개쪽의 구름 이동을 보고 3일 정도의 일기를 정확하게 가늠하였다고 하니, 요즘의 기상예보관 보다 낫다는 생각을 해본다.

야시골

아미산밑 현재 벽산마마아파트 뒷산으로 이곳은 골이 깊고 산림이 무성하였으며 밤나무가 많았던 곳으로 여우가 자주 나타났다고 한다. 야시골이라 부르게 된 것도 그 이유였다고 한다. 경상도에서는 여우를 야시라고 불렀다. 이 마을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놀려주려고 구미호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1000년 묵은 구미호는 꼬리가 아홉 개였는데, 마지막 10번째 꼬리가 나게 되면 사람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구미호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아리따운 인간 여자로 둔갑하여 인간 남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는데, 만약 구미호가 자신의 정체를 남편에게 들키지 않고 백날을 같이 살면 진짜 인간이 된다고 하는 이야

기다. 그러나 이 전설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대개 하루를 남겨놓고 정체를 들켜버려 소망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데, 슬픔에 빠진 구미호는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떠나버리는 내용이다. 할머니들은 손자손녀를 앞에 두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시골에는 아직도 그런 구미호가 있을 수 있고, 너희 엄마가 구미호일 수 있다고 놀려대기도 했다고 한다. 대개 구미호는 표독하고 간사한 여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할머니들의 마음속엔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짐작을 해본다.

아무튼 지금의 이곳 야시골은 그 옛날의 울창하게 우거졌던 산림이 많이 사라졌고 또 더 이상 야시도 출현하고 있지 않다. 현재는 주민들의 등산로로 애용되고 있다.

장림고개

장림고개는 총 3개동을 걸쳐 교통을 연결시키는 중요 고개다. 신평1동, 장림2동, 구평동이 그것인데, 예전에는 이곳을 통해 서로서로 교류했다. 장꾼들도 짐을 이고지고 올라 다녔고, 여인네들은 이웃마을에 시집간 친구를 보러 다녔으며, 남자들은 고개 넘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막걸리 한 사발을 걸치고 오르내렸던 고개였다. 돌아오는 길에 고갯길에서 또 다시 친구를 만나면 역시 막걸리 한 사발을 또 했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애환을 간직한 이 고개는 현재 4차선도로가 생겨 신평·장림공단의 주 진입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 고개의 정상에는 구평 파출소가 있어 주민들의 민원과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여러해 전부터 이 파출소 주변으로 주택과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옹기종기 서로의 어깨를 부비며 살고 있다. 예전의 아름다운 정취가 있었던 고개의 역할은 많이 퇴색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 정답게 살고 있다.

장림늪

늪에는 많은 사연이 있다. 온갖 동식물이 크고 자라고 아름다운 추억도 자랐다. 요즘은 아이들이 생태체험이라고 해서 갈대가 핀 늪이라든지, 연꽃이 자란 늪은 차를 타고 멀리까지 방문하지만, 예전의 장림동 아이들은 멀리 갈 필요가 없었다. 바로 안장림에 넓은 늪지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은 낙동강의 토사의 퇴적으로 자연제방이 형성됨에 따라 이곳으로 흘러들던 장림천의 유수가 고이면서 형성된 넓은 습지대였다. 갈대가 무성해서 풍광이 매우 아름다웠다. 아이들은 개구리와 메뚜기도 잡고 갈대를 얼기설기 엮어 모자와 배를 만들어 머리에 쓰기도 하고 늪

에 띄우며 즐겁게 놀았다. 이 장림늪은 신평장림공단이 들어서면서 사라졌지만, 그 당시 개구장이었던 어른들의 기억 속엔 영원히 남아 있는 아련한 어린 시절의 추억이다.

큰새미

어느 동네든 큰 새미에 얽힌 사연은 많다.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고 신랑의 험담을 하고 자식 자랑을 하는 곳도 큰 새미고, 마을의 자질구레한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또 지나는 길손의 목을 축이는 곳도 큰 새미였다. 더운 여름철엔 지나는 아이들을 불러 시원한 등목을 쳐주던 곳이기도 했다. 등목을 칠 때면 주변 아낙들 모두가 흥겨웠고, 아이들은 차갑다고 고함을 질러댔다. 모두가 우리 어머니고 누이였다.

물은 생명이고 물은 어머니의 젖줄이다. 그래서 여인들이 물가에 항상 있었는지도 모른다. 마을이 형성되면 무엇보다 새미를 먼저 만들었는데, 이는 생활용수로 쓰기 위함임은 당연하고, 마을의 푸근한 정서가 녹아 있는 아름다운 곳을 먼저 만들고 싶은 여인들의 작은 소망은 혹 아니었을까도 생각해본다. 장림동의 큰 새미는 안장림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은 현재의 중앙약국 자리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혹시 새미가 생명줄이어서 중앙약국이 자리 잡았나 하는 억측을 해본다.

성화원 마을

1950년 한국전쟁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고통이었다. 가족과 재산을 잃고 삶의 모든 터전이 한꺼번에 사라져 버린 참혹한 시절이었다. 그 중

에 전쟁고아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한참 사랑받아야 하는 시기에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견디기 힘든 경험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 고아들을 구호하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전쟁을 극복한 이후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장림동에는 이러한 전쟁고아를 구호하기 위한 성화원(聖花院)이 세워졌다. 전쟁고아를 구호하는 곳은 사하구에 특히 많았는데, 이곳 성화원은 그 중 하나였다. 성화원은 그 이름 뜻 그대로 '성스러운 꽃의 집'이다. 종교적인 색채가 느껴지는 이름인데, 기독교 신앙으로 고아원을 운영하면 외국의 원조가 많다는 당시의 상황과 접목된 것으로도 보이고 기독교 신앙인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고아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으로도 여겨진다. 당시 사하초등학교와 감천초등학교의 학생 중에는 고아가 많았다. 중학교는 삼성중학교가 신설되었는데 신설 초기에는 이 학교에도 전쟁고아들이 다수 있었다. 성화원(聖花院)도 이들 고아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었고, 시설 내에 성화원분교가 있었다. 여기서 생활하고 교육받았던 이들 전쟁고아들은 나중에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기업인도 있었고 교육계에 진출한 사람도 있었고 기술자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의 아들과 딸이 또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을 것이다. 고통의 역사는 희망의 역사로 다시 쓰여지고 있다.

07
그밖에 재미있는 전설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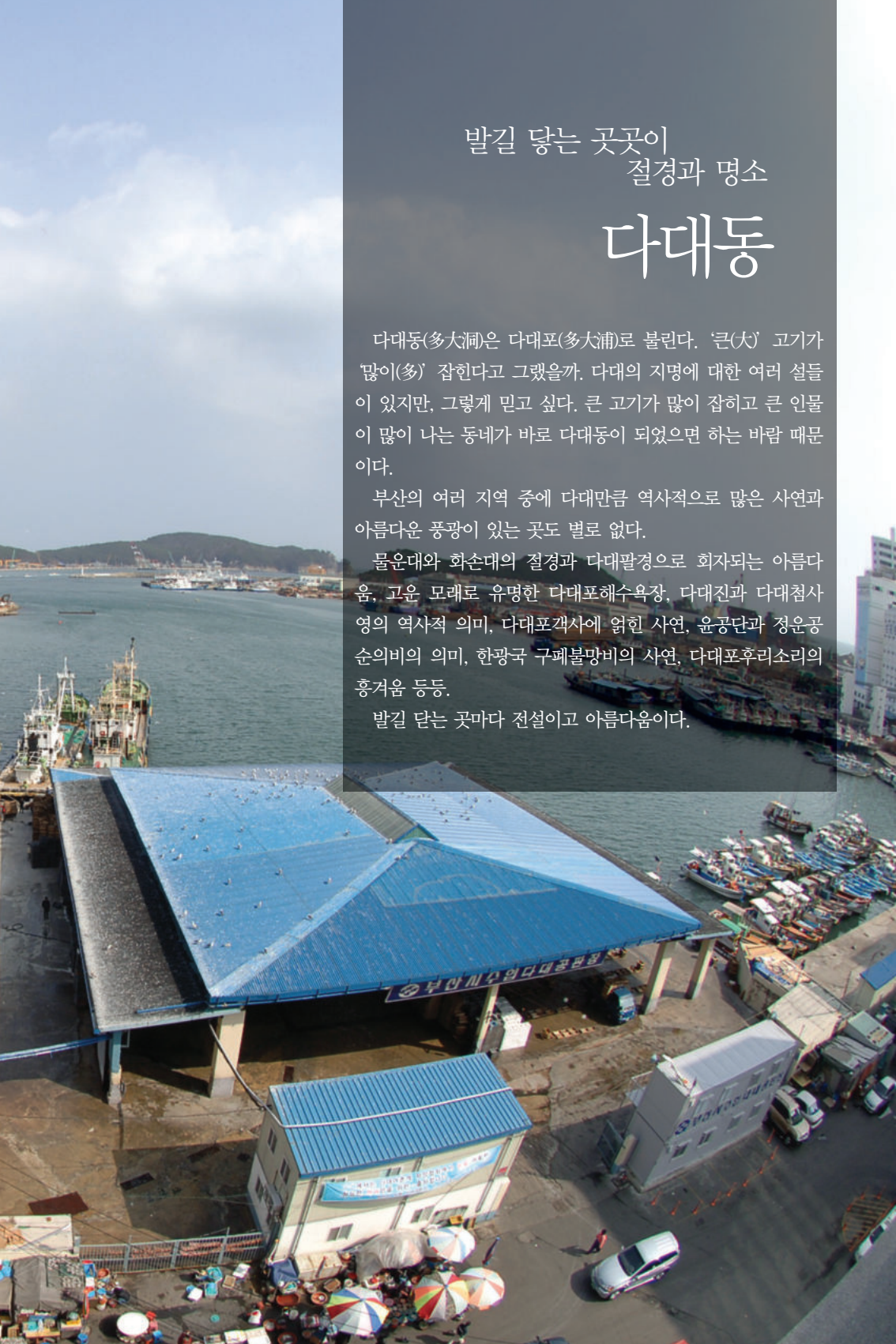
장림에는 또 재미있는 전설들이 많다.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장림동 본동 경로당 김홍문 회장과 장림 새마을경로당 박정자 회장은 구수한 입담으로 장림의 유래와 숨겨진 흥미있는 이야기를 한다. 장림동 본동 경로당 김홍문 회장은 "김금만(정 3품)은 임진왜란 발발 후 말 7필을 끌고 장림으로 와서 정착하게 되었는데, 숲이 길게 위치한다고 하여 장림이란 지명을 지었다는 설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당시 채씨 성을 가진 할머니 한사람도 같이 정착을 하였는데 자식이 없었던 할머니는 무속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으며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김금만은 당집을 짓고 제사를 지냈다고 전해져 내려온다"고 말했다. 이 말대로라면 김금만은 이 채씨 할머니와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3품의 관직을 지냈음에도 이름 모를 한 무속인의 죽음 후까지도 돌봐주는 마음이 아름답다.

장림에는 용수암(용한당)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생활용수로 이용하던

장림본동 제당

곳이었다고 한다. 이 증언은 장림 새마을경로당 박정자 회장에게서 나왔는데, 이 용수암 주변은 모두 논이나 밭이었다고 한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이곳의 물이 매우 맑고 좋아 피부병이나 위장병에 효능이 있었다고 한다. 또 소원을 빌면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진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소원을 비는 장소로 자주 이용되었으며 현재까지 1년에 한 차례 제를 올리고 있다고 한다.

본동 경로당 노인들의 말도 흥미롭다. 그들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장림은 '개설' 자리고 신평은 '범설' 자리로 두 동네에 사는 처녀, 총각은 서로 결혼을 잘 하지 않았으며 어쩌다 결혼을 한 경우에도 끝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이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몇 개의 사례가 있었을 것이고, 풍수를 하는 사람의 이런저런 견해가 덧붙여지면서 재미있는 말을 만들어내었을 것이다. 아마 지금은 장림과 신평의 처녀총각이 서로 만나 모두 잘 살고 있을 것이다.



발길 닿는 곳곳이 절경과 명소

다대동

다대동(多大洞)은 다대포(多大浦)로 불린다. '큰(大)' 고기가 '많이(多)' 잡힌다고 그랬을까. 다대의 지명에 대한 여러 설들이 있지만, 그렇게 믿고 싶다. 큰 고기가 많이 잡히고 큰 인물이 많이 나는 동네가 바로 다대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부산의 여러 지역 중에 다대만큼 역사적으로 많은 사연과 아름다운 풍광이 있는 곳도 별로 없다.

물운대와 화손대의 절경과 다대팔경으로 회자되는 아름다움, 고운 모래로 유명한 다대포해수욕장, 다대진과 다대첨사영의 역사적 의미, 다대포객사에 얽힌 사연, 윤공단과 정운공 순의비의 의미, 한광국 구폐불망비의 사연, 다대포후리소리의 흥겨움 등등.

발길 닿는 곳마다 전설이고 아름다움이다.

01
다대포는 군사, 교통, 어업의 중심지였다

하얀 비늘이 햇빛을 받아 한가득 반짝일 때면, 다대포 어부들의 얼굴엔 비로소 웃음꽃이 피어오른다. 멸치의 은빛 비늘은 바로 아이들의 학비이며, 부인의 비어진 쌀독을 가득 채울 생명의 빛이다. 만선(滿船)은 물질하는 사람들의 삶의 희망이고 목표였다.

그래서, 그물 잡은 검게 그을린 팔뚝에 파란 힘줄이 솟아오르는 그 순간, 모든 주인들이 '쾌지나 칭칭 나아네~'를 외쳤던 게 바로 옛 다대포 포구의 삶의 일상이었다.

다대의 동명(洞名)은 다대동(多大洞)이지만, 대개 다대포(多大浦)로 부른다. 그만큼 포구로써의 역할이 컸다는 뜻이다. 이곳은 일찍부터 멸치가 많이 잡히는 어장이 발달되었다. 지금은 그 옛날의 물질하는 삶의 현장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어로(漁撈)중심의 모듬살이는 수십 세기를 걸쳐 이어졌다.

그렇다면 다대포는 언제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까. 다대포의 역사

1960년, 아미산에서 내려보는 다대포의 옛모습(몰운대, 윤공단, 야망대)

는 먼 옛날 신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헌상의 기록은 찾을 수 없지만 다대포해수욕장 북쪽에서 발견된 각종 토기의 파편으로 그 역사의 시초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다대포해수욕장 북쪽에는 다대포패총(조개무지)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융기문토기, 빗살무늬토기, 붉은간토기로 대표되는 신석기문화의 특징의 토기의 파편이 다수 발견되었다. 또 가야나 원삼국시대로 대표되는 토기도 발견되었는데, 적갈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가 그것이다. 토기는 대개 음식물을 담을 때 사용된다. 융기문토기나 적갈색연질토기 등에 담긴 음식물을 섭취했을 신석기시대의 다대포 주민을 생각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먹고 살아야 한다는 삶의 치열한 애환을 느껴볼 수 있다.

아비는 고기를 잡고 어미는 토기에 음식을 채워 자식에게 나눠주고, 함께 웃고 울었을 신석기시대와 저녁에 둘러 앉아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지금의 모습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우리가 신석기시대

1934년, 사립실용학교(다대초등학교 전신) 가을 운동회 모습

를 너무 멀게 느낄 뿐이다.

신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곳의 자연환경이 살기에 편했고, 어장이 풍부하여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여건 또한 충족되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대포는 인간에게 '삶의 영위'라는 선물을 끊임없이 선사한 곳이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다대포는 여기에 또 다른 선물을 덤으로 줬다. 바로 교통의 중심지라는 점이다. 낙동강하구에 자리 잡고 있는 다대포는 해상과 육상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낙동강 하구의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만들고 있다. 바다에서 나는 각종 물품을 육상으로 전달하고 육상의 제품을 바다로 이어지게 만드는 물류수송의 중심지였다. 원래 포구(浦口)의 기능이 그러하다.

해상과 육상이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는 바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해양세력의 내륙진출의 교두보가 되는 것

다대포 패총이 있었던 자리

이다. 이곳을 점령하면 일본이라는 해양세력의 입장에서는 물류수송이 유리하고 남해 쪽까지 수중에 넣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대로 해양세력을 막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곳을 사수해야 적의 예봉(날카롭게 공격하는 기세)을 꺾어놓을 수 있다. 따라서 다대포는 군사적 요충지가 아닐 수 없고, 특히 일본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튼튼한 제방 역할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곳이었다. 다대포의 이러한 지정학적 이유로 번번이 외침을 당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 외침에 대한 방어도 점차 강화되었다.

특히 다대포는 고려말부터 왜구의 침입과 약탈이 잦아지면서 조선시대 경상좌도 7진(慶尙左道 7鎭 : 부산 · 다대 · 서평 · 포이 · 개운 · 두모 · 서생)중 하나로 다대진이 이곳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다른 진보다 두 배에 가까운 병선을 배치했다. 그것은 다대포가 한적한 포구였지만 국방

상 매우 중요한 요새로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한쪽에서는 멸치잡이의 은빛 비늘이 번쩍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군병들의 갑옷과 기치창검이 번적이는 포구의 모습은 언뜻 연결이 되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다대포의 치열한 삶의 현장성이었다. 모든 살아 있는 생명은 살아야 하기에 치열할 수밖에 없다.

"어이~오늘 멸치잡이는 좀 어떤가?"

"어이~오늘 왜구는 좀 어떤가?"

어부와 군병의 대화이다. 어부는 멸치를 잡아야 하고, 군병은 왜구를 잡아야 한다. 반드시 잡아야 살 수 있다. 옛날 다대포에서는 이런 대화가 한동안 이어졌다.

지금의 평화로운 다대포는 바로 이처럼 치열한 삶을 살았던 우리네 조상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대포 지명의 유래

'다대'라는 지명은 우리나라의 사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그 기록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일본서기(日本書記, 720년 도네리친왕 등이 천왕의 명령을 받들어 편찬한 일본 최초의 편년체 역사서. 문장은 한문체이며, 전30권, 계도(系圖) 1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계도는 현재 전하지 않는다)의 신공황후(神攻皇后) 섭정(攝政) 5년기의 '다다라노쪼'「계체천황」(繼體天皇, 450~531)기(記)의 '다대라원(多大羅愿)' 그리고 「추고기」(推古記)의 '다다라'(多多羅)등이 상고시대부터 다대진(多大鎭)으로 알려지고 있다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지금의 다대포와 일치되는 지명인지는 정확하지 않다.(「부산지명총람」 제4권, 62p)

다대포 패총

다대포 패총은 일제시대 당시 다대포해수욕장 서쪽에서 일본학자들이 처음 발견했다. 이때만 해도 꽤 큰 규모였는데, 1925년 을축년 태풍과 해방후인 1959년 9월 17일 사라호 태풍때 대부분 유실되었다. 1966년에 부산대학교 박물관장 김석희 교수가 일부 남아있던 유물들을 발굴하였다. 하지만 상태가 별로 좋은 것들이 없었다.

다만 일제시대 일본학자가 처음 발굴한 유물들이 현재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데, 이 유물들은 발굴상태가 좋아 당시의 시대상황을 잃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총 4개 층으로 이루어진 이 패총 중 유물이 출토된 것은 2층과 3층이다. 유적의 층위는 제1층 표토층, 제2층 패각이 섞인 부식토층, 제3층 검은색 부식토층, 제4층 역석층 등이다. 이중 2층에는 철기시대의 유물이 발견되었고, 3층에는 그 보다 앞선 신석기시대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는 시대가 각기 다른 패총이 중첩되어 있는 것으로 각 시대의 문화적 특징을 잘 살펴볼 수 있어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출토된 것 중에는 토기류가 가장 많고 가락바퀴, 혹요석제 석기, 돌망치 등이 있으며 또 일제때 말안장모양의 갈돌 수점도 출토된 바 있다고 전해진다.

토기류는 빗살무늬토기가 주류이고 그 외에 붉은간토기, 융기문토기, 적갈색 연질토기, 회청색 경질토기 등이 약간 나왔다. 빗살무늬토기의 성격은 동삼동 패총의 3, 4층과 비슷하다. 그 외에 덧무늬토기도 상당수 있다.

그릇의 모양은 밑이 둥글거나 뾰족하고 아가리가 V자나 U자 모양이며, 무늬는 아가리에서 몸통까지만 세겨졌다. 대부분이 아가리 무늬와 몸통무늬가 구분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무늬는 동삼동 패총과 마찬가지로 짧은 사선무늬와 고기뼈 모양 무늬가 복합된 것이 주종이다. 이 무늬는 선이 굵은 전형적인 남해안의 침선문계무늬이다.

이중 2층에서 발견된 적갈색 연질토기와 회청색 경질토기는 원삼국시대나 가야시대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3층은 융기문토기, 빗살무늬토기, 붉은간토기로 대표되는 신석기문화의 특징이 보인다.

하지만 3층에서 출토된 유물이 다양하여 시대를 밝히는 데 몇 가지 설이 있다. 신석기시대 초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 신석기 중기와 후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 신석기시대 말기의 것으로 보는 견해 등 3가지가 있다. 어쨌든 3층에서 발견된 토기는 신석기시대인 것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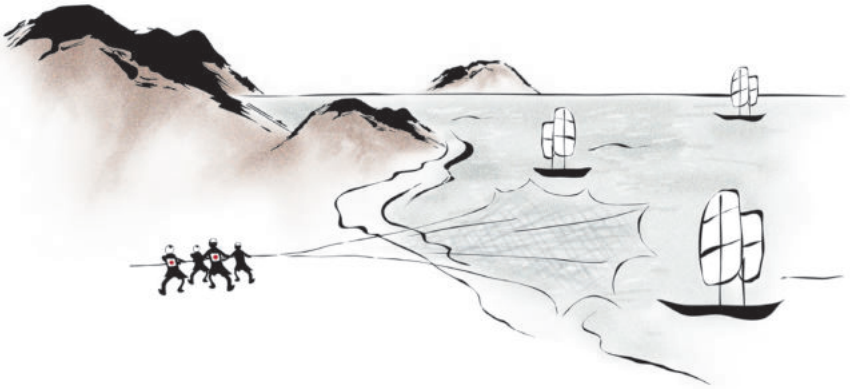
다대포와 얽힌 일본인들 이야기

다대포에는 일본인과 얽힌 이야기들이 많다. 임진왜란 당시 다대첨사 윤흥신 장군의 순절에 얽힌 가슴 아픈 사연도 있고, 이순신 장군의 수하 장수였던 정운 장군이 순절하기도 했다.

또 일제시대 많은 사람이 이주한 바도 있다. 다대포에는 1906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어민들이 이주해 왔으며, 지금의 다대 현대아파트가 있는 앞바다에서 멸치가 무진장 잡혀 지예망어업(地曳網漁業)이 성행하였다.

일본인들은 지예망어업으로 멸치를 잡아 말려서 남포동 객주집에 팔았다. 지예망어업이란 바다에 그물을 둥글게 던져 넣은 다음 그 그물을 육지에서 잡아당겨 고기를 잡는 것을 말한다.

또 다대포 앞바다는 일본 강점기말 미군의 '그루망(GRUMANN)' 함재기가 민간 여객선 '가모메마루'를 격침, 일본의 패망을 예고한 곳이기도 하다.



02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다대진(多大鎭)을 찾아서..

다대포에 관한 이야기에서 다대진(多大鎭)을 빼놓을 수 없다. 다대진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하며, 다대첨사영(多大僉使營)에 있었던 다대포객사 또한 역사적 유물로 매우 가치 있다.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온고지신(溫故知新)을 위해서다. 조상의 얼을 통해 현재를 알 수 있고, 나아가 미래를 여는 기초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다대진이지만, 우리의 조상이 어떻게 나라를 지켜왔는지,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민족을 위해 희생하였는지 알 수 있는 소중한 역사적 자료가 된다.

왜적을 막았던 다대진(多大鎭)과 다대첨사영(多大僉使營)

한적한 어촌 마을이었던 다대포는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고기잡이

를 해왔다. 다른 한 켠에는 농사짓는 사람도 있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 어구나 농기구를 손보는 일에 종사한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 이 마을은 마을사람들끼리 싸움도 없었고, 큰 소리 내는 동네불량배도 없었다. 그저 멸치를 잡고 서로 모여 '쾌지나 칭칭 나아네'를 부르고 막걸리를 마셨던 순박한 사람들의 마을이었다. 그런 마을에 근심거리가 단 하나 있었다. 바로 왜구들이었다. 조금 살기 편해졌다 싶으면 다대포 앞바다에 넘어와 잡아 놓은 멸치를 훔쳐가고, 유일한 생계수단인 배도 빼앗아갔다. 심지어는 칼을 들고 집에까지 들어와 여자를 강탈해 가기도 했다. 왜구들이 덤벼들면 행복했던 어촌마을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돼 버렸다. 울음소리가 온 마을을 진동하고 울분에 못이긴 남정네들은 배를 타고 '왜구사냥'을 나서기도 했다. 이 왜구사냥은 일정한 수확도 있었지만, 결국 마을 사람들이 상해를 입기는 마찬가지였다. 마을 사람들은 여러 차례 왜구를 막아줄 것을 관아에 요청했고, 관아는 중앙에 이를 상소하고 드디어 다대포에 군병이 주둔하게 된다. 이 군병들은 다대포에 침범하는 왜구를 말끔히 처리하는 공을 세웠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였고, 얼마간 왜구는 잠잠했다. 그러나 노략질에 재미를 붙인 왜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또 다시 다대포에 들어왔다. 악순환이었다. 군병은 늘어가고 왜구도 늘어갔다.

이러한 현상은 다대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동해안과 남해안 주변의 포구에는 왜구의 침략행위가 극성이었다. 조선의 조정에서는 이러한 왜구의 침략에 골머릴 앓았다. 따라서 해안가 지방에서 왜구 침략을 막는 수군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기에 이른다[1]. 강한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왜구의 침략이 극렬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그 후에도 왜구는 근절되지 않았다. 남의 재산을 노리는 그들의 마음은 막는다고

윤공단(윤흥신공 향사)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조선의 조정은 왜구를 달래는 유화책도 썼다. 바로 삼포의 개항이었다[2]. 하지만, 삼포의 개항 후에도 왜구의 침입은 근절되지 않았다. 왜구들이 저지르는 작폐(作弊)는 그 도를 넘고 있었다. 몇 백명이 배를 타고 와서 노략질을 일삼고 민가에 불을 질렀다. 다대포도 예외는 아니었다. 급기야 성을 축조하는 안이 발의 되었다. 왜구가 오면 성에서 방비를 하고 민간인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

1) 왜구의 침략이 심하였던 조선 태조3년에는 왜구침범에 대한 방비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때 경상도에 수군첨절제사를 두었다. 또 태종대(太宗代)에는 경상, 전라, 충청 3도를 통할하는 수군도절제사를 두는 한편 그 휘하 연안포소(沿岸浦所)에는 만호와 천호를 임명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만호장에게는 3, 4품인 위계가 주어졌다.

2) 삼포 개항(三浦開港)은 1426년(세종 8년) 대마도주 소 사다모리(일본어 : 宗貞盛 종정성)의 청에 따라 기존에 개방하였던, 웅천(진해)의 내이포(乃而浦), 부산포 이외에도 울산의 염포(鹽浦)를 추가로 개항하고 일본인에게 교역을 허락한 일이다. 3포에는 각각 왜관을 두어 왜인 60명에 대하여 거주를 허락하였다.

이에 따라 성종15년(1484)에 이르면 성보(城堡)축조가 이루어지게 된다. 부산포는 성종 21년(1490년) 8월에, 다대포 축성은 성종 21년 11월에 성보가 각각 완성되었다. 그리고 성종 14년(1483년) 부산포첨절제사는 제포첨절제사(경상우도)와 함께 종래 종3품에서 정3품 당상관으로 권한을 높인다. 하지만, 성보가 완성되고 권한이 확대되고 군병의 수가 많아져도 왜구의 침범은 계속되었다. 그들이 한번 침범하면 평화로운 어촌마을은 쑥대밭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었다.

급기야 중종 5년(1510년)에는 삼포왜란[3]이, 중종 39년(1544년)에는 사량진왜변[4]이 일어났다. 삼포왜란 때는 부산포 첨사 이우증이 살해당하고 군사와 백성들 272명이 죽고, 동평현, 동래현 민가 796호가 전소되는 등 피해가 엄청났다. 또 사량진왜변 때는 왜선 20여척이 많은 말(馬)과 사람을 약탈해갔다. 왜구를 막기 위해 마련된 각종 유화책은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 것이다. 이 두 왜란과 왜변이후 조정에서는 왜인의 조선 왕래를 엄금하고 종래의 진관체제 개편을 단행해 왜구(들)의 침범에 대비하게 된다. 강경책이었다. 이때 부산진 진관체제 휘하에 서평포

3) 1510년 중종 11년 4월 4일 제포(내이포)에 거주하고 있던 항거왜추(恒居倭酋), 대조마도(大趙馬道), 노고수장(奴古守長) 등이 병선 100척과 무장한 왜인 4~5천명을 거느리고, 성을 공격하였다. 이들은 부산포, 제포를 함락시키고, 영등포를 불사르고, 웅천진 등을 공격하였다. 이 변란으로 인해 부산포, 제포, 웅천, 영등포가 함락되고, 부산포 첨사 이우증이 살해당하였다. 군사와 백성들 272명이 죽고, 동평현, 동래현, 민가 796호가 전소되었다. 조정에서는 황형(黃衡), 유담년(柳聃年)을 경상좌우도방어사(慶尙左右道防禦使)로 임명하여 군사를 보내 이들을 토벌하였다.

4) 1510년 삼포왜란을 계기로 부산포(釜山浦) 등의 삼포를 폐지하였으나, 왜인의 간청으로 1512년에 임신조약을 체결하여 왜인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였다. 그러나 왜인의 행패가 여전히 계속되던 중, 1544년 왜선 20여 척이 경상남도 통영시 원량면(遠梁面) 진리(鎭里)에 있던 사량진에 침입하여 사람과 말[馬]을 약탈해 갔다.

(신설), 두모포, 개운포(개칭), 포이포, 서생포, 다대포 등이 만들어진다[5]. 보다 강력하게 왜구의 침입을 막자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다대포에는 더욱 많은 군병들이 배치되었고 마을 주민들은 한동안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발발한 것이다. 1592년 4월 13일 경상도 동래부 다대포 응봉봉수대(鷹峰烽燧臺)에서는 왜군의 700여 병선(兵船)이 쓰시마를 출항하여 부산포에 이르고 있다는 상황보고가 곧 경상·전라도의 각 감영(監營)과 중앙에 전달되었다. 임진왜란의 시작이었다. 이때 일본군의 선발대인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약 1만 8000 병력이 다대진을 침범해 들어왔고 당시 다대포 첨사였던 윤흥신 장군과 군병들은 첫 번째 싸움에서는 승리하고 두 번째 싸움에서 장렬히 전사하게 된다.

현재 다대포 주산에는 윤흥신 첨사의 뜻을 기리는 윤공단(尹公壇)이 세워져 있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초개처럼 목숨을 바친 의인(義人)들의 얼을 달래고 있다. 임진왜란 때 대부분의 조선 국토가 유린된 것처럼 다대포도 마찬가지였다. 이곳에 살았던 마을 사람들은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임진란 후 다시 군제 변혁이 있을 때 다대포는 부산진, 두모진, 개운진, 포이진, 서생진, 서평진과 함께 경상좌도(慶尙左道) 7진(鎭)의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부산진과 함께 중시되어 다른 진보

5) 다대포는 부산진관으로 편재될 때 다대포 만호영이었으며 무관 종4품관인 만호가 그 수장이었다. 이때 영(營)은 장림포(長林浦)에 있었다(경상도속찬지리지). 이 영이 다대포로 옮겨지는 시기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으나 임진왜란 이전임은 확실하다. 그후 다대첨사가 목도(牧島, 지금의 영도)의 왜군을 무찌른 공로가 인정되어 첨사영(僉使營)으로 승격하고 무관 정3품의 당상관(堂上官)을 수군첨절제사(첨사)로 임명하게 된다. 당시 전국의 25명 다른 첨사는 종3품이었는데 수군으로서 다대포첨사와 육군으로서 평안북도의 만포진(滿浦鎭) 첨사는 정3품 당상관이었다. 이 두 곳의 첨사는 첨사를 관할하는 수사(水使)와 동격(정3품)의 관원이었으니 그 전략적 중요성을 능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다 두 배의 병선을 보유하게 된다. 그만큼 다대진의 중요성이 컸던 것이다[6]. 또한 다대첨사는 다른 진과 달리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게 근무기간을 연장시켰다. 이는 잦은 첨사의 교체가 군의 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다대진의 직속 병선으로서는 전선 2척, 거북선 1척, 사후선 4척이 있었다. 전선 2척에 딸린 군사는 감관(監官) 또는 선장 1명, 지구관 4명, 교사(敎師) 10명, 토사부(土射夫) 36명, 포수(砲手) 48명, 능로군(能櫓軍) 290명, 분방사부(分防射夫) 212명, 방군(防軍) 1,600명에 이른다. 대단한 규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군제는 구한말 일제가 들어오면서 1895년 7월 전국 모든 지방의 삼도통제사(三道統制使), 병사(兵使), 수사(水使) 등의 관직이 폐지 되었고, 그 진영(鎭營)도 없어져 다대진도 역사에서 사라졌다.

박세혁(朴世赫) 첨사가 마지막 첨사였다. 먼 옛날 왜구의 노략질을 막기 위해 군병이 배치되고 만오영에서 첨사영으로 승격되고 임진왜란 때는 전란의 소용돌이를 고스란히 받아야 했던 다대포진, 임란이후에는 다시 침범할지 모를 왜구의 대비하기 위해 다른 진보다 두 배의 전력을 갖고 있을 만큼 중요한 곳이었다. 하지만 구한말 일제가 들어오면서 군대는 해체당하고 폐진되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흐르는 세월에 따라 많은 것이 사라지고 변하기 마련이다. 그 변화를 아쉬워하든 그렇지 않든 역사는 흐르는 물처럼 그저 흘러갈 뿐이며 그 때의 기억은 잊혀 질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시

6) 1894년 11월부터 1895년 1월에 걸쳐 영남 각 진에서 작성한 진지를 모아 편찬한 '영남진지'(嶺南鎭志, 규장각 12183/'부산시사' 제1권 p869)에 보면 이 진이 감만, 용당, 석포를 포함한 16개동을 관장하고 있는 큰 진이었다고 적혀 있다.

'다대진지도'의 다대진

조선후기 1872년(고종 9년)에 그려진 '다대진지도'(규장각 소장, 채색필 사본)살펴보면, 1895년이 이 진이 폐진 되기 20년전의 그림지도가 나온다. 이 지도는 조선후기의 다대포 모습을 잘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다대진지도

절 마을 주민과 국가를 지키겠다고 목숨을 바친 군병들의 뜨거운 충절과 그들이 흘린 피가 아닐까.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는 다대포진성(多大浦鎭城)터

"수군은 배에서 살고, 육군은 육지에 산다."는 생각은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불합리한 발상이다. 흔들리는 배에서 몇 달간 근무하다보면 배멀미도 심하고 군량이 바닷물에 오염되어 썩기가 일쑤다. 지금의 외양선처럼 배가 큰 것도 아니고 냉장고 등의 저장시설이 완벽히 갖춰진 것은 더더욱 아니었던 조선 초기의 상황을 짐작해보면 군사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군 체제는 해상의 적은 수군이 막고 적이 육지에 상륙하면 육군이 이를 담당하게 되어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해상의 적을 수군이 제대로 막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적과의 대항을 해상과 육지로 나누다 보니 수군이 해상의 적을 피하는 황당한 경우가 더러 있었다. 대충 해상의 적을 쫓아 다니다가 그 적군이 육지에 당도하면 멀리서 구경만 하는 일이 생겼다.

당시 수군과 육군의 갈등도 여기에 기인했다. 수군은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육군은 제대로 왜구를 막지 못한 책임을 수군에 돌렸다. 게다가 육지에 상륙한 적이 양민을 도륙하는데 멀뚱히 이를 지켜본다는 것도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모든 문제는 제도의 문제다. 제도를 개선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수군을 육지에서 근무하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해상에서도 적을 무찌르고 혹 육지로 넘어오는 적이 있다면 바로 따라와서 격퇴할 수 있고 성을 축조하여 수성전(守成戰)을 펼쳐도 승산이 있다. 성종15년(1484년)에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 각 포영(浦營)에 성을 쌓게 하였다. 이에 따라 다대포진영도 성종 21년(1490) 11월에 성을 축조한다.

다대포성의 위치는 오늘날의 부산유아교육진흥원(옛 다대초등학교)를 중심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성종 때 축성한 성은 임진왜란 때 파괴되었고 그 후에 수축한 성은 수군영이 폐진되는 1895년 상당 부분이 허물어졌지만, 그래도 일부 남아 있는 곳이 있어 그 당시의 성터를 짐작해볼 수 있어 역사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부산유아교육진흥원은 다대진 첨사영이 있던 곳이었고 지금 본관 건물자리는 객사터로 알려져 있다. 본관건물 앞에 설치된 계단은 객사와

다대1동 857-2번지 일대는 다대진 성터의 흔적이 남아있다

첨사영을 나뉘는 석축이었는데 지금은 시멘트와 나무로 계단을 만들어 두었다. 이 계단의 중앙현관 앞에 객사 주춧돌이라고 알려진 곳이 있다. 이 곳에는 높은 둥근 기둥돌(높이 59㎝, 지름 42㎝) 두 개가 있는데 원주석(圓柱石) 아래에 고맥이를 설치한 흔적(사각형 홈)이 보인다.

한편 이 돌을 객사 주춧돌이라고 하기엔 지름과 주춧돌 크기가 턱없이 작아 첨사청내 한 건물의 주춧돌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증명된 것은 없다. 아무튼 이 학교의 아랫 운동장에는 첨사청과 부속건물이 있었고 윗 운동장에는 임진왜란 당시 다대포첨사였던 윤흥신 장군의 순국을 기리는 윤공단 순절비가 있었다. 첨사청은 동서로 길게 자리 잡고 있었고 동쪽 문으로 들어갔으며 안에는 큰 기둥이 다섯 개 있었는데 그 기둥은 어린아이 3명이 손을 잡고 둘러서야 할 정도로 컸다고 한다.

아무튼 현재 다대포진성터는 겨우 흔적만 남아 있다. 그리고 왜구를

무찔렀던 튼튼했던 옛 성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다만 그 당시 첨사가 사용했고 외국 사신이 머물렀던 '다대포객사'가 현재 몰운대에 보존돼 있어 소중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을 따름이다.

다대진 군인들이 입었던 무관복(武官服)

그 당시의 흔적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다대진 군인들이 입었던 무관복이다. 왜구를 막고 국토를 지켰던 무관복은 소중한 역사의 유물이 아닐 수 없다. 그 무관복은 처음에는 다대동 동사무소(다대1 · 2동 분동 전 다대동 동사무소)에 소중히 보관하였으며, 그 후 부산대학교 박물관으로 이관 보관되었다가 지금은 안락동 충렬사에 진열되어 있다. 평일과 주말에 많은 관람객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그 당시 무관의 자취를 느껴보곤 한다. 이 무관복은 언제 누가 입었던 것인지를 알 수 없으나 마을에 풍물꾼들이 입고 춤추던 것을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서 입수하여 보관하였던 것이라 한다. 풍물꾼들에 자칫 훼손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이다.

한편 투구와 다대선생안(多大先生案)이란 책자도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다대포첨사의 명부(名簿)로 임진왜란 이후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렬사에 방문해 무관복을 바라보면, 무관의 짙은 땀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 같아 남다른 감회가 느껴진다. 그리고 무관복과 투구를 쓰고 다대진성 곳곳을 살펴보며 왜구의 침입을 대비했던 무관의 충정이 그 무관복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다. (p287 사진 참조)

03
임진왜란 때 부산포해전에서 순국한 '정운 장군'

부산포해전의 조짐

임진년 4월 13일, 아침부터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 다대포앞바다의 갈매기들이 갑자기 때를 지어 울어대고, 다대포해수욕장 근처 갯벌의 게들이 모두 자취를 감추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몇몇 나이 먹은 촌로들은 큰 태풍이 몰려올 조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게다가 다대첨사영이 있던 다대진성의 장군기가 난데없이 넘어지는 해괴한 일까지 겹쳤다. 당시 다대첨사 윤흥신은 이미 왜구들이 침입해 올 것을 한 달전부터 예상하고 있어 군병들을 단속했다.

멀리 응봉봉수대에 기별을 보내 왜의 수군의 동태를 파악하라 다시 한 번 일렀다. 군병들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응봉봉수대에 나가 있던 군졸은 멀리 대마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미 윤흥신 장군으로부터 기별을 받았고, 지난 몇 달간 초긴장 상태로 일본군 동태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다.

응봉봉수대 전경

군졸의 핏발선 눈에 가물거리는 바다 너머 개미때가 몰려오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군졸은 눈을 질끈 감았다.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옆에 있던 선임 군졸의 외침에 다시 눈을 떠야 했다.

"왜적이다!!!"

"왜선의 숫자가 너무 많아 확인이 불가하다. 엄청난 규모다!!!"

군졸은 아래 다대진성에 깃발로 기별을 보내고, 선임 군졸은 다대진성의 기별을 다시 받아 즉시 응봉봉수대의 불을 지폈다.

봉수대의 봉홧불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순식간에 조정까지 올라갔다. 다대포에 있었던 이 응봉봉수대의 봉홧불이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발발한 것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이날 왜의 대침(大侵)이 있자 경상도의 해상방비 책임을 맡고 있던 경상좌수사 박홍(朴弘)은 도주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엄청난 왜의 선단 규모에 겁을 먹은 것이다.

게다가 경상우수사(慶尙右水使) 원균(元均)은 상륙한 적군의 세(勢)가 큰 것만 보고 아예 출격조차 포기하여 전함 100여 척과 화포(火砲) 군기(軍器)를 모두 바다에 격침시켜 버리고 몇 몇 비장, 이영남(李英南, 율포만호) 이운룡(李雲龍, 옥포만호)등만 대동하여 4척의 전함에 나누어 타고는 곤양으로 피신하고 말았다.

후에 그는 전함 100여 척과 화포(火砲) 군기(軍器)를 버린 것은 적이 가져갈 것을 염려해서였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수군 만여명은 모두 해산되고 말았다. 수군전력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7].

원균을 따라간 이영남, 이운룡 만호는 싸워보지도 않고 물러난 일에 넋을 놓고 한탄했다. 원균의 명을 거부할 수 없었던 그들이지만 도저히 이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 "어찌 대장부가 적을 두고 도망칠 수 있는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게 군인의 사명일진데..."하며 울분을 삭히던 그들은 자신의 직속 상관인 원균을 찾았다.

원균과 심한 말다툼 끝에 그들은 당시 전라좌수사로 있던 이순신 장군에게 급히 원군을 요청하라는 허락을 받는다.

하지만 이 당시 왜적은 이미 경상도를 넘어 충청도를 지나 한양을 향해 총 진격중인 상황이었다. 나라의 안위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순간이었다. 또한 지상의 육군은 거의 궤멸상태였다.

경상도로부터 원군 요청을 받은 충무공은 긴급 장수회의를 열었다. "나라의 안위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으니 이를 어찌 하는 것이 좋으냐"고 좌중을 둘러보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몇몇 장수들은 "경상도를 도와줄 이유가 없다. 이는 원균의 책임이므로 우리가 나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요청거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때 끝까지 침묵을 지키며 이 상황을 지켜보던 녹도(鹿島, 전남 고흥군) 만호(萬戶) 정운(鄭運) 장군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신하로서 평소 국은(國恩)을 입고 국록(國祿)을 먹다가 이런 때에 죽지 않고 어떻게 감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것이요."라며 극언역조(極言力調:있는 힘을 다해서 간하여 말함)하였다[8]. 정운 장군의 힘 있는 말에

7) 「'징비록, 권1'」 조선선조때 영의정을 지낸 유성룡이 지은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
8) 이항복의 '백사집(白沙集)' 에서

모두가 침묵하였고, 이 말에 깊이 감명받은 충무공은 경상도 출병을 마침내 결정한다.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들은 모든 전열을 갖추고 5월 24일 오전 2시 전라좌수영인 여수를 출발하여 장도에 오른다. 임진왜란의 전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충무공의 첫 번째 전투의 시작이었다.

충무공은 그 유명한 해전인 옥포(玉浦), 적진포(赤珍浦), 당포(唐浦), 당항포(唐項浦) 등에서 대승하고 7월 6일에는 한산도(閑山島)에서 임진전세(壬辰戰勢)를 역전시킬 대성과를 거두었다. 이 대첩의 결과, 왜 수군의 서해진출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동시에 그들 육군의 진출도 어렵게 한다. 뿐만 아니라 왜 본국과의 교통과 보급이 위협을 당하게 되어 왜의 군사는 반도에서 고립당하고 만다.

그런 한편 우리 측은 전라, 충청도로부터 황해, 평양에 이르는 군량의 수송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한산도 패전 이후 해안에 성보를 수축하고 조선군과 대비만 할 것이지 해상에서의 전투는 금하는 율령을 내린다. 8월 1일 충무공 군진은 전라우수사 이억기(李憶祺)의 군과 합류하고 여수(좌수영) 앞바다에 집결하여 전선(戰船) 74척, 협선(挾船, 전투능력이 없는 배임) 92척, 도합 166척으로 연합함대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전라수군은 연일 맹연습을 거듭하여 전의를 불태웠다. 이윽고 경상우도 순찰사(巡察使) 김수(金수)로부터 통첩(通牒)이 전달되었다.

"위로 쳐 올라갔던 적의 무리들이 낮에는 숨고 밤이면 행군하여 양산강(梁山江, 구포쪽으로 흐르는 강, 오늘의 낙동강 본류), 김해강(金海江, 김해쪽으로 흐르는 강, 서낙동강)등지로 연속하여 내려오는데 짐짝들을 가득히 실은 것이 도망가려는 자취가 현저하다."

공문을 받은 충무공은 8월 24일 부산 방면으로 출동을 결정한다. 바로 부산포해전의 시작이었다.

부산포해전과 정운 장군

8월 25일, 충무공의 수군은 사량(蛇梁, 통영군 사량면) 앞바다에서 경상우수사 원균과 합세한다. 임진왜란 초에 배를 100여척이나 수몰시키고 도망친 원균에 대한 신임은 이미 땅에 떨어져 충무공의 수군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 몇몇 휘하의 장군들은 그를 제외하고 단독 작전을 펼치자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공동 작전은 이미 상부에서 하달되었고 원균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원균이 지휘한 경상우수군의 전선 척수는 사료에 나타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척수는 알 수 없으나 이전 시기 7척보다는 늘어난 10척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00척을 수몰시키고 10여척으로 싸우자고 나섰으니 원균 스스로도 부끄러웠을 것이다.

충무공과 원균은 이후 5일 동안 수색작전을 펼치면서 부산진쪽으로 전진을 계속했으나 일본함대를 발견하지 못했다.

출전 6일째인 8월 29일, 동래 땅 장림포(현재 사하구 장림)에서 처음으로 일본의 대선 4척과 소선 2척을 만나 이를 모두 격침시켰다. 이중 5척은 경상우수군이 1척은 전라좌수군의 우후 이몽구(李夢龜)가 격침시켰다. 작은 성과였지만 경상우수군 원균의 입장에서는 큰 성과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가덕도 북쪽에서 전선을 정박시켰다. 적의 동태도 살피고 병사들의 휴식을 위해서 였다. 9월 1일, 새벽에 부산포를 향해 출발하여 아침 8시경 몰운대를 지났는데 이때 강한 동풍과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크게 흔들렸다. 수군들이 모두 잔뜩 긴장하여 풍랑에 배가 깨지지 않게 긴급히 조처했다.

간신히 함대를 수습한 뒤, 전선은 계속 동진(東進)했다. 다대포 앞 바

다 화준구미(花樽龜尾, 화손대와 고리섬사이의 해협)에 이르러 대선 5척, 다대포에서는 대선 8척, 서평포에서는 대선 9척, 절영도 앞바다에서는 대선 2척을 만나 이를 모두 격침시켰다. 수군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이후 다시 절영도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일본 함대를 발견하지 못한 조선함대는 작은 배를 보내어 부산포를 정탐하게 한다.

그 결과 부산포에 일본군선 470여 척이 정박 중인 것을 발견했다. 이것을 단번에 깨뜨리면 큰 전과를 얻게 된다. 충무공 이하 조선 수군은 이들을 완전히 몰아낼 결심을 하고 총공격을 감행하였다. 이 날 새벽부터 계속된 항해와 몇 차례의 전투를 치룬 뒤였기 때문에 부산포해전이 시작되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뜬 대낮이었다.

우부장(右部將) 녹도만호 정운, 구선돌격장(龜船突擊將) 군관(軍官) 이언량(李彦良), 전부장(前部將) 방답첨사(防踏僉使) 이순신(李舜信), 중위장(中尉將) 순천부사(順天府使) 권준(權俊), 좌부장(左部將) 낙안군수(樂安郡守) 신호(申浩) 등이 맨 먼저 돌진해 들어가 왜의 선봉선(先鋒船) 대선 4척을 맞아 모두 격침시키고 장사진(長蛇陣)으로 돌진하면서 왜진영을 무찔러 나갔다.

이때 왜군은 모두 황급히 산위에 올라가 여섯 군데로 나누어 진을 치고 내려다보면서 조선함대를 향해 철환(鐵丸)과 화살을 쏘면서 반격해 왔다. 왜군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왜냐 하면 충무공의 위대한 이름을 익히 들어왔고 자칫 부산포해전에 모두가 전사할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 때문이었다.

한편 이에 맞선 조선함대는 천자총통과 지자총통, 불화살 등으로 강력한 공격을 펼쳐 적선 100여 척을 격파하고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켜 일본 측에 큰 손실을 주었다. 대단한 전공이 아닐 수 없다. 수군의 사기는

정운공 순의비

하늘을 찔렀고 왜군의 사기는 꺽어질 대로 꺽어졌다.

이 날의 부산포해전은 작은 함대를 이끌고 약 3배에 달하는 대규모 세력에 맞선 해전이었을 뿐 아니라 일본수군의 근거지를 공격한 의미 있는 일전이었다. 전투결과는 조선함대가 왜의 군선 100여 척을 격파하는 등 대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조선 수군의 피해도 작지 않았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 가장 아끼는 장수중 하나였던 정운 장군이 이 해전에서 우부장으로 선봉에 서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것이다. 그는 임진란 초기에 경산우수영의 원군 요청을 강력히 주장했던 충직한 용장이었다. 정운 장군은 항상 선봉에 서서 싸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부산포 해전이 있던 그 날 아침, 이순신 장군이 정운 장군을 따로 불러 이번 해전에는 참여 하지 말 것을 명하였다. 이유는 연일 이어지는 해전에 피로가 누적된 정운 장군의 손발이 퉁퉁 부어올랐고, 감기까지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운 장군은 이를 강력히 거부했다.

“장수가 나라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찌 전쟁을 회피하겠습니까. 제 한 몸이 부서져 물고기 밥이 되더라도 이 전쟁의 끝을 꼭 보고 죽을 것입니다.”

정운 장군의 피 끓는 충의에 이순신 장군도 더 이상 말문을 열 수가 없었다. 몇몇 부장들도 정운 장군의 출병을 막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배에 올라탄 정운 장군은 평소보다 더욱 큰 소리로 수병들을 독려했다.

“우리의 부모형제를 유린한 원수 왜적들을 단 한명도 남겨 놓지 마라.

조선땅에서 왜적의 씨를 말려라!!"

수군들의 손에 불끈 힘이 들어갔다. 전선을 출항하고, 이윽고 몰운대 앞바다를 지날 때였다. 경치가 좋기로는 최고로 알려진 몰운대를 바라보던 정운 장군이 문득 휘하 부관에게 물었다.

"여기의 지명이 어찌 되오?"

"몰운대(沒雲臺)라 하옵니다."

"몰(沒) 운(雲) 대(臺)...라, 내 이름 정운(鄭運)의 운(運)과 몰운대의 운(雲)이 같은 음인 것을 보면 내가 여기서 죽을 것이다(我沒此臺)"

이 말을 들은 휘하 부관들이 대경실색하였다.

"장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말씀을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음속에서도 그 생각을 부디 거두어 주소서."

정운 장군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왜적의 씨를 말리는 것을 끝내 보지 못할 것 같다는 아쉬움의 미소였을 것이다.

정운 장군은 그의 말처럼 몰운대 앞바다에서 장렬하게 전사했다. 왜적이 쏜 불화살을 맞고 눈을 감았다.

그는 조선 수군의 최고의 무장 중 하나였고, 이순신 장군의 오른팔이었으며 나라를 위해 초개처럼 목숨을 바친 위대한 장군이었다. 지금도 몰운대 앞바다엔 정운 장군의 영혼이 일본을 굽어보며 눈을 부릅뜨고 있을 것이다[9].

9) 8월 24일 여수 본영을 떠나 전라, 경상 연합함대가 부산포 해전을 치루는 일정 등을 '난중일기'와 '부산파왜병장계(釜山破倭兵狀啓)' 그리고 여타 문헌들에서 간추려 기록하였다.

정운 (鄭運, 1543 ~ 1592)

정운(鄭運)은 영암 출신으로 조선 중종 38년(1543)에 태어났다. 28세에 무과(武科)에 올라 30세에 거산찰방(居山察訪)이 되었고 그 후 웅천현감(熊川縣監), 제주판관(濟州判官) 등을 지냈다. 뛰어난 지략과 타고난 용맹함으로 일찍이 이름을 떨쳤지만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 때문에 윗사람과 불화(不和)하여 물러나는 일이 잦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해 전에 유성룡의 천거로 녹도만호(鹿島萬戶)가 되었고 이듬해 왜란이 발발하자 이순신 장군의 휘하에서 종군하였다. 그는 항상 부하와 동료에게 "물러나 욕되게 사는 것보다 나아가 영광스럽게 죽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정운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하는 옥포해전, 당포해전, 한산도대첩 등 수차례의 전투에서 항상 선봉에 서서 용맹스럽게 싸웠고 이순신 장군의 신임은 매우 두터웠다.

이순신 장군은 "녹도만호 정운은 직무에 충실하고 담력이 있어서 더불어 일을 의논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왜란이 일어난 이래 의기를 일으켜 나라를 위해서 몸을 잊고 조금도 해이함이 없이 국방에 힘썼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는 정운 등 몇 명이 있을 뿐이었다. 세 차례의 접전에 언제나 선봉이 되었고, 이번 부산대전 때에도 몸을 던져 죽음을 잊어버리고 앞에 나아가 적의 소굴을 무찌르며 종일토록 교전하였으며, 어떻게나 쏘아댔던지 적들이 감히 꼼짝도 못하였으니, 이는 오직 정운의 힘이었다"고 했다.

이순신 장군이 이처럼 크게 칭찬한 것으로 보면 장군이 가장 아끼는 부하 장수중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는 1592년 9월 부산포해전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우고 전사하였다. 적이 쏜 화살 또는 총알 때문이었다는 말도 있고 포탄이 떨어져서 순절했다는 설도 있다.

우산(牛山) 안방준(安邦俊)이 지은 《부산기사(釜山記事)》에는 "국가를 다시 찾게 된 것은 호남을 잘 보전하였기 때문이고, 호남을 잘 보전한 것은 이순신의 수전에서 말미암은 것이며, 이공의 수전은 모두가 녹도만호 정운의 용력에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위대한 장수로써 그의 면모를 짐작할 수 있다. 그의 묘소는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오소치에 있다.

정운 장군이 순국한 후 조정에서는 그 공을 높이 평가하여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추증(追贈)하고 뒤에 다시 병조참판(兵曹參判)을 가증(加贈)하여 '충장(忠將)'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녹도에 있는 사당(祠堂)에 합사(合祀)되고 고향인 영암에는 효종 3년(1652년)에 충절사를 세우게 하였다. 이 사당에는 그 후 30년만에 숙종이 편액(扁額)을 하사하였다.

공이 전사한 곳은 몰운대 앞바다였다. 따라서 몰운대 산위에는 공의 사적을 기리는 정운공순의비(鄭運公殉義碑)가 세워져 있다. 또 동래구에 있는 충렬사에도 합사되어 공의 순절을 기리고 있어 후세의 옷깃을 여미게 한다.

04
천하절경 다대포해수욕장과 다대포해변공원

다대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몰운대와 화손대를 끼고 다대팔경을 이루는 다대포해수욕장은 넓은 백사장과 자연 습지, 아름다운 모래톱과 유명한 일몰 풍경으로 각지의 사진작가들을 불러오는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곳이다. 모래펄의 숭숭 뚫린 구멍 사이로 작은 게들이 들락날락하여 아이들의 좋은 놀이터가 되기도 한다.

2008년에서 2015년까지 시행된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을 통하여 볼거리와 놀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형태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다대포해변공원이 조성되어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는 음악분수인 꿈의 낙조분수를 비롯하여 각종 공연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푸른광장, 징금다리와 출렁다리 등으로 재미있고 예쁘게 조성된 해수천과 고우니 생태길, 백사장에 방사림으로 조성된 시원한 솔밭 공원 등을 갖춘 다대포해변공원은 다대포의 절경을

다대동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다대포해수욕장과 꿈의 낙조분수

배경으로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외지의 관광객에게도 멋진 관광 명소가 되어 있다.

또, 매년 여름 해변의 7080콘서트, 바다축제 등 각종 공연과 행사가 열리고 부산비엔날레의 일환으로 바다미술 전시가 열리기도 하는 다대포 해변공원은 이제 사하의 공간을 넘어 부산의 대표적 휴식처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05
기네스북에 오른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화려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에 맞춰 분수가 춤을 춰요"

"분수 물줄기가 발을 따라 움직여요"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이곳을 찾은 이들의 즐거운 목소리다.

'세계 최대의 바닥음악분수(기네스월드레코드 등재 2010. 03. 27)', '연간 130여만명이 찾는 서부산의 랜드마크' 많은 미사여구도 많지만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를 표현하는 말은 이 두 마디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2009년 6월에 개장한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는 웅장한 규모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는 최초로 음악과 조명에 맞춰 물줄기가 춤을 추는 음악분수로서 미국 라스베이거스나 싱가포르 센토사 등지에서 볼 수 있었던 환상적인 음악분수공연을 펼친다. 화려한 조명과 어우러져 음악에 맞춰 분수가 춤추는 광경은 말이나 사진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장관이다.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는 총면적 2,538㎡에 최대 물높이 55m, 둘레 200m, 담수량 2,040t, 노즐수 1,046개, 조명시설(LED) 511개로 세계 최

고 ·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분수쇼에서는 200여곡 이상의 분수연출음악을 최첨단 스피커를 통해 웅장하게 즐길 수 있다. 또한 춤을 추는 분수에 맞춰 불꽃쇼와 함께 스토리텔링 형식의 음악드라마도 새롭게 선보이는 등 잠시도 지루할 틈이 없다. 이곳을 찾는 이들을 위해 1000여석의 관람스탠드는 물론 분수에 젖은 옷을 말릴 수 있는 대형 열풍기도 완비하고 있어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분수쇼가 열리지 않을 때는 수조와 노즐이 노출되지 않아 문화행사, 공연, 놀이시설 등 다목적 광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를 비롯하여 다대포해수욕장은 2014년 생태탐방로, 해수천, 방사림 등을 갖춘 해변관광공원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계획이다. 몰운대 낙조공원, 아미산 전망대, 강변대로 선셋로드(Sunset Road), 을숙도 생태공원 등 다양한 친환경 관광시설들로 해양관광벨트를 구축함으로써 부산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될 사하의 모습을 그려 본다.

06
주민들의 생명의 젖줄 '다대샘'

다대동 샘터
• 위치 :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옛. 다대초등학교)
• 현재 민방위급수 시설로 이용되고 있음.

옛 첨사영 밑(부산유아교육진흥원 정문 높은 담벼락)에는 '다대샘' 이 있다. 이 샘은 조선 영조(서기 1751년) 당시 다대첨사 구정환이 수맥을 발견하여 조성한 것으로 옛날부터 다대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해 온 유서 깊은 샘이다. 지금은 상수도를 설치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수량은 무진장이어서 종일 길어내어도 한밤중에는 물이 철철 넘쳐서 물줄기가 끊이질 않았다 한다. 샘 남쪽 길가 10평 남짓한 곳에 공동세탁장도 만들어 마을아낙네들이 공동 빨랫터로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메워지고 집을 지어서 터(다대본동 4길 42호)만 남아 전할 뿐이다

옛날 상수도 설비가 없었을 때에는 700여 세대 4,000여 주민이 이 샘 하나를 식수로 이용하였고 어업용수까지 부족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니 다대포를 먹여 살린 젖줄이 바로 '다대샘' 이었다.

07
박영효의 묘터는 과연 천하명당이었을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죽어서도 좋은 곳에 묻히고 싶은 모양이다. 죽은 사람이 무엇을 알까 만은 동양의 풍수지리 사상은 죽음에 임박한 사람마저도 욕심을 품게 만드는 모양이다. 이 사연은 살아서도 영달을 위해서 살았고, 죽는 순간에도 자기 자손의 발복을 꿈꿔왔던 한 사람, 박영효(1861~1939)의 다대포 묘지에 대한 이야기다.

박영효는 구한말의 정객이었으며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였다. 13세 때에 철종의 딸 영혜옹주(永惠翁主)와 결혼하여 금릉위(金陵尉 : 임금의 사위에게 주는 작위)가 되었으며, 20세를 전후하여 친척이었던 박규수(朴珪壽)의 소개로 당시 개화 청년이었던 김옥균(金玉均), 서광범(徐光範), 홍영식(洪英植) 등을 만나 친일적인 개화당(開化黨)을 조직하였다.

1882년(고종 19년) 9월에는 이해 6월에 일어났던 임오군란의 사후수습을 일본정부와 협의하기 위하여 특명전권대신 겸 수신사로 일본으로 가게 되었으며 이때 그는 특명전권대사임을 나타내는,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사괘(太極四卦)의 깃발을 사용하였고 이것이 오늘날 태극기의 효시가 되었다. 그는 한성부 판윤으로 있을 때 개화당 인물들과 모의하여 1884년(고종 21년) 갑신정변(甲申政變 : 1884년(고종 21) 급진 개화파(開化派)가 청나라의 속방정책에 대항하여 자주독립과 자주근대화를 꾀하며 일으킨 정변)을 일으켜 수구파(守舊派)를 제거한 뒤 정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그의 정권은 청나라의 개입으로 3일밖에 영위되지 못하여 후세 사람들은 이때 갑신정변을 '3일천하' 라고 한다. 그 후 박영효는 일본으로 망명한다.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정부의 주선으로 귀국하여 제2차 김홍집(金弘集)내각의 내부대신으로 입각하였다. 그는 나름의 자주적 개혁을 꿈꾸었으나 1895년 역모에 연루되면서 다시 일본으로 망명한다. 이완용이 득세하던 시기인 1907년에는 또 궁내부대신에 임명되었다가 고종 양위에 찬성한 정부대신들을 암살하려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1년간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일제 강점 이후 후작의 작위를 받았으며, 1911년 조선귀족회 회장, 1918년 조선은행 이사를 역임하였다. 3 · 1운동이 일어난 뒤 일제의 이른바 문화통치에 순응하여 친일 또는 개량주의적 단체와 관계를 맺었으며, 1920년 동아일보사 초대사장에 취임하였다. 1926년 중추원의장, 1932년 일본귀족원 의원을 지냈으며, 1939년 중추원 부의장 재직 중 사망하였다.

그가 언제부터 다대포에 가족 묘지를 만들려고 했는지는 그 연대를 알 수 없으나 다대포 토착민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수차례 배를 타고 일본을 왕래하면서 보니 다대포의 지세가 명당이어서 이곳에 가족 묘지를 만들 결심을 하였다고 하며 지관에게 명하여 좌청룡 우백호에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중앙 지점을 찾게 한 것이 공교롭게도 다대포 당

라파요양병원 – 박영효 묘가 있었던 자리

산으로 낙착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이 자리가 다대포의 지신과 마을의 수호신을 모신 당집이 있는 당산이어서 민심의 동요가 우려되자 민심 수습차 1913년 당시 개교 10년차에 이르러 재정난에 봉착해 있던 다대사립실용학교에 거금 1,200원(현 1억 2천만에 해당)을 운영비조로 기부하였는가 하면 다음해인 1914년 8월에는 학교소유의 재산이었던 다대포 북산, 서산, 솔섬을 매입하고 그 대금 3,300원(학교 설립 자본금 총액이 1,600원 이었음)을 학교운영비로 쓰도록 한 것을 보면 이 땅이 어떤 자리였을까를 짐작하게 한다. 결국 그는 다대포 당산의 당집을 산기슭으로 옮기고 1939년 그 당산에 묻혔다.

당시 장사행사 때 이곳 다대포는 대단했다고 한다. 박영효의 시신을

담은 관구(棺柩)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특별열차로 이송이 됐고, 영구차로 다대포로 이동됐는데, 그 모양을 구경하기 위해 다대포 일대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얼마나 명당이길래 이곳까지 와서 묘터를 쓰느냐고 수군거렸고, 박영효의 자손들은 크게 영달할거라고 믿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영 딴판이었다. 1958년 박영효의 장손 박찬범이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불하 받은 선조 산소까지 팔아먹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무덤터의 위치는 다대1동주민센터 서쪽으로 50미터정도 떨어진 곳으로 현 라파요양병원의 대지가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박영효의 묘터는 명당이었을까. 지관(地官)들의 의견은 각기 다르겠지만, 결론은 명당이 아니었을 것이다. 명당이었다면 파묘(破墓)가 되고 자손이 몰락할 수가 없을 것이다. 혹자는 설혹 이곳이 명당이라고 해도 결코 발복(發福 : 명당의 기운이 발현되어 자손에게 복으로 미치는 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풍수의 이론 중에 소주길흉론(所主吉凶論)이라는 것이 있다. 중국 명나라의 서선계, 서선술 형제가 쓴 '인자수지(人子須知)'에 나오는 대목이다. 즉 길함과 흉함은 모두 주인을 정해놓고 있다는 뜻이다.

다대포는 명당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자신의 영달만을 목적으로 한 평생을 살아온 박영효가 혹시 명당을 얻었다 해도 그가 몸을 누인 혈자리가 과연 정확한지는 의문이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윤흥신 첨사와 정운 장군과 그때 함께 순국했던 모든 군민들의 영혼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찌 그 묘터가 발복할 수 있겠는가.

08
구렁이에 얽힌 사연

역사가 깊은 마을에는 전설이 많고 그 전설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설화로 각색되며 그 이야기의 중심이 동티 맞는 것이 되면 그 주인공에는 어김없이 땅을 지키는 구렁이(지킴이)가 등장한다.

동티란 땅을 움직이게 한다는 동토(動土)가 변한 순수한 우리말로 우리말 사전에는

"흙. 또는 바위를 다루는 역사(役事)를 하다가 잘못 건드려 지신의 노함을 입어 재앙을 받는 일이나, 공연히 아니 할 일을 하여 스스로 해를 입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설화는 때때로 사실과 연관되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한다.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한일 국교가 정상화 되자 1907년 이토오히로부미에 의해서 일본에 인질로 끌려갔던 영친왕 이은(李垠)공이 1963년 일본인 비 이방자 여사와 함께 환국하여 종묘에서 선대 조상에게 제를 올

릴 즈음 난데없이 종묘 천정에서 큰 구렁이가 마루바닥에 떨어져 모든 사람들이 혼비백산 하였고 이 사건이 도하 신문에 기사화되자 세상 민심이 묘하게 돌아 흉흉했던 일이 있었다.

이 일은 인적이 드문 종묘 같은 곳에서 설치류와 새알 등을 주식으로 하여 살아왔던 능구렁이가 주위가 시끄러워지자 실수하여 추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시점이 공교로워 앞으로 세월이 흐르고 나면 설화로 각색될 소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대포에도

- 야망대 소나무를 베다가 죽은 사람 이야기
- 바다낚시에 걸려온 다대사람 시신의 꿈 이야기

등등 현재 설화로 진행되어가는 이야기들이 있으나 가장 최근에 있었고 다대사람들에게 자주 회자되는 구렁이에 얽힌 사연 하나를 스토리텔링 해 보기로 한다.

다대 5지구 구렁이에 얽힌 사연

몰운대 5지구 아파트를 건축할 때 일어난 일이다.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선 터를 평평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포크레인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포크레인 기사가 이곳 아파트의 터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큰 바위가 하나 나왔다. 그날 작업시간은 다 마쳐서 그는 다음날 바위를 제거할 생각을 품고 집으로 퇴근을 했다. 그런데 그날 밤, 그의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흰옷을 입은 잘 생긴 할아버지가 나타나 “제발 며칠만 참아 달라. 곧 이사할 것이다. 남편에게 꼭 이 이야기를 전해 달라”고 신신당부하더라는 것이다.

그 전부터 이 부인은 가족들 사이에서 영험한 꿈을 꾸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래도 포크레인 기사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고 아침에 집을 나서려고 했는데, 아내가 막무가내로 잡았다. "제발 부탁이니, 꼭 이번 한번만 나의 이야기를 믿어 달라"고 아내는 신신당부를 했다. 그 기사는 반신반의하면서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이번 한번만큼은 당신 뜻대로 하겠다"며 출근하기를 포기했다. 그리고 다른 동료 기사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려줬다. 하지만 작업일정을 어길 수가 없었던 동료 기사들은 "무슨 황당한 이야기냐"며 작업을 그대로 진행했다.

그 사람대신 일을 진행하게 된 기사는 큰 바윗돌 주변의 흙을 파내려가기 시작했다. 주변의 흙을 다 치우고 마침내 그 바위를 끄집어내니, 그 바위 밑에 구렁이 가족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그는 그 구렁이들을 살려서 치울 생각을 하지 않고, 포크레인으로 바로 구렁이를 걷어냈다. 그러자 그 구렁이 중에 가장 큰 구렁이가 몸이 찢어지면서 사방으로 피가 튀었다. 포크레인 기사의 몸에도 그 피가 묻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포크레인 기사는 그 피가 몸에 묻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눈을 뒤집으면서 기절한 뒤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다. 즉사한 것이다.

예부터 큰 바위나 큰 나무는 함부로 손대지 말고 성대히 제사를 지낸 후 주변에 살아있는 짐승들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조심해서 작업해라는 말이 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큰 구렁이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 이런 참혹한 화를 당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첫 번째 포크레인 기사의 부인은 참으로 영험한 사람이라는 탄복과 '부인의 말을 잘 들으면 남편의 생명도 구한다'는 우스갯 소리도 전해진다.

PMT
안전산업

번영을 꽃피웠던
교역의 중심지

구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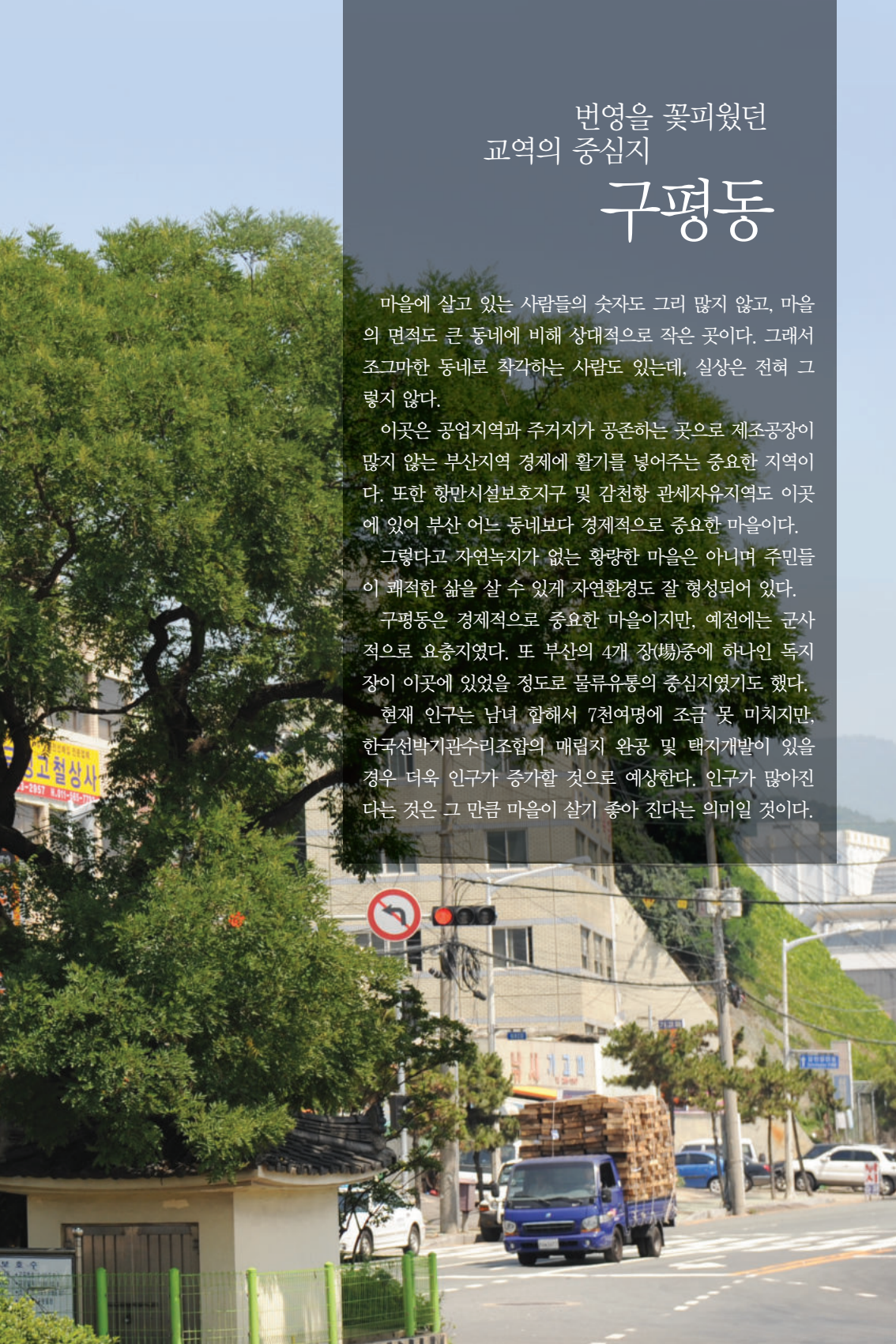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그리 많지 않고, 마을의 면적도 큰 동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곳이다. 그래서 조그마한 동네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곳은 공업지역과 주거지가 공존하는 곳으로 제조공장이 많지 않는 부산지역 경제에 활기를 넣어주는 중요한 지역이다. 또한 항만시설보호지구 및 감천항 관세자유지역도 이곳에 있어 부산 어느 동네보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마을이다.

그렇다고 자연녹지가 없는 황량한 마을은 아니며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게 자연환경도 잘 형성되어 있다.

구평동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마을이지만, 예전에는 군사적으로 요충지였다. 또 부산의 4개 장(場)중에 하나인 독지장이 이곳에 있었을 정도로 물류유통의 중심지였기도 했다.

현재 인구는 남녀 합해서 7천여명에 조금 못 미치지만, 한국선박기관수리조합의 매립지 완공 및 택지개발이 있을 경우 더욱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 만큼 마을이 살기 좋아 진다는 의미일 것이다.



01
구평은 군사적 요충지였다

1970년, 구평동 모습

구평동의 본동은 구서평(舊西平). 구시평, 구평이라 불렀다. 조선말에는 동래부에서 부산부로 편입되었다가, 1914년 동래군 사하면에 편입되었다. 1942년 부산부의 구역확장에 따라 부산부에 편입되었다. 광복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곳에는 과거 서평포라는 곳이 있었는데, 감내포 서쪽에 자리잡고 있었던 포구였다. 서평포는 조선 숙종 3년부터 만호영이 설치된 군사상의 요충지였다. 서평포는 구평동의 '성포' 북동쪽 바닷가 근처에 있었다. 성포(城浦 : 포구에 구축한 城地)는 다른 말로는 성개라 불렀다. '개'는 한자로는 포(浦)가 되며, 강이나 내에 조수가 드나드는 곳을 일컫는다. 지금의 구평동 본동을 구서평이라 하다가 구평이 된 것은 결국 서

평포에 기인한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서평포의 서평을 구평이라 한데는 신평동과의 혼돈을 피하기 위함도 있었을 것이다. 이곳 구평동에는 성포의 석성이 만들어지기 전에 축성된 토성의 자취가 최근까지 남아 있었다. 구평동 동남쪽 바닷가에 흙으로 쌓은 토성이었다. 이를 구평의 옛 이름 그대로 서평성이라 했다.

바다와 육지가 접한 군사요충지인 이곳에 성이 언제 쌓여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토성의 축조상태와 이곳에서 출토된 토기가 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어 신라시대부터 성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성이 언제부터 있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문헌기록은 접할 수 없으나, 이 성은 조선시대 때도 서평진성이라고 불렀을 것이고 임진왜란 때 무너진 성도 이 성이

1970년, 구평동 모습

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진영(鎭營)이 있었을 것이다. 이 진영은 서평포진(西平浦鎭)이라고 불렀는데, 조선조의 세종 때까지만 해도 부산첨사영에 소속된 하나의 작은 보성(堡城)에 지나지 않았다. 이웃의 다대포진이 만호영(萬戶營)에서 첨사영으로 승격되어 무관 당상관 정3품인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가 임명된데 비하면 서평포진은 무관 종9품을 수장(守將)으로 한 작은 진보(鎭堡)였다. 그러던 것이 삼포왜란(1510)에 이어 을묘왜변(1519)이 있은 후 진관제의 개편에 따라 만호영이 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1592) 이후 진영을 유지할 수 없어 다대포진의 성내로 이전하였다가 1668년(현종9)에 다대진성이 비좁아 다시 옛 영지의 남쪽 2리(里) 지점으로 돌아왔다. 그 후 1677년 (숙종3)

에는 서평포 만호영이 왜관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수장의 관계(官階)가 낮아서 체통이 서지 않는다 하여 무관 종4품이 수장이 되어 만호영으로 승격되었다.

서평포 만오영은 다대진 직할의 만호영으로, 만호 아래 군관 8명, 진리(鎭吏) 6명, 지인(知引) 3명, 사령(使令) 2명이 있었으며 보유한 병선은 전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伺候船) 2척이었다. 그 중에서 전선 1척에 딸린 군사는 감관 1명, 지구관 2명, 교사(敎師) 5명. 토사부(土射夫) 18명, 포수(砲手) 24명, 능로군(能櫓軍) 145명, 분방사부(分防射夫) 106명, 방군(防軍) 800명이었다. 이 밖에 서평진에는 배의 건조에 쓰이는 목재를 조달하기 위해 벌목(伐木)을 금지하는 봉산(封山) 1개소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이 서평성지는 1970년대 이후 이곳에 한보철강 부산공장과 고철 야적장, 항만물양장이 건설되면서 지금은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이곳은 군사적 요충지로 군대가 주둔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부산의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중요한 생산거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현대의 전쟁은 경제전쟁이다. 살아남지 않으면 바로 절벽으로 떨어지는 국가대 국가의 무한경쟁시대다.

구평이 예전에는 만호영으로 왜적을 방비했다면, 지금은 생산기지로 국가와 민족을 지키고 발전시키고 있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만호(萬戶)

조선시대 각도(各道)의 진(鎭)에 딸린 종사품(從四品) 무관직(武官職)이다. 원래는 몽골(蒙古)의 병제(兵制)를 모방한 고려의 군직이었다.

개경(開京)의 순군만호(巡軍萬戶)를 비롯하여 합포(合浦: 마산) · 전라(全羅) · 탐라(耽羅) · 서경(西京) 등에 5개 만호가 증설되었다. 그러나 지방의 만호는 거느리는 군대도 없이 금부(金符)만을 차고 다니는 유명무실한 것이었다.

본래 만호(萬戶) · 천호(千戶) · 백호(百戶) 등은 그 관할하는 민호(民戶)의 수를 표시하는 말이었으나, 후에는 그 민호의 수효와는 관계없이 진장(鎭將)의 품계를 나타내는 말로 변하였다. 육군에서보다는 수군(水軍)에서 이 관직명이 오래 남아 있었다.

조선 전기에는 만호 · 부만호(副萬戶) · 천호 · 백호 등의 관직을 두었으나, 점차 정리되었다. 1458년(세조 4) 영 · 진체제가 진 · 관체제(鎭管體制)로 바뀌면서 동첨절제사 · 만호 · 절제도위 등이 진을 관할하게 되었다. 대개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와 절제도위는 지방수령이 겸직했으나, 만호만은 무장(武將)을 따로 파견하여 일선을 지키는 전담 무장이 되었다. 경국대전을 보면, 수군만호는 경기도 5원, 충청도 3원, 경상도 19원, 전라도 15원, 황해도 6원, 강원도 4원, 함경도 3원과 평안도에는 병마만호 4원을 두었다.

임기는 부임지에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을 때 900일이며, 대개 무예를 시험해 임명했으나 무과 합격자나 겸사복 · 내금위는 시험에 관계없이 임명했다. 한편 이 만호가 관할하는 곳을 만호영(萬戶營)이라고 불렀다.

자료에 나타난 구평동

1740년에 간행된 '동래부지' 관방조에 의하면, 서평포는 부(府)의 남쪽 45리에 있었다며 옛날에는 수권권관(權官)이 있었다고 전한다. 또 임진왜란으로 피폐해져 진을 유지할 수 없어서 다대포성 안으로 옮겼다고 한다. 1668년 다대포성이 좁다는 이유로 옛터 근처로 다시 옮겼으나, 1677년 왜관에 너무 가깝고 권관의 품계가 낮다는 감사의 장계에 따라 만호로 승격되었다고 한다.

'동래부지' 성곽조에 의하면, 구서평성은 부의 남쪽 40리에 있었다 하고 석축으로서 지금은 없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동래부지에 의하면, 독지리는 사천면 관내에 있으며 관문에서 30리 거리에 있었다고 적혀 있다.

1895년에 작성된 '다대진지'를 보면, 당시 구서평은 원호 30호, 인구 100명(남자 45, 여자55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큰 샘이 동쪽 성 안에 있는데 물이 달고 차가우며 큰 가뭄에도 마르지 않아 다대진 아래와 서평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이 물을 길어다 먹는다고 했다.

《다대진사례》에 보면, 구평에 목장이 있었다고 전한다. 1904년에 편찬된 '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에 의하면, 사하면 관내에 서평동이 있다며 당시 서평동의 호수는 13호라고 적혀 있다. 또 박, 최, 추, 전(田)씨 등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1910년에 간행된 '한국수산지' 2집에 의하면 당시 구서평포에는 50호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어선은 7척이고 어전어장은 8개소가 있었다고 적고 있다. 주요 수산물은 청어, 대구, 갈치, 조기, 붕장어, 갯장어, 우무가사리, 미역, 김 등이었다고 한다.

02
풍어제를 올렸던 구평동의 '당집'

뱃사람들의 바닷길은 죽음과 동행하는 길이다. 태풍과 비바람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수시로 넘나들게 만들어 한순간에 어촌마을 모든 여인네를 과부로 만들기도 한다. 만선과 풍어 또한 어촌 마을의 생명과 연결된다. 잡지 못하면 죽는다. 어촌 마을사람들은 바다 때문에 먹고 살지만 또 바다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바다는 고맙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존재다.

'당집'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무속신앙은 이러한 어촌의 정서를 잘 나타내고 있다. 물질을 나가기 전에 어촌 마을사람들은 반드시 '당집'에 들려 풍어제를 지낸다. 물질의 무사안녕과 만선을 기원하는 제의다.

구평동은 어촌 마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집이 있었다. 당집 안에는 산신도를 걸어둔 신당이 있어 마을의 안녕을 축원하는 동시에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을 모시고 있었다. 풍어제는 엄격한 유교식 제사와는 달리

할매당집

무당이 춤과 노래를 곁들인 굿을 하여 제사를 축제분위기로 이끈다. 이 제의는 마을주민이 함께 참여해 화목과 협동을 다지며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을축제다. 굿판에서 벌어지는 익살스런 대화와 몸짓이 예술성을 띠고 있다. 이 속에서 마을사람들은 다시 한 번 단합된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물질하러 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예전에는 이러한 풍어제와 당집 등은 미신으로 치부됐으나 요즘은 다르다. 풍어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82호로 등록돼 있을 정도로 우리민족의 정서가 잘 녹아 있는 마을제사로 여겨지고 있다.

03
마을 축제였던 독지(禿旨)장터

장이 서는 날은 마을 축제일이다. 주변 몇 십리에 걸쳐서 장꾼들과 시장손님들이 찾아든다. 숟가락, 냄비를 팔고 사고, 부인과 아들을 생각하며 옥비녀와 신발도 만지작거려본다. 옆동네에 장가간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 거나한 막걸리판도 벌어진다. 때론 싸움판도 벌어지는데, 이도 큰 문제만 없으면 장날의 재미다.

지게에 한 가득 장본 물건을 짊어지고 돌아온 집에서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는 것도 장날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망개떡이라도 하나 안겨주면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진다.

구평동에도 이러한 장날이 있었다. 1832년 간행된 《동래부읍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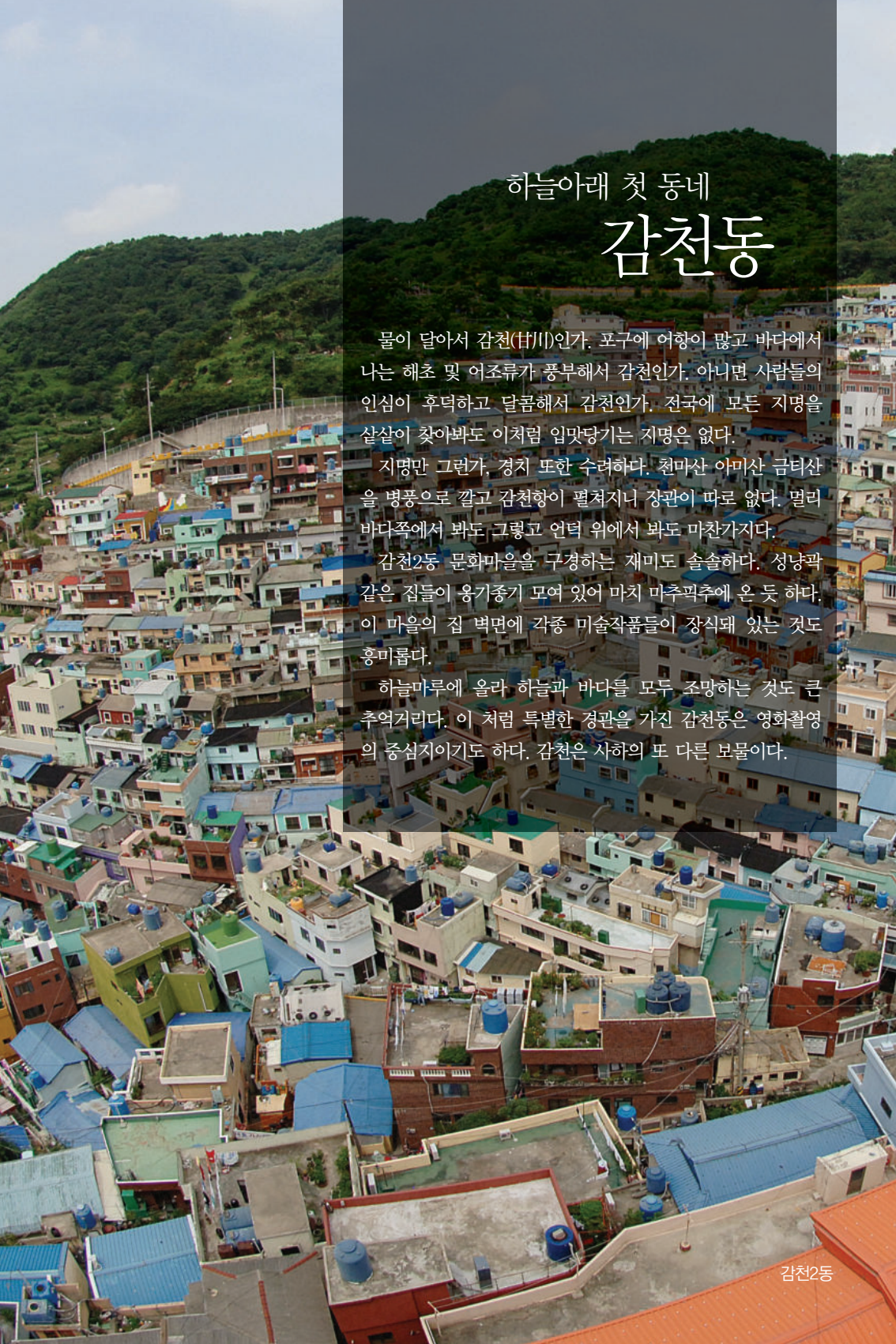
* 동래도로부의 행정중심지인 동래읍에서 작성한 행정관계 기록. 조선영조 33년(서기 1759년) 동래부사 조엄이 동래읍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동래읍지를 보았다는 기록이 그가 지은 '다대포 첨사 윤공 전망 사적서'에 나온다.

의하면, 17세기를 전후하여 독지장이 열렸다고 하는데 장이 섰던 자리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동래부읍지》방리(坊里)조에 보면 '사천면(沙川面)의 독지리를 관문에서의 거리 43리라 하고 서평리를 관문에서의 거리 49리' 라 한 것으로 보아 독지장은 오늘날의 구평동 북쪽지역이었을 것으로 본다. 개시(開市) 일자는 5일장으로 1일과 6일로 되어 있다. 이 장(場)에서는 사하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와 장림에서 생산된 소금, 그리고 수공업제품이 교역되었을 것이다. '동래부읍지' 에 기록된 장시(場市)는 네 곳으로 읍내장, 좌수영장, 부산

장, 독지장이다. 이 네 곳의 장 가운데 한 장이 독지장이고 보면 오늘날의 부산 주위에서 꽤 큰 장이었던 것 같다. 낙동강을 건너 김해쪽과의 교역도 컸을 것으로 본다. 지금은 이 독지장이 열리지 않는다. 장날은 아주 오래전 세월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장에서 돌아온 아비를 보는 아이들의 기대에 가득찬 어린 눈빛도 더 이상은 없다. 하지만 과거 물류유통의 중심지였던 구평은 현재 각종 공장이 들어서면서 생산중심지로 탈바꿈되고 있다. 이곳에서 무슨 물건들이 생산될지 또 얼마만큼 발전하게 될 지 구평동 주민들은 장날의 아이들처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다.

시대는 변하고 그 땅의 산업도 변하기 마련이지만, 이곳 구평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구평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크게 발전할 것이다.

감천1동



하늘아래 첫 동네

감천동

물이 달아서 감천(甘川)인가. 포구에 어항이 많고 바다에서 나는 해초 및 어조류가 풍부해서 감천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인심이 후덕하고 달콤해서 감천인가. 전국에 모든 지명을 샅샅이 찾아봐도 이처럼 입맛당기는 지명은 없다.

지명만 그런가. 경치 또한 수려하다. 천마산 아미산 금티산을 병풍으로 깔고 감천항이 펼쳐지니 장관이 따로 없다. 멀리 바다쪽에서 봐도 그렇고 언덕 위에서 봐도 마찬가지다.

감천2동 문화마을을 구경하는 재미도 솔솔하다. 성냥곽 같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 마치 마추픽추에 온 듯 하다. 이 마을의 집 벽면에 각종 미술작품들이 장식돼 있는 것도 흥미롭다.

하늘마루에 올라 하늘과 바다를 모두 조망하는 것도 큰 추억거리다. 이 처럼 특별한 경관을 가진 감천동은 영화촬영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감천은 사하의 또 다른 보물이다.

감천2동

01
감천(甘川)의 물은 달다

감천항 앞바다의 물은 단물이 아니다. 마셔볼 필요는 더욱 없는 짜디짠 바닷물이다. 그러나 감천의 물은 달다? 왜 일까. 왜 그런 말들이 만들어졌을까.

오래전부터 감천항에 입항하는 선박들의 급수시설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부산지명총람에서는 감천(甘川)이 감천(甘泉)이어서 지명을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라고 적고 있지만, 호사가들은 그런 식의 말들을 하고 있다.

감천의 옛 지명은 감내(甘內)이다. 감(甘)은 '검'에서 온 것이며, 검은 신(神)이라는 뜻이다. 천(川)은 '내'를 한자로 적은 것인데, 그 이전에는 '內'로 적혀 감내래리(甘內來里)였다. 또는 다내리(多內里, 多大안쪽마을)로도 불렀다. 지금도 지역의 노인들은 감천이라고 하지 않고 감내(甘內또는 甘來)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혹은 감천은 물이 좋아서 감천

1960년, 감천화력 발전소가 건립되기전, 감천동 및 감천항의 옛모습

(甘泉) 또는 감천(甘川)이라고 했고, 많은 선박들이 옛날에 이곳에 들어와 급수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검내'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내는 한자어로 '천(川)', 양(壤), 내(內), 내(乃), 군(郡)등으로 적히며 마을을 뜻한다. 따라서 감천(甘川)이란 말의 뜻은 신읍(神邑 : 신의 마을)이라는 뜻이다. 신의 마을엔 당연히 신을 모시는 사람과 소도(蘇塗)와 같은 신성시 되는 곳이므로 부족사회의 권력자가 살았을 것이다. 이런 이름을 갖는 지방에서는 대체적으로 지석묘(支石墓 : 고인돌)가 발견되고 마제석기(磨製石器)를 볼 수 있다, 지석묘는 남방식 2기, 변형적 지석묘 3기, 표석식으로 추측되는 것이 1기 등 총 6개가 발굴되었다. 이는 감천의 청동기 시대가 길게 이어져 내려온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아무튼 이곳 감천동에서는 천마산(天馬山), 아미산(峨嵋山), 금티산(金峙山) 등이

감천동에 대한 《동래부지》의 기록

- 감천동은 《동래부지(1740)》의 서면(西面) 하단(下端)조에 '감천리는 관문에서 42리에 있다'고 한다. 1904년 간행한 《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에 따르면 감천리에는 45호의 호수가 존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 감천동은 조선시대에도 마을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부산부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동래군 사하면에 편입되었으며 1942년 다시 부산에 편입되었다. 1957년에는 서구에 편입되었다가, 1983년 사하구의 승격과 함께 사하구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1959년 감천1,2동으로 분동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병풍처럼 우뚝 솟아있어 뛰어난 경치를 자랑한다, 그 앞에 펼쳐진 감천항은 두송반도(頭松半島)가 길게 뻗어내려 감천만이 깊숙이 들어가 천연의 항구를 형성한 곳이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당연히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지형을 가진다. 감천동은 그 풍수적 길지(吉地)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곳 중 하나이다.

감천2동의 옛 지명이 안골새 마을이었는데, 이는 여자가 치마를 입고 앉아 방뇨하는 자세의 지형이라고 해서 안골이라고 명했다고 한다. 또 다른 해석은 바람의 방향이 터가 앉은 안쪽으로 불어오는 형세라고 해서 안골새라고 했다고도 하니 풍수적으로 길지임은 분명하다.

02
감내포, 현대적 항만으로 거듭나다

깨끗한 모래와 자갈들이 많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았던 곳, 감내포.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해협으로 뻗어나간 송도반도와 두송반도 사이의 좁고 긴 포구다. 이곳은 일찍부터 천연의 항구였다. 고기잡이 배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물자를 이송하는 상선들도 자주 드나들었던 곳이다. 물동량이 꽤 많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감내포는 고려시대에 부산포와 다대포로 오가는 뱃길의 길목 역할을 한 곳이다. 따라서 왜구의 노략질이 잦았다. 감천의 어촌마을을 폐허로 만들 만큼 왜구들은 극성이었다. 이 포구는 어촌마을을 습격하는 주요 통로였던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천마산성과 서평포진 사이의 요지로서 바다에 출입하는 배와 사람들을 검문했었다. 왜구에게 넘어가는 정보를 차단하고 밀항과 밀무역하는 사람을 색출하기 위함이다.

감내포는 현재 감천만으로 불린다. 이곳에는 1962년 부산화력발전소

가 건설되면서 옛 모습을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수심이 깊고, 조류가 완만하여 부산항의 보조항으로 제 역할을 잘 해오고 있음으로써 감내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다.

1958년, 나무배를 탄 신사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동양시멘트 주변 감천항 옛 모습

1960년, 현재 서구 고신의료원 방향의 감천동과 감천항의 옛모습

현재 감천항의 모습

친 화 부 산 사 랑

03
물반 고기반이었던 어장들

감천에는 대표적으로 세 곳의 어장이 있었다. 예부터 어획량이 풍부해 '물반 고기반'이라고 불리워진 어장들이었다. 마당더기 어장, 조금몰 어장, 호수암 어장이 바로 그곳이다. 이들 어장들은 만선이 된 배들이 들어오면 갈매기와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어 거대한 물결을 만들었다. 어장의 고깃 비린내는 삶의 비린내이다. 어쨌든 살아야 한다는 어부의 간절한 몸냄새이다. 지금은 어장의 자취가 그림자처럼 사라졌지만, 살아야 한다는 사람들의 간절함은 이들 어장 주위의 상인들에게서 여전히 느껴진다.

마당더기 어장

지금의 감천만인 감내포 앞에 자리잡고 있었던 어장으로 감천항이 개발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멸치 등 많은 양의 고기가 잡히던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은 감천항에서 선박수리 때 흘러나오는 기름 등으로 인하여 어장은 거의 황폐화 되어 이름만 전할 뿐이다.

감천초등학교 입구에 세워진 옛지명 안내판

조금몰 어장

감내포 앞에 자리잡고 있었던 조금몰래개(浦)의 어장으로 감천동의 주민 대부분이 20~30년 전만해도 거의 멸치 지인망(地引網)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었다. 감천 앞바다의 멸치잡이는 그들의 목숨줄이었으며 삶의 터전이었다.

호수암 어장

감내포 앞에 자리잡고 있었던 작은 어장으로 마당더기 어장 및 조금몰 어장과 더불어 감천항 앞바다의 대표적인 어장이다. 이 어장에서도 마찬가지로 20~30년 전만 하여도 멸치를 잡아 어민들의 생계를 유지하였다.

수리덤

감내포 앞에 자리잡고 있던 어장터의 이름이다. 이 수리덤은 해방전 정치망어업에 종사한 각 포구의 연락상 역할을 하던 곳이었다고 한다. 지역의 특산품, 생필품을 교류하였고 무기고(대창 및 화포)를 저장하여 왜구침입에 대비하던 중요한 요새였기도 하다.

기타 어장들

감내포 주변에는 그 외 호삼 어장, 갈막까지 어장, 나지목 어장, 끝발이 어장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 어장들은 대표적인 정치망 어장들이다. 40년전만 하여도 멸치와 갈치를 많이 잡아서 어민들은 물론 동네 사람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던 곳이다.

04
감천은 군사요충지였다

감천은 지정학적으로 왜구의 침입을 자주 받았던 곳이었다. 부산포와 가깝고 다대포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왜구의 노략질이 극심했다고 한다. 그 때문에 마을이 패촌이 되다 시피 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고기잡이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왔던 어촌의 순박한 어민들의 한 많은 사연이 많았을 것이다. 외침이 많았던 대한민국에서 아버지를 잃고 부인을 잃고 자식을 묻어야 했던 민초들의 서러움이 삼천리방방곡곡에 없는 곳이 없겠지만, 감천은 더욱 심하였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군이 주둔했다. 이것도 지정학적인 이유였다. 해방 후 한국전쟁 때는 영국군이 주둔했다. 그만큼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는 증거다. 일제시대가 끝난 뒤에 한동안 국군의 전신이었던 국방경

비대까지 있었다 하니 군사요충지였음은 분명하다.

감천은 창검과 총대포가 항상 놓여져 있었던 살벌한 동네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문화마을, 영화마을 등 문화와 생명이 함께 하는 살기 좋은 동네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1948년, 해방후 미 군정시대에 국방경비대 감천훈련장으로 사용하던 모습

05
반달고개인가 아미고개인가

반달고개라면 생소하지만 아미고개라고 하면, 부산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 직접 가보지 않았어도 들은 풍문으로도 안다. 감천2동에서 아미동으로 가는 길은 반달고개이고, 아미동에서 감천2동으로 넘어오면 아미고개이다.

천마산과 옥루봉 사이의 낮은 곳으로 옛부터 감천동과 아미동을 연결하는 교통로로서 왕래가 잦았던 고개이다. 가장 높은 고개는 해발 100미터로 고개치고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같은 고개를 두고 반달고개 아미고개 등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만 지역민들은 그냥 '아미고개' 라고 말한다.

이 아미고개가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다. 아미동 골짜기에 있었던 화장골 때문이었다.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화장골은 무시무시한 곳의 대명사다. 왠지 가면 안 될 것 같은 곳이다.

우스개 소리로 "까불면 아미타불~아미고개로 데려간다"는 말이 유행

한 적도 있었다. 불교용어의 '아미타불'과 화장골이 묘하게 연결되어 웃음을 자아내었다.

게다가 1960년 태극도마을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면서 이 고개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 되었고 이로 인해 옆 동네와 몸싸움이 심하게 일어났던 고개이기도 했다. 당연히 무서운 고개의 대명사로 알려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복동-남서로 도로포장도 잘 되어 있고, 범죄율도 거의 없다. 아미고개 바로 아랫 동네인 감천2동 태극도마을은 문화향기가 물씬 묻어나는 문화마을로 지정되어있다.

성냥곽처럼 생긴 이 마을의 외관적 특징은 국제적인 영화촬영지로도 각광받고 있어 근처의 아미고개, 즉 반달고개는 새로운 문화적 고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06
태극모양처럼 아름다운 태극도마을

부산의 마추픽추, 한국의 산토리니, 블록마을, 레고마을, 기찻집동네... 태극모양처럼 아름다운 감천2동 태극도마을에 붙혀진 닉네임은 그 수도 많다. 감천고개(반달고개 또는 아미고개) 꼭대기에 있는 감정초등학교 주변에서 바라보면 마을의 정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옥녀봉에서 천마산에 이르는 산자락을 따라 집들이 다닥다닥 붙여있는 모양이 마치 그리스의 마을 산토리니와 흡사하다. 페루의 고산도시 마추픽추의 아름다운 경관과도 닮아 있고, 지역의 경계를 따라 가로로 늘어져 있는 집들과 풍경이 길다란 기차가 연결된 모습과 닮아 '기찻집 동네' 같기도 하다. 또 마치 솜씨 좋은 개구쟁이가 성냥곽을 아름답게 쌓아올린 듯해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블록마을, 레고마을 같기도 하다.

하고 많은 산동네 중에서도 이곳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통일성'에 있다. 이는 1957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세운 두가지 원칙 때문이었다. "모든 길은 통해야 한다"와 "뒷집의 조망권을

막지말자"였다. 지금의 사통팔달의 길과 계단식 집단주택의 양식이 이때 마련되어 아름다운 마을의 기초가 되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풍경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면서 사진작가와 아마추어 사진애호가들의 필수 촬영지가 되었다. 곳곳에 카메라를 들고 찾는 이가 '참새방앗간' 처럼 이어진다. 최근에는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 사업' 으로 더욱 아름답게 단장했고, 국제적인 영화촬영지로도 각광받고 있다. 한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 3개국이 참가한 옴니버스 영화 '카멜리아' 를 비롯해 '슈퍼스타 감사용' , 일본영화 '히어로' 등의 배경이 되었다. 태극도마을의 미래가 태극의 모양처럼 힘차고 아름답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태극도 마을의 유래

태극도마을은 1950년대에 형성되었다. 사하구청이 펴낸 '사하지(1986년)' 는 태극도마을을 '태극을 받들며 도를 닦는 신흥종교인 태극도를 믿는 사람들이 4천여명 모여 집단촌을 이룬 마을'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 와서 보수동에 자리를 잡았던 태극도 교도들이 정부의 이주정책에 따라 감천2동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변에 판자집 800여 호가 새롭게 건축되었다. 그전에 이곳은 판자집과 초가집 40여채 밖에 없었던 한적한 빈촌이었다. 이후 1958년 충북 괴산 등지에서 활동하는 태극도 교인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면서 마을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갖춰지기 시작했다.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판잣집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것을 제외하면 마을은 당시 그대로의 모습이다. 1980년대에는 주민들이 2만명 이상이었다가 지금은 1만명 남

짓으로 감소했다. 태극도가 도주인 조철제의 사망 이후 대순진리회로 양분되면서 교세가 크게 줄었기도 했고 당시 안착한 교인들의 2세들이 대부분 출가하면서 인구의 감소를 불러왔다. 현재는 교인들도 남아 있지만 명맥만 유지할 뿐이고 교를 믿지 않는 일반인들이 많이 이주해 마을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눈덮인 문화마을 풍경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

가난한 산동네인 태극도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첫 바람은 지난 2009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의 '2009 마을예술 프로젝트 공모'에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라는 단체가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라는 주제로 당선되면서 시작됐다. 이 프로젝트는 미술작가들에게는 다양한 창작

감천 문화마을에 설치된 조형물의 모습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문화 소외계층이 일상 생활공간 속에서 미술을 가깝게 즐길 수 있도록 추진되는 '예술 뉴딜 프로젝트'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이 마을에는 LED 조명으로 이루어진 달콤한 민들레의 속삭임, 스테인리스 와이어로 만든 희망의 노래를 담은 풍선, 폐 공병들을 모아 만든 무지개가 피어나는 마을 등의 각종 작품 10여개가 설치되었다. 그 중 감천고개 정상 부근 마을 입구 옹벽에 설치된 고추잠자리 조형물 7마리는 마을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바로 아래에는 초등학생 200여명이 직접 색칠한 '점토꽃' 수백송이가 부착돼 옹벽의

칙칙함을 걷어내고 있다.

또 희망의 노래를 담은 풍선 '내마음을 풍선에 담아' 는 30여개의 풍선 조형물에 학생들 저마다의 꿈과 소망을 담았다. '달콤한 민들레의 속삭임' 에 매달린 '민들레 홀씨' 는 예술가들이 직접 마을 길목에서 주민들 100여명에게 받은 희망사항 글을 이용해 만들어 더욱 눈길을 끈다. "행복하게 사세요", "부자되세요"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이 마을의 성공사례는 멀리 바다건너까지 알려져 지난 2009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경관디자인 학회' 의 정규관람일정으로 잡히기도 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아닌 방법으로 산동네를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 프로젝트는 가난한 태극도마을을 부산의 문화도시로 거듭나게 해줄 것으로 믿어본다.

태극도마을 '영화의 집' 이 되다

문화마을은 여러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한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 3개국이 참가한 옴니버스 영화 '카멜리아' 를 비롯해 '슈퍼스타 감사용' , 일본영화 '히어로' 등의 주요장소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마을은 마침내 '영화의 집' 으로까지 선정됐다. 2011년에 선정된 이 '영화의 집' 은 영화도시 부산의 브랜드 자산을 비즈니스로 연결시키기 위해 마련된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영화 촬영지에 인증서를 부착, 영화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등의 경제적 효과를 위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시가 지원하고 동서대가 주관해서 선정했다. 이 영화의 집 선정은 1천만원을 지원받아 마을 입구에 큰 고니와 나무를 형상화한 '영화의 집' 인증 조형간판을 세우고, 전망대

감천 문화마을에 설치된 조형물의 모습

인 하늘마루 종합안내관 등 지역 곳곳의 소형인증간판이 부착됐다.

또 감천문화마을 명함, 스티커, 종이가방, 엽서, 우표, 종이액자 등을 지원받아 이들 제품에 '영화의 집' 인증마크를 부착한다. 이와 함께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로 등장한 골목과 장소에는 영화 줄거리와 주연배우 등의 이미지와 글을 담은 간판도 부착됐다.

'감천문화마을' 인터넷 카페

감천동을 좀 더 알고 싶으면 '감천문화마을' 사이트에 접속해보자. 주소는 http://cafe.naver.com/gamcheon2 이며 네이버 카페로 개설돼 있다.

이 카페는 감천동의 유래와 감천문화마을의 소개 및 주요 관광지에 대한 설명들이 사진과 곁들여 자세히 나와 있다.

특히 이 카페는 문화마을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각종 체험행사를 열어 다양한 문화체험을 갖게 해준다.

도자기체험, 공방체험, 섬유금속 체험, 하늘마루 체험 등 다양한 코스가 있다.

공동우물

안내문

현재 남아 있는 공동 우물터

天德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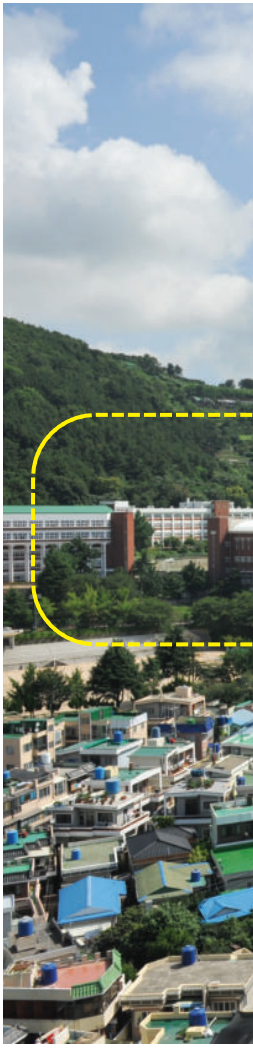
빨래터와 우물터

감천2동에는 마을 곳곳에 빨래터와 우물터를 볼 수 있다. 지금은 제 기능을 상실한 것도 있고 식수원으로 쓰는 곳도 있으며, 빨래만 하는 터도 있다. 이 빨래터와 우물터는 어려웠던 시절의 감천의 젖줄이었다.

과거에 태극도마을의 고지대는 물부족 문제로 항상 골머릴 앓아왔던 곳이다. 1978년 아미배수지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도리없이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다만 그전에 몇몇 우물터가 개발되어 마을주민들의 마른 목을 축이게 하기도 했다. 태극도마을 형성의 초기에 다행히 아랫마을에서 우물이 개발되어 감천고개까지 배수관을 연결하고 물탱크를 설치하여 수도꼭지 4개를 달았던 것이 해갈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이곳 마을의 우물터와 빨래터는 예사로 보아 넘길 시설물일 수가 없다. 마을의 생명줄을 이어줬던 생명수이다. 이곳저곳 우물터를 찾아보면 그 중 한 우물터에는 두레박을 걸어두었던 모습도 있다. 옛날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진 곳이다. 그 중 감천복지관 근처 '김종수공동우물'은 매번 수질검사도 하고 있어 주민들의 식수로 이용된다. 현재 감천에는 식수로 사용되는 우물은 두 곳이 있다. 이 빨래터와 우물터는 지나는 사진작가들의 단골 코스이기도 하다. 문화마을 탐방에 나선 사진작가와 여행객들은 신기한 듯이 이곳을 촬영하고 자신이 작품집이나 인터넷 불로그 등에 올려놓는다.

감천에 구경오는 사람이 있다면 꼭 우물터에 방문해 사진 한 장을 찍어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07
닦고 닦으면 꿈이 이뤄진다는 예언



현재 삼성중학교, 삼성여고, 감천중학교, 부일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위치한 곳의 옛 지명은 '딱딱꿈'이었다. 닦고 닦으면 꿈이 이뤄진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 옛 지명에 얽힌 재미난 사연이 있다.

옛날 오색 영롱한 구름을 타고 내려온 한 도인이 범상치 않는 이곳의 지형을 훑어본 후 이곳이 천년의 세월이 흐른 뒤엔 큰 인물이 될 학자가 수양하는 곳으로서 명당이 될 것으로 예언했다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 한 구전이지만, 지금 이곳에 여러 학교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다. 또 닦고 닦으면 꿈이 이뤄지는 지형이라고 해서 '딱딱꿈'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구전으로 전해오고 있어 신비할 따름이다.

현재 학교군이 모여있는 사진 (왼쪽부터 삼성여고, 감천중학교, 부일외국어고등학교)

08
감천의 부산복합화력발전소는 부산의 명물

현대 생활에서 에너지가 없으면 '절망'일 수 있다. 가전제품의 가동이 모두 중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형광등 하나 켤 수 없다. 심하게는 원시시대로 다시 돌아간다고 할 만 하다. 부산시민들의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부산복합화력발전소, 바로 감천에 위치해 있다. 과거에는 이 발전소의 이름이 '부산화력발전소'였다. 과거의 발전소는 발전시설용량 33만 KW. 발전기는 모두 4기가 있는데 1·2호기는 각 6만 KW이며, 1961년 3월에 기공하여 1964년 8월에 완공하였다. 3·4호기는 각 10만 5000 KW이고, 공사기간은 1967년 7월에 착공하여 1969년 6월에 완공하였다. 발전기형은 1·2호기는 혼소식(混燒式)이고, 3·4호기는 유전소식(油專燒式)이다. 연료는 1·2호기는 벙커 C유와 무연탄이며, 3·4호기는 벙커 C유이다. 그 후 2002년에 LNG(천연가스)발전소가 같은 장소에 세워지면서 이름이 '부산복합화력발전소'로 바뀌었다. 이들 전력은 전력의 수

요가 큰 부산에 공급되고 있다.

그동안 이 발전소는 감천의 흉물이라는 말이 많았다. 국가의 매우 중요한 보안시설이어서 주민의 접근이 차단되었고, 흉물스러운 블록담벽이 사람들의 눈을 가렸다. 그러던 것이 부산복합화력발전소로 바뀌면서 깨끗하게 정비되었다. 또 지난 2011년 유휴지 일부가 주민들을 위한 소공원으로 탈바꿈해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총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체 2만6천㎡의 유휴지 중 주차장에 해당하는 9천㎡ 가량의 부지에 '해마루 공원'을 조성했다. 이곳에는 태양열에너지와 폐고무 재생타일을 활용한 각종 구조물과 산책로, 무대와 좌석을 갖춘 문화시설 및 휴게시설이 들어서 친환경 공원이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이 해마루 공원은 저소득층 노인이 많이 거주하지만 별다른 친수공간이 없었던 감천1동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동안 흉물로 알려져 왔던 이 발전소가 감천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고 있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주민들에게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활력소까지도 제공하는 부산천연가스발전본부(2009.3. 사업소 명칭이 부산복합화력본부에서 부산천연가스발전본부로 변경됨)가 계속해서 감천의 명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1967년, 낙동강 하구, 괴정, 당리동이 보이는 감천화력발전소 주변 옛 모습

당신이 몰랐던 사하구의 또 다른 이야기 속으로

II

사하구에는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많다.
에덴공원에 세워진 청마 유치환 시인의 시비(詩碑)와
감천 2동의 태극도마을(문화마을)에 얽힌 사연,
모래톱 이야기, 다대진 장대놀이,
다대포 매일선 편리호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 등등.
역사가 오래되면 사연도 많은 것처럼 눈길이 가는 이야기가 풍부하다.
당신이 몰랐던 사하구의 또 다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1
Storytelling

에덴공원에 세워진 시인 청마 유치환의 시비(詩碑)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海原)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탈자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애수(哀愁)는 白鶴(백학)처럼 날개를 펴다.
아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청마 유치환의 시 '깃발'이다.
이 시는 '허무의 의지'를 노래한 시 중 걸작으로 꼽히는 시다. 아무리

도달하려고 노력해도 결국은 도달할 수 없는 각자의 이상세계에 대한 안타까움과 순수함을 아름답게 노래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청마 유치환의 시비(詩碑)는 사하구 하단동 에덴공원 정상에 세워져 있다. 에덴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은 이 시비를 보고 한번씩 '깃발'을 잃어 보기도 하고, 청마 유치환의 시 세계에 대해 생각해보곤 하는데, 그가 부산과 큰 인연이 있었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다.

1908년 경남 충무에서 태어난 유치환(柳致還)의 호는 청마(靑馬)다. 부산과의 인연은 1927년 동래고등보통학교(현 동래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 후 그는 연희전문(延禧專門: 현 연세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중퇴하고, 여러 직업을 겪는 가운데 1931년 '문예월간(文藝月刊)에 시가 추천되어 시인으로 등단했다.

유치환의 시는 그 나름의 독특한 시세계를 펼쳐 한국시단에 크게 이바지하면서 생명파(生命派)시인으로 일컬어진다. 생명파는 1930년대 생명 현상에 관한 시적 관심을 공통으로 한 유파다. '인생파'라고도 하는데, 1936년에 간행된 시 동인지 '시인부락(詩人部落)'과 유치환(柳致環)이 주재한 시 동인지 '생리(生理)'(1937)에 나타난 생명의식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시인부락'의 동인으로는 서정주 · 오장환 · 김동리 등이 있는데, 이들의 시는 강렬하고 독특한 생리적인 욕구, 도덕적 갈등, 시대의 인식 등이 생명의식과 합쳐지면서 독특한 시적 세계를 형성했다. 특히, 청마 유치환은 우주적 소통과 생명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노래하였다. 또한 시대의 불행도 함께 의식하며 삶의 고통을 초탈하려는 의지로의 시를 썼는데, 그의 표현은 비정함이 돋보여 더욱 감동을 주었다고 한다.

그의 시로 표현되는 강렬한 생명의식은 전 시대의 시문학적 전통인

청마 유치환의 시비

유물론적 인간의식이나 예술지상주의적 순수의식 등과는 달리, 삶 자체의 현상에서 시의 가치를 이루려는 일단의 시도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는 시도 썼지만, 교육자로서의 길도 걸었다. 1964년에는 경남여고 교장, 1966년에는 부산남여상 교장으로 후세 교육에 이비지함이 컸다. 부산과의 본격적인 인연은 이때부터였다. 부산에서 두 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는 부산문인협회 회장, 부산예총회장을 역임하면서 부산의 예술진흥에도 정성을 기울였다. 하지만 그는 애석하게도 1967년 2월 13일 부

산 좌천동 앞길에서 갑작스러운 윤화(輪禍 : 교통사고)로 별세했다. 청마가 별세하자 그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부산예총장이 치뤄졌다는데, 그의 시신은 하단의 승학산 산록에 안장되었다. 그 자리를 '청마묘(靑馬墓)' 라 했다.

그 청마묘는 1970년대 동아대학이 대신동에서 승학산 아래로 이전 계획을 세울 때 그 묘지가 학교 이전계획 부지에 속해 있어서 기장군 정관면의 대정공원 묘지로 옮겨졌다가 1997년에는 거제군의 선영(先塋) 자리로 다시 옮겨졌다

한편 그의 시비는 그의 시와 인품을 기린 후배 문인과 교육계 인사들이 '청마시비 건립위원회' 를 조직하여 1974년 1월에 건립하였다. 4단의 기단 위 오른쪽에 화강암 기둥을 세워 '청마 유치환 시비' 라는 표지석을 세우고 왼쪽에 가로 150 센치, 세로 60 센치 크기 돌에 그의 시 '깃발' 전문을 새겼다. 향파 이주홍(向破 李周洪)이 글씨를 썼다.

2
Storytelling

감천2동 문화마을에 있었던 태극도(太極道) 이야기

감천 2동 문화마을을 소개하는데 있어 태극도(太極道)를 빼놓을 수 없다. 원래 감천 2동은 초라한 초가집 수십 채만 있었던 조그마한 빈촌이었다. 그러던 마을에 보수동에서 터를 이루던 태극도인들이 집단 이주해 오면서 신앙촌을 이루게 되었고 마을은 태극도인들로 넘쳐나게 되었다.

태극도는 1918년 도주 조정산(~1958, 본명 조철제)이 강증산의 사상에 기초하여 세운 종교다. 강증산(1871~1909, 본명 강일순)은 구한말 극도의 혼란기에 해원(解寃 : 원통한 마음을 풂), 상생(相生), 보은(報恩)이라는 세 가지 종교 이념을 주창하고 후천개벽(後天開闢)을 이룩하자는 취지로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진행하는 등 종교운동을 펼친 종교지도자였다. 이 당시 국내외의 정치는 매우 혼란한 시점이었고, 사회적 불안도 도를 넘어서는 단계였다. 따라서 민초들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과 이념을 원했고, 때마침 경주 용담에서 도를 통한 최제우는 동학을 창시(1806년)하여 새로운 민족종교 운동을 펼쳐나갔다.

특히 최제우의 도를 받은 녹두장군 전봉준은 전라도 고부에서 고부현감 조병갑의 실정을 기화로 보국안민(輔國安民 :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한다)의 기치를 내걸고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하였으나 결국 외세의 개입으로 인해 실패로 귀결되었다.

당시 동학농민군은 전쟁을 치루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으며, 결국 혁명이 실패하자 그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이즈음 1901년 전북 고부(高阜)출신의 유생 강일순이 전주 모악산(母岳山)아래에서 새로운 종교운동을 펼쳤는데, 그의 사후(1909년) 그를 따랐던 김형렬, 박공우, 차경석 등 여러 제자들과 그의 부인 고판래가 증산의 사상을 이은 종교(훔치교, 태을교 등)를 만들면서 증산의 종교운동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일제시대 당시 한때 6백만 신도를 자랑할 정도였다고 하니 동학과 더불어 대단한 교세로 성장한 민족종교였다.

그 후 일제 말기에는 민족종교 말살정책과 해방 후 한국전쟁으로 인해 교세가 다소 주춤하였으나, 최근에서 태극도, 대순진리회, 증산도 등의 이름으로 교세를 확장시키고 있다. 증산의 이념을 지향하며 만든 이 계열의 교파를 통틀어 증산교라고 일컫는다.

한편 조철제(후에 조정산)는 경남 함안 칠서 회문리 사람으로 아버지를 따라 만주로 이주하게 되는데 가는 도중 기차안에서 신비체험을 하면서 주경야독(晝耕夜讀)식의 공부보다는 도수공부(度數工夫 : 증산이 짜놓은 천지운로를 풀어가는 공부)가 더 중요함을 깨닫고 입산수도에 들어간다.

그 후 그는 1917년 강증산의 제자 김혁(金赫)을 만나서 증산교에 입도

현재 태극도 교당의 모습

하게 되고, 귀국하여 충남 안면도를 근거로 포교활동을 하다가 1919년에는 강증산의 누이 선돌부인을 맞이한 뒤, 1926년 무극도(無極道, 일명 天人敎)를 세우면서 새로운 종교운동을 펼치기 시작한다.

그는 전북 정읍군 태인면 대흥리에 120여칸의 큰 교당을 짓고 교명도 '무극태도'라 고친다. 교당을 지을 때 신도가 무려 10만을 헤아려 세상에서는 그를 조천자(趙天子)라 부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진업단(進業團)이라는 신도단체를 만들어 안면도와 원산도에 간척공사를 벌여 안면도에 20만평의 농경지를 만들고 원산도에는 염전을 만들었다. 벌채사업과 광산채굴사업 등도 경영하는 등 교세를 경제적으로 부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1936년 조선총독부의 유사종교 해체령으로 교당건물이 철거되고 본부가 해체되는 등 교세는 위축된다. 광복이후 다시 포교

활동을 시작하여 1948년 본부를 부산 보수동 20-1번지(현 보수초등 뒤편)에 정하고 교명을 '태극도'라 바꾼다.

태극도의 신앙대상은 상제(上帝)인데, 그 상제는 바로 증산교를 창도한 강증산을 일컫는다. 강증산은 하늘세계와 땅세계, 그리고 인간세계를 주재하여 조화정부(造化政府)를 열고 곧 펼쳐질 후천세계를 열어나가는 존재이며, 조철제는 이러한 증산의 계시를 받아 무극의 진리를 창도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무극은 곧 태극이며 이것은 우주 본연의 법칙으로 이 법칙으로 살게 되면 도를 통하며 새하늘 새땅을 보게 된다는 신앙적 길을 제시해놓고 있다.

한편 1955년 7월 보수동 본부에 당시 제3대 국회부의장 조경규가 찾아왔다. 도주인 조철제를 만난 그는 도심 한복판(보수동)에 자리한 태극도인들의 판자집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이 국제항으로의 성장을 위해서 도심 미관을 해치는 판자집을 철거하여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 후 태극도의 집단 이주지는 감천2동으로 결정됐다. 그것은 감천 2동이 풍수적으로 반월령(半月嶺)으로부터 천마산(天馬山)과 옥녀봉(玉女峰)의 두 산자락이 서로 맞닿아 천마옥녀음양합덕지궁(天馬玉女陰陽合德之宮)이어서 도인촌으로 적지라는 판단에서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앙촌은 한때 3천세대 1만여명의 신도들이 모여 살 정도로 그 위세가 대단했다. 하지만 1958년 도주 조정산(조철제)가 사망하자 태극도도 이른바 신, 구파로 나뉘어지면서 교세가 기울어지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구파는 조정산의 아들 조영래(趙永來)가 도전(都典, 종단책임자)으로 취임하여 10여년 각종 혁신작업을 펼치다가 이갑성(李甲性)에게 이어졌다. 신파는 조정산 이후 잠시 도전으로 있었던 박한경(朴韓慶)이 다수의

태극도 교당의 옛모습

신도를 이끌고 탈퇴하여 서울에 가서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라는 별도의 교단을 창설하였다. 태극도는 이로써 분파(分派)시대를 맞아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태극도는 부산 감천 2동 이외에 서울과 대전, 대구 등 몇 군데의 지방지역과 전국에 걸쳐 다수의 신도가 신앙하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 그 교세는 작아졌으며 감천 2동 문화마을에 거주하며 신앙하고 있는 신도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것은 신구파로 분파가 되면서 교세가 기울기도 했지만, 자녀들의 유학과 분가의 영향도 컸다. 지금 문화마을은 태극도의 신앙인보다는 비신앙인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타 종교시설과 타 종교인들의 유입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다양한 인구의 분포가 생겨나고 있다.

3
Storytelling

다대팔경(多大八景) 이야기

평양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그 곳에서 간부교직원으로 근무하던 최기성(崔基星)은 1919년 3월1일 일어난 독립운동에 가담했다가 일본경찰에 쫓기는 몸이 되었다. 전국 벽지를 전전하던 중 1927년 다대포에 잠시 몸을 의탁하게 되고, 그해 9월11일 다대사립실용학교 실무교장이라는 직책으로 교직을 맡게 된다. 그러나 그는 교직을 맡자마자 어촌의 궁핍한 생활환경과 경제여건으로 학교에 나오는 학생은 거의 없고 그나마 나오는 학생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된다.

더욱이나 답답한 것은 식민지 교육제도에 의해 4년제 사립실용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학교를 나온 사람이나 나오지 않은 사람이나 땅 파고 고기잡이

사하미술협회 김무성 작가의 '아침(몰운대의 일출)'
몰운대는 다대팔경 가운데 '몰운관해', '화손낙조'로 표현될 정도로 곳곳에 아름다운 풍경을 지니고 있다.

밖에 할 일이 없는 처지에선 나와도 그만 아니 나와도 그만이라는 민심이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이 암울한 현실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게 하고 애향심을 심어 주자는 생각에서 "향토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구호 아래 다대포 도로와 학교 주변에 조선 벚나무를 심게 하는 한편, 다대포의 자연 경치도 중국의 천하제일 강산이라는 소상지방 경치에 못지않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소상팔경(瀟湘八景)'을 참고한 '다대팔경'과 '다대팔경가'를 만들게 된다.

소상팔경이란 중국 호남성 동정호 남쪽 소수와 상강이 만나는 소상지방의 아름다운 경치 8곳을 찬미하는 말로 동정추월(洞庭秋月 : 동정호 물결에 비친 가을달), 소상야우(瀟湘夜雨 : 소수와 상강에 내리는 밤 보슬비), 원포귀범(遠浦歸帆 : 호반 먼 갯마을로 돌아오는 돛단배), 어촌석

조(漁村夕照 : 강 어촌의 저녁노을), 강천모설(江天暮雪 : 상강 해질녁 흩날리는 눈), 연사만종(煙寺晩鐘 : 연무 어스름한 절간의 저녁 종소리) 평사낙안(平沙落雁 : 강안 모래벌에 살포시 내려 앉는 기러기), 산시청풍(山市晴風 : 비온 뒤 맑게 개인 산골마을에 부는 바람)을 이른다.

최기성 선생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에서 가까운 산에서부터 경치 이름을 붙여 다대팔경을 만든다.

제1경 아미완월(峨眉玩月) 천하일색 아미산의 반달
제2경 야망어창(夜望漁唱)
야망대에 들려오는 나포 후리소리
제3경 두송만취(頭松晩翠)
두송산 해질무렵의 비취빛 하늘
제4경 남림숙하(南林宿霞)
남림에 걸려있는 물안개 노을 (※ 남림 : 현재 성창목재 자리)
제5경 팔봉반조(八峯返照) 팔봉산에 비친 저녁노을
(※ 팔봉산 : 현재 한진중공업 앞마당)
제6경 화손낙조(化遜落潮) 화손대 물길의 만경창파
제7경 삼도귀범(三島歸帆)
목도, 서도, 귀도 사이에 뜬 돛단배
제8경 몰운관해(沒雲觀海)
몰운대에서 충신 정운을 생각함

다대팔경을 완성한 그는 여기에 노랫말을 지어 붙이면서 그 전주에 "산 높고 물 맑은 금수강산 무궁화동산 남쪽 관문. 다대포 옛 성터의 푸르게 낀 이끼가 역사를 말해주어 이 팔경가를 짓노라"고 밝혔다. 그리고, 1929년 4월3일 다대포를 떠났다.

4
Storytelling

우리나라 최초의 민권운동가 한광국(韓光國)은 다대사람이었다

다대포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권운동가 한광국의 공적을 기리는 2개의 비석이 서 있다. 그 하나는 조선 철종 12년(서기 1861년)에 다대포 사람들이 세운 진리 한광국구폐불망비(鎭吏韓光國捄弊不忘碑)이고 다른 하나는 전국의 갯마을(浦口) 사람들이 엽전 한닢씩을 내어 대한제국 융희 2년(순종 2년 서기 1908년)에 세운 절충한광국구폐불망비(折衝韓光國捄弊不忘碑)이다.

조선 영조(재위기간 1725~1776)때 사람으로 다대진의 일개 아전(衙前)에 불과했던 한광국이 무슨 큰 공적을 남겼기에 그가 세상을 떠난 후 60여 년이 지나 다대포 사람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는 불망비를 세웠으

진리한광국구폐불망비

절충한광국구폐불망비

며 그리고 다시 사후 100년이 지나 전국 각지의 어민들이 돈을 모아 절충장군이라는 시호까지 붙여 주면서 불망비를 세웠을까.

한광국 구폐불망비의 구폐에 얽힌 사연을 비문에 근거하여 풀어 보기로 한다.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令收賜爲如何哉 本鎭關防古有侯望之弊幷此俱革

이 비문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을 전부 풀어보면.

'지금부터 다대포 어민들을 천민에서 상민(常民)으로 복원시키니 내년부터는 천민 제사인 섣달그믐 신정다례를 지내지 말고 일반 상민과 같이 정월 초하루 신정다례를 지낼 것이며, 아울러 이 풍습과 관련이 있는 정월 초하루 이른 새벽에 고을 사또에게 망배(望拜) 드리러 가는 폐습도 같이 철폐한다.'

– 지금 임금 39년(조선 영조 39년 서기 1763년) 8월. –

금년(서기 2011년) 신묘년 음력 신정(2011년 2월 3일)에도 다대포 일부 주민들과 바닷가의 포구를 중심으로 특히 섬마을에서 대를 이어 살고 있는 전통집안 사람들은 음력 신정날인 2월 3일 새벽에 신정다례를 지내지 않고 섣달그믐날인 2월 2일 오후 2~3시경에 상을 차려 다례를 지내고 그 상을 그대로 두었다가 다음 날인 정월 초하루 새벽에 떡국을 올려 제를 지낸 후 철상을 하였을 것이다. 이 제법이 바로 조선시대 천민들의 제사 풍속이다.

조선시대 천민(賤民)이란 일곱 가지의 천한 직업(七般賤役)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 관아의 조례(官衙 皁隷) : 관청에서 허드레 일을 하는 하급노비
- 의금부의 나장(義禁府 羅長) : 형을 집행하는 하급병사
- 지방청의 일수(地方廳 日守) : 지방관청에서 잔일을 하는 하급 노비
- 봉수대의 봉군(烽燧臺 烽軍) : 봉수대에서 불을 지키는 병사
- 역참의 역졸(驛站 驛卒) : 각 역에서 말을 관리하는 하인
- 조운창의 조군((漕運倉 漕軍) : 정부 수송선의 선원
- 수영의 수군(水營 水軍) : 해군과 물 일하는 사람(어부)

이상의 일곱 가지 직업을 천직이라 하고 이 직업에 종사하는 조례. 나장. 일수. 봉군. 역졸. 조군. 해군 및 어부 등의 사람들을 천민이라 하여 이 사람들 모두는 정해진 천민풍속에 따라 섣달그믐에 신정다례를 지내야 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물 일하는 사람. 즉 어부와 수군으

로 이 사람들은 양반자손이라 하더라도 단지 물일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천민 취급을 당하였고 천민은 정월 초하루 새벽에 조상보다 먼저 고을 사또에게 세배(망배)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섣달그믐 신정다례를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의 실정이었다.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바로 한광국이다. 조선시대와 같은 철저한 반상(班常) 계급사회에서 목숨을 걸어놓고 어부가 천민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상소를 올리고 결국 영조 39년 8월에 어민을 천민에서 상민으로 복권 시킨다는 조정의 허가를 얻어 낸 용기는 그를 우리나라 최초의 민권운동가라 칭한다 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섣달그믐 천민 신정다례를 지내고 있는 어민의 자손들에게 한광국은 이른다.

"이 분별없는 후손들아

내가 나서서 섣달그믐제사를 지내지 말도록 면천(免賤)허가를 받아준 것이 언제냐. 그 때가 우리 임금 39년이니 이제 248년이 지났다. 정신 차리고 이 글을 읽었으면 제사부터 바꾸어라

내 비석 구폐불망비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노라."

5
Storytelling

화준구미(花樽龜尾)를 아시나요

서기 1592년(조선 선조25년) 음력 9월1일 새벽.

이순신 장군의 연합함대는 다대포와 부산포를 점령한 왜군의 함대를 몰아내고 남해의 제해권을 확보하고자 가덕도를 출발했다. 낙동강 하구를 지나서 다대포 몰운대 앞을 돌았으나, 때마침 태종대 쪽에서 동풍이 심하게 불어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배를 돌려 다대진 수군 훈련장의 선창에 대기시켜 놓고 바람이 잘 때까지 기다렸다. 이윽고 동이 트고 바람이 잦아들자 함대는 곧바로 바다로 나와 먼저 화준구미에서 왜선 5척을 격파하고 연이어 17척을 쳐부수어 다대포 해전을 승리로 이끈 후 부산으로 향하였다. (이충무공 전서에서)

1980년 8월 11일 새벽.

아시아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오련 선수는 대한해협을 헤엄쳐

건너기 위해 한반도에서 대마도와 가장 가까운 지점인 다대포 선창(대마도까지 48㎞ 거리)에서 화준구미를 보고 물에 뛰어들어 13시간 16분만에 아시아 물개로 변해 대마도에 상륙했다. 조선시대 이순신 함대가 머물렀던 선창은 지금 성창기업 저목장 방파제가 되었고 조오련은 이 방파제에서 출발했다.

대마도가 빤히 보이는 이 자리에 표지석 하나를 세우고 여기가 '임진왜란 다대포 해전 시발지', 또는 '이순신 장군이 부산포해전을 준비하며 기다린 곳', 나아가 '조오련 대한해협 횡단 기념장소'라고 그 의미를 부여한다면 문화·역사교육을 위한 관광명소가 될 것인데 아직까지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화준구미.
몰운산 화손대(일명 화준대)와 경도(귀도~거북섬) 사이의 바닷길.

"정운장군 제418주년 향사의 마지막 순서로 해군 군악대 반주에 맞추어 사하구장미합창단이 추모가를 제창 하시겠습니다. 추모가 가사는

1929년 독립운동가 최기성 선생님께서 현 다대초등학교의 전신인 다대사립 실용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시면서 학생들에게 애국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은 다대8경가 중에서 몰운대에 올라 다대포 해전이 벌어졌던 화준구미를 바라보면서 정운장군의 충혼을 생각해 본다는 제8경 몰운관해입니다."

지난 10년동안 정운장군 향사 집례관으로 매년 음력 9월1일 제사 때마다 이 말을 했지만 다대포 해전 장소가 어디인지, 화준구미가 어디인지 물어오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

다대초등학교 옛 교정(현 부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마당)에는 최기성 선생을 기리는 노래비가 서 있어야 되고 화준구미가 눈앞에 펼쳐지는 화손대 정상에는 이순신, 정운 두 장군의 심정을 생각해 본다는 다대8경가 중의 제7경 화손낙조(洛潮)의 의미를 설명하는 표석이 있어야 하는데 노래비가 서 있을 유아교육진흥원 마당 자리는 주차장이 되어 있고, 화손대 정상에는 뭇 발길에 드러난 소나무 뿌리만 어지러운 현실이 가슴 아플 뿐이다.

한 건 · 다대문화연구회장
시민단체 '부산을 가꾸는 모임' 상임고문
사단법인 '부산시민재단' 이사
저서 : 다대포 역사 이야기 (2011)

6
Storytelling

다대진 장대(將臺)놀이를 아시나요

조선 고종9년(서기1872년)에 만들어진 '조선고지도' 중에 있는 '다대진 지도' 에는 다대포구 남쪽 현 성창기업 입구에서 장댓뒤(다대고유지명, 장대 뒤편이라는 뜻)를 지나 팔봉산을 거쳐 솔섬 입구까지 남림이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수풀 속에 집이 한 채 그려져 있다. 이 집이 바로 장대이다.

장대란 군이 주둔하는 진지역의 성(城). 보(堡). 둔(屯). 수(戍) 등에 흙이나 돌을 쌓아 사방이 잘 보이도록 높은 대를 만들고 그 위에 누각을 지어 장수가 여기에서 군사들의 전투나 훈련을 지휘하는 지휘소를 말한다. 이 곳에는 평소 군사들이 훈련하는 연병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하여 다대포의 경우 단오절을 기하여 1년에 한 번씩 이 곳을 개방하고 첨사 이하 민·관·군 모두가 참여하는 봄놀이대회가 열렸는데 이 놀이를 '다대진 장대놀이' 라 한다.

1872년대 그려진 『다대진지도』 (규장각 소장)

장대놀이는 대개 10가지의 순서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필자가 할머니(1963년 작고)와 선친(2001년 작고)으로부터 전해 들어 기억하고 있는 놀이는 4가지 정도이다.

먼저 첨사가 장대에 올라 병사들을 점고(열병. 사열) 하는 것을 시작으로, 궁수 대표들은 활 나무 밑(다대고유지명, 현 성원아파트 자리)에 모여 활쏘기 시합을 하고 일반인들은 연병장에서 놀이구경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단연 인기가 있었던 것은 오후에 시작되는 다대진 소속 관기(官妓) 2명이 부르는 창을 듣는 순서였다고 한다.

이마에 점이 있어 매력만점인 큰 기생 '옥매'의 가야금 반주에 맞추어 소리를 하는 작은 기생 '옥산'이의 낭랑한 목소리와 교태에 모두 넋이 빠져 있다가, 마지막 곡목인 권주가(勸酒歌)의 '지화자' 소리에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하고 그 흥이 절정에 이를 즈음, 풍물패와 놀이패가

앞장서서 길을 선도하면 모두가 춤추면서 마을로 돌아와 마지막 순서인 다대 6동네(다대는 6조로 나뉘어 있었음) 줄다리기를 시작하게 된다.

먼저 동쪽 1, 2, 3조를 동삼편(다대고유명칭, 동삼분)으로, 서쪽 4, 5, 6조를 서삼편(서삼분)으로 편을 갈라 시합을 벌이고 이기는 편이 술 10동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장대놀이 하루를 끝맺었다고 한다.

이후 서기 1895년 다대진이 파하자 장대놀이는 없어지는 운명을 맞았고 놀이를 하던 그 곳에는 장수 없는 빈 장대와 느티나무 숲만 남게 된다. 그리고 25년 후인 1920년 식민지 시대로 접어들어 식량 사정이 악화되자 다대사람들은 식량 확보를 위해 장대를 허물고 숲을 전부 불 질러 그 자리를 밭으로 개간하면서 장대, 장대놀이, 남림숲은 영원히 잊혀진 다대 역사가 되었다.

1927년 다대 사립 실용학교 교장이었던 최기성 선생님은 남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아쉬움에 장대와 남림의 옛터를 답사한 후 남림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다대8경을 정하면서 없어져버린 남림을 제4경으로 하고 '남림숙하(南林宿霞)' 란 제목으로 노랫말을 만든다.

'남림의 숙토는 자는 듯하니 수풀은 어디가고 터만 남았네
오고 가는 저 안개 깃들 곳 없어 이리저리 흩어짐은 가이 없구나'.

한 건 · 다대문화연구회장

7
Storytelling

다대포 매일선, 편리호(每日船, 便利號)를 아시나요.

다대포에는 일제시대부터 1950년 말까지 다대포 선창에서 부산 남항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운행되는 여객선 한척이 있었다. 다대포 사람들은 이 배가 여객과 화물을 싣고 매일 부산을 갔다 온다고 해서 "다대포 매일선"이라 불렀다.

서기 1895년 7월 15일 다대포가 파진되고 1905년 을사늑약으로 조선의 수산 어업권이 일본인들의 손에 넘어가자 일본 후쿠오카 현(福岡縣) 수산업자들은 1906년부터 다대포에 진출하여 낫게(羅浦)에 로쿠로[1](轆

1) 로쿠로(ろくろ) : 도자기 등을 만들 때 사용되는 돌림 틀 녹로(轆轤)를 일본식 발음에 따라 일본글 가나로 표기 한 것.

轤)어업방식의 지비키아미[2](地曳網)를 설치하고 멸치잡이를 시작하게 된다.

이후 이들의 기술에 의해 다량의 멸치 어획이 이루어지고 이를 부산수산 주식회사(현 남포동 건어물 시장 자리)에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수송 수단이 필요해지자 이들 중 재력가였던 기무라(木村) 라는 일본인이 30ton 급의 화객선 제5 편리환 (弟五便利丸)을 구입하여 운행하게 된 것이 다대포 매일선의 시작이다. 당시로서는 최신형인 세미디젤엔진(SEMI DIESEL ENGINE)을 장착하고 시속7~8놋트(1knot=1852m)의 속도로 1시간 남짓에 부산남항 까지 운행되었던 이 배는 육로 교통수단이 없었던 다대포로서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그때까지도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던 다대포로서는 주인이 없어 운행정지 상태에 있는 이 배가 절실히 필요하였고, 이에 다대포 유지들이 의논 끝에 부산해무청에 매일선 운행을 위한 진정을 내게 됨에 따라 제5 편리환은 편리호로 이름을 바꾸고 전과 다름없이 다대포 사람과 농수산물을 매일 부산으로 실어 날라 매일선 으로서의 임무를 계속하게 된다.

그리고 5년 후인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다대포는 피란민과 육군병참학교 주둔 군인들로 3,000명 이었던 상주인구가 5,000명을 넘어서 포화상태가 되었고 그 즈음 유일한 교통수단인 매일선, 편리호의 운송능력도 한계에 이른다.

2) 지비키아미(ちびきぁみ) : 지예망(地曳網)의 일본 발음으로 원 뜻은 '땅 끌이 그물' 이라는 의미이나 우리 사람들이 임의로 이름을 붙여 후리그물 후리 망 이라 칭함.

운명의 날, 1951년 7월 11일.

오후 5시경, 출항준비를 위하여 자갈치 선착장에 나온 김순효 선장은 다대사람, 학생, 병참학교군인, 피란민과 화물로 배가 흘수선(吃水線)을 넘어 건현(乾舷)이 전부 물속에 잠긴 것을 보고 짐과 승객절반이 하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무도 말을 듣지 않아 출항을 거부한 채 계속 하선을 종용한다. 이 실랑이가 2시간을 넘기면서부터 귀대시간에 쫓긴 군인들은 드디어 출항을 강요하게 되었고, 생계가 급한 피난민들의 아우성까지 겹치자 화가 치민데다가 약간의 술기운으로 자제력을 잃은 선장은 7시경 출항을 강행하고 만다.

배가 남항 방파제를 나와 출항 후 20분이 경과한 송도 앞 바다. 너울을 만난 편리호는 승객과 함께 그대로 침몰하여 최후를 맞는다. 1951년 7월 11일 오후 7시20분.

"다대포 매일선, 편리호 송도 앞 바다에서 침몰, 55명 사망. 실종"

이 배에 승선했다가 생환한 해기사 출신의 다대사람 최봉수(작고)씨는 사고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선체가 너울과 30°각도로 비스듬히 1차 너울을 타고 꼭지점에 올랐다가 내려와 2차 너울을 받는 순간 과적으로 선수가 물속에 많이 잠긴 상태에서 물을 뒤집어 써 좌현으로 기울었고 미처 복원도 되기 전에 3차 너울이 덮쳐 선체는 순식간에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55명의 희생자 중에는,

육군 병참학교 교장을 위시한 다수의 군인들.

전쟁을 피해 땅 끝까지 왔다가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란민들.

그리고 다대포는 장래가 촉망 되었던 다대교회, 주일학교 최숙혜 선생님 등 다수의 젊은 인재들을 잃었다.

그 해 8월 하순,

다대포에서는 편리호 조난자 위령제가 열렸다.

위령제에서 참석자들의 가슴을 적시게 한 위령가는 당시 다대포 공립국립학교 교장이었던 안창흥 선생님의 조시에 작곡가 금수현(가곡, 그네 작곡. 현 지휘자 금난새 부친) 씨가 곡을 붙인 것으로, 그 때 그 자리에서 이 노래를 불렀던 6학년 여학생들은 지금은 73세의 할머니들이 되어 있다.

(후렴)

아, 두송산 모롱이 한 맺힌 원혼 한 맺힌 원혼,

신명은 아시나이까 아시나이까.

한 건 · 다대문화연구회장

8
Storytelling

다대포 처녀 윤백련(尹百連)을 아시나요

조선 헌종 7년(서기1841년) 4월.

영의정 조인영 대감의 지시로 동래부사 홍종응이 임진왜란 당시 다대성 싸움에서 전사한 다대첨사 윤흥신공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다대포 윤공단에는 첨사 순절비와 그 왼쪽에 순란사민비(殉亂士民碑)가 같이 서 있다.

이 순란사민비는 다대성이 왜군에 의해 함락될 때 성과 운명을 같이 한 다대주민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비석에는 비명만 있을 뿐 비문이 없어 누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떻게 희생을 당했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참으로 기구한 사연으로 다대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곳에서 이 비석의 주인 두 사람의 이름이 밝혀져 기록으로 오늘에 까지 전해오고 있다. 그 이름의 주인공

은 윤백련의 아버지 윤곤절(尹昆節)과 어머니 모론(毛論)이다.(이충무공전서에서) 이 이름이 전해지게 된 사연은 이러하다.

조선 선조 25년(서기1592년) 4월 14일. 부산성과 다대성을 차례로 점령하여 경상도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한 왜군은 이후 도둑떼로 변하여 먼저 김해에서 2일간의 분탕질을 하고, 5월 6일에는 거제도로 건너가 5월 7일 옥포에서 분탕질이 한창일 즈음 이 사태를 척후장 김 완으로부터 연락받은 이순신 장군의 연합함대는 기습으로 옥포 해안에 들이닥쳐 선창에 정박해 있던 왜선을 향하여 포격을 가하기 시작하자 왜군함대는 순식간에 아비지옥의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이틈에 우리 장수들은 26척의 왜선을 단숨에 격파하여 첫 승전을 거두게 된다.(옥포해전)

전투가 끝나자 이순신 장군은 전장수습을 명령하는 한편

"격파된 왜선에는 필시 우리 사람들이 잡혀 있을 것이니 배를 수색하여 찾아오라"는 지시도 함께 하달 한다. 이에 각 장수들은 그들이 격파한 왜선을 수색하던 중 이 해전에서 우부장으로 참가 했던 보성군수 김득광이 그가 격파한 왜선의 선창에서 일본 옷을 걸치고 머리를 단발하여 마치 일본여자 같이 보이는 처녀 아이를 찾아내어 조사를 마친 후 이순신 장군에게 조사 보고서를 올린다.

이름은, 윤백련입니다.

나이는, 14살입니다.

주소는, 동래부 사천면 다대리입니다.

고향은, 동래부 동래읍 오장리입니다.

부모는, 아버지는 다대진 수군 윤곤절(尹昆節)이고, 어머니는 상민인 모론(毛論)입니다.

현재 부모 행방은, 아버지는 난리 통에 행방불명이 되었고 어머니는 다대성에서 죽었습니다.

잡혀 온 경위는,

다대진에서 난리가 있기 전날 첨사로부터 피난 명령이 내려와 우리 윤씨 일가는 윤씨내(다대고유 지명)를 따라 앞산 안골샘 숲속에 숨어 있다가 이튿날 난리가 끝나고 밤이 되어 조용해지자 오빠 복룡이와 함께 성안 집으로 돌아 왔으나 군인들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성에 남았던 엄마는 불탄 집 안에 죽어 있었고 출전한 아버지는 찾을 길이 없어 오빠와 함께 어머니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한 후 동래에 있는 할아버지 집을 향해 길을 나섰다가 부산포 근처에서 왜군을 만나 오빠는 도망을 쳤고 나는 그들에게 잡혀 배에 끌려와 갇히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후 왜군에게 매일 같이 수도 없이 몹쓸 짓을 당하고, 성 노리개가 되어 있던 중 잡히어 온지 보름쯤 되는 어제(5월 7일) 갑자기 천지를 진동하는 뇌성소리와 함께 배위에 포탄과 불벼락이 비오듯 하자 왜놈들은 철편에 맞아 피를 질질 흘리며 죽어갔고 일부는 바다에 뛰어들어 산 쪽으로 헤엄쳐 도망갔습니다. 나는 겁이 나서 배 밑 바닥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구출 되었습니다.

보고서를 읽고 난 이순신 장군은 먼 하늘을 쳐다보며 탄식 한다.

“흉악한 놈들, 해독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러 백성들을 살육하고 재산 약탈 행위가 극심하니 앞으로 우리 사람이 몇이나 남을 고...”

그리고 지시를 내린다.

“이 아이를 순천이나 보성으로 보내어 관리들에게 특별히 보살피게 했다가 온전히 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나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끝내 고향으로 돌아 갈 수 없었던 다대포 처녀 윤백련은 임진왜란 정신대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그곳 보성 땅에서 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며 한 많은 인생을 마감한다.

한 건 · 다대문화연구회장

9
Storytelling
1. 모래톱 이야기

소의 잔등을 닮아 '~등'이라 불렀다

낙동강하구에는 이 순간에도 쉼없이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고 있다. 사하구의 새로운 명소인 낙동강하구 아미산전망대에 가면 아름답고 신비로운 모래섬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낙동강은 약 522㎞를 흘러오면서 동낙동강과 서낙동강 사이에 토사를 퇴적해 넓고 비옥한 삼각주 대평원을 만들었고 사하구 다대동과 강서구 가덕도 사이에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연안사주지형(barrier island, 모래톱, 모래섬, 울타리섬)이 펼쳐졌다. 이들 연안사주 즉 울타리섬에는 갈대를 비롯한 다양한 염생식물들과 바닷가에 사는 조개류, 게 등 먹을거리가 넉넉해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가 됐다.

바닷가 얕은 물 밑에 모래와 흙이 퇴적되면서 해수면 위로 연안사주지형이 드러나 파도나 잔물결이 부딪히는 모래섬을 만드는데 어민들은 이를 '등'이라고 부른다. '등'이란 소의 잔등처럼 넓고 평평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 붙여진 이름으로 해수면 밑에서 성장하고 있는 등은 물 속에 잠겨 있다고 하여 '속등'이라고 한다.

낙동강 하구 (도요등)

하구둑 북쪽의 동낙동강과 서낙동강 사이에는 강의 상류에서 하류로 길게 고구마 모양의 삼각주(하중도) 지형이 발달하는데, 이는 강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면서 토사를 퇴적하기 때문이다. 대저도, 대사도, 맥도, 명호도, 을숙도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하구를 빠져나오면 유속이 느려지고 파랑이나 조류의 진행 방향과 충돌되어 하구를 중심으로 동~서 방향으로 가늘고 길게 활모양으로 휘어져 퇴적되어 마치 울타리 모양을 갖추게 된다. 이는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오면서 흐름이 매우 느려지고 파도나 조류의 운동 에너지와 충돌하면서 파도의 에너지 크기나 조류의 세기에 따라 운반 되어온 토사를 파도나 조류의 에너지 분포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시켜 쌓아 놓았기 때문이다.

대마등, 장자도(옥림등), 신자도(새등), 맹금머리등, 백합등(사자등), 나무싯등, 도요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도요등에서 다대포해수욕장

낙동강 하구 모래톱

쪽으로 길게 새로운 등이 2010년부터 드러나 다대포해수욕장 앞을 가로막아서고 있는데 이를 '새부리등'이라고 이름 지었다.

등이 물속에서 드러나 오랜 시간 해수면 위에 노출되어 있으면 여러 종류의 염생식물들이 정착해 안정상태에 도달한 섬이 되면서 점점 면적이 넓어진다. 앞으로 다대포와 가덕도 사이의 넓은 남해 바다에는 수많은 연안사주들이 생겨나면서 바다가 육지로 변하게 될 것이다.

반 용 부
지리학 박사
신라대학교 인문사회대 학장 역임
(사)자연사미래환경학회 회장
저서 '살아있는 땅, 낙동강 삼각주'

Storytelling
2. 모래톱 이야기

백합조개 많아 백합등, 맹금류 살아 맹금머리등

낙동강하구에는 맹금머리등 · 무지개등 · 백합등 · 나무싯등 · 도요등 · 새부리등과 같은 모래섬들이 생명력을 갖고 오늘도 활발히 그 몸집을 불리고 있다. 이들 모래섬들은 낙동강하구를 울타리처럼 둘러싸고 있어 "울타리섬"이라고 부르는데. 지형 전문 용어로는 "연안사주"라고 하며 어민들은 "등"이라고도 부른다. 이들 등은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지형으로 학술적 가치가 크다.

사하구의 자랑인 울타리섬들 중 백합등(사자등 · 사자처럼 생겼다고 붙여진 이름)은 다대동 1597번지에 위치하며, 약 0.42㎢의 면적을 가진 모래섬으로 지금도 그 면적이 나날이 넓어지고 있다. 이 섬은 육지로부터 약 600m 떨어져 있는데,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 때 어민들이 강을 건너가 백합조개를 잡고, 김 양식을 하던 곳이다. 백합등이란 지명은 이 섬에 백합조개가 많이 있어 붙혀진 이름이다.

백합등 주위에는 여러 등들이 발달하고 있는데 북쪽에는 을숙도에서 뻗어내린 십리등(섬의 길이가 10리쯤 되는 긴 섬이라 하여 불리어진 이름)이란 길이가 길고 폭이 가느다란 모래섬이 있었는데, 어촌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목을 막아 어선들의 통행에 불편해 이 섬의 중간 허리를

절개, 준설하여 선박이 드나들기에 편하게 뱃길을 열어 놓았다. 새로 만들어 놓은 뱃길 남쪽에 잘려져 남은 모래섬이 맹금머리등이다. 솔개를 비롯한 맹금류가 살고 있는 맹금머리등은 섬의 형상이 가오리연 처럼 생겼는데 그 성장 속도가 빨라 1987년 이후 대규모 섬으로 성장했다.

백합등 동쪽으로 장림골이라는 갯골을 건너가면 해안가에 홍티마을(무지개마을의 한자식 표기)이란 어촌이 있었다. 이 마을에서 가덕도를 바라보면 무지개가 잘 보였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이 마을 일대는 낙동강하구둑을 만들면서 매립되어 공단이 조성되었고, 해안도로가 만들어져 교통이 편리해졌다.

백합등과 인접한 모래섬들 중 북쪽 100m 거리에 무지개등(무지개마을 앞쪽 바다에 있는 섬이라고 하여 붙혀진 이름)이, 백합등 남단 320m 거리에 나무싯등(홍수시 상류에서 쓸려내려온 나무가 덮혀 부르게 된 이름), 그리고 동측 250m 거리에 다대등(다대동에 가까이 있어 부르는 이름)이 위치했으며 또 남쪽 700m 거리에는 1986년부터 도요등이 성장하고 있다. 도요등이란 도요새가 많이 살고 있다하여 부르게 된 지명이다. 백합등이 해수면 위로 모습을 나타낸 것은 1950년 전후로 추정된다.

1985년 봄, 신라대학교(당시는 부산여자대학교) 지리학과 학생들과 함께 한적하고 작은 어촌마을인 홍티마을을 답사했는데, 마을의 주민들은 모두 백합등으로 백합조개를 잡으러 나가 집이 텅텅 비어있었고 빈 집을 지키고 있던 강아지가 낯선 침입자를 향하여 반갑게 꼬리를 흔들어 주던 기억이 난다. 이제 이 어촌 마을은 무지개공단이란 부산기계공업협업화단지로 개발되어 부산의 중요한 공업지대로 변하였다.

백합등은 섬의 규모가 동~서 1.25㎞, 남~북 730m의 크기로 남쪽의 나무싯등을 포함하여 'ㄷ'자형을 이루고 있다. 1984년 대홍수 때 하천 상류와 인근 양식장에서 밀려온 나무·쓰레기 더미가 나무싯등에 얹혀져서 이를 청소하는데 큰 예산이 쓰여졌고, 지금도 여름철 홍수가 지나면 각종 쓰레기들로 덮히곤 한다.

백합등에는 갈대를 비롯한 염생식물(바닷가에 서식하는 식물)이 섬 안쪽 습지에 무성하고, 민물가마우지·오리·쇠제비갈매기·마도요·고니 등이 모여살고 있다. 2006년 백합등 지형 조사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갈대 숲속에서 헤매던 일이 있었다. 학생들은 사람키를 훨신 넘는 울창한 갈대 숲을 마치 열대의 밀림속을 헤쳐 나오듯 큰 고생을 했는데, 이렇듯 갈대 군락이 무성한 백합등은 철새들의 안락한 산란·휴식·은둔지 역할을 하고 있다.

백합등은 낙동강하구둑 축조 이후 급속한 퇴적으로 수심이 얕아져 양식업이 점차 쇠퇴하고 있으며, 썰물 때에는 선박의 통행에도 어려움이 크다. 이러한 환경이 계속되면 백합등은 주변의 맹금머리등·나무싯등·도요등과 결합되어 거대한 섬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반 용 부 지리학 박사

Storytelling
3. 모래톱 이야기

서도 · 경도 · 목도… 다대포 앞바다 '부산의 다도해'

다대포 앞바다에는 수많은 무인도들이 밤하늘의 별들처럼 아름답게 흩어져 있어 앞으로는 이 해역을 부산의 다도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다. 이 섬들은 원시의 자연을 보존하고 있는 부산의 귀한 보물섬이다. 사하구의 여러 무인도서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가치를 개발하여야 할 때가 왔다.

서도(鼠島 쥐섬, 지섬 · 주민들이 부르는 명칭)

▷조선시대 공식명칭 : 축이도▷싸리나무섬

서도(쥐섬)는 몰운도 남쪽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무인도이다. 이 섬의 동쪽 약 120m 거리에 동섬, 서쪽 약 20m 거리에 동호섬이 자리 잡고 있다.

쥐섬은 육지와의 거리가 가까워 관광객이나 낚시꾼들의 접근이 편리

한 섬이다. 여름 철 홍수가 나면 낙동강 상류지역에서 많은 쥐가 떠 내려와 상륙한다고 하여 쥐섬으로, 또는 섬의 형상이 쥐가 쭈그리고 있는 모양 같다고 해 쥐섬이라 부른다는 설도 있다.

이 섬은 인접한 여러 무인도서들과 어울려 부산 제1의 관광지로 발전 가능한 지역이다. 섬의 북쪽해안을 따라 시멘트로 된 도로 겸 방파제를 만들어 놓았고, 섬의 정상에 무인등대가 우뚝 서 부산항을 드나드는 선박들의 뱃길을 밝혀준다.

이 섬은 화산 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남~북의 길이가 약 750m, 동~서의 폭이 약 250m이며 최고봉은 약 98m이다. 섬의 주위는 급경사의 절벽이며, 여러 개의 해식동굴이 깊숙이 파여져 있다. 그리고 길이 15m 너비 7m의 몽돌해안이 선착장 부근에 형성돼 있다.

경도(鯨島 고래섬 고리섬 모자섬 帽子島)

▷조선시대 공식명칭 : 귀도(龜島)

경도는 몰운도에서 건너다 보이는 바위섬으로 쥐섬과 함께 바람을 안고 저녁노을이 짙게 깔린 다대포 앞바다를 만선의 기쁨을 안고 귀항하는 돛단배의 모습이 아름다운 섬이다. 섬의 정상에는 무인등대가 있고 갯바위에서는 늘 낚시꾼들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

경도는 거친 파도의 침식으로 분리된 3개의 섬으로 구성되는데, 큰 섬을 큰 모자섬, 그 옆이 중간 모자, 그리고 작은 것이 작은 모자섬이다. 경도는 섬의 형상이 멀리서 보면 마치 모자와 유사하여 모자섬이라 하기도하고 경도(고래섬)라고도 하나, 조선시대의 공식명칭은 귀도(구도) 즉, 거북섬이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부산포해전에 관한 내용에는 1592년 9월 1일 부산포해전이 있기 하루 전날(8월31일) 우부장 정운 장군이 몰운대 앞까지 배를 저어 왔으나 태종대 쪽에서 불어오는 샛바람(동풍)이 거세어 더 나아갈 수가 없어 배를 화손대(몰운섬의 동쪽에 있는 두각지(head-line) 최고봉(62m) 앞의 귀도(모자섬, 경도) 끝, 섬 그늘로 돌려서 머물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인근 지역의 명승고적으로 다대동 패총, 아미산 고성터, 아미산 유적, 봉수대, 다대포 성지, 다대포 객사, 윤공단, 윤흥신 순의비, 정운공 순의비 등이 있고 다대포 8경으로 유명하다. 경도는 북~남의 길이가 약 210m, 동~서의 폭이 약 130m에 이르며 섬의 최고봉은 대략 35m이다. 해안은 급사면의 암석으로 해식애(절벽)가 발달했다. 해식애의 상단부에 소나무가 울창하다. 경도 주변해역에는 9월 파래포자를 부착해 11월 초 수확하며 그 밖의 해역은 조류가 세차서 양식업에 부적합하다.

반 용 부 지리학 박사

사하, 그 향기로운 발자취를 찾아서

사하의 숨겨진 보물, 문화재 이야기

III

역사와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사하에는 많은 보물들이 있다.
그 중 각종 문화재는 사하의 역사와 전통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후세에게 문화적 정신적 자양분이 되어주고 있다.
과거는 현재의 주소를 정확히 판단하게 해주는 근거이며,
나아가 미래를 열어가는 초석과도 같다.
사하의 문화재를 통하여 사하의 밝은 미래를 읽어보자.

1

부산지역에 남은 유일한 객사, 다대포객사(多大浦客舍)

– 부산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3호 –

객사는 조선시대 지방 관아(官衙) 건물의 하나다. 각 지방의 행정중심지에 있었으며 수령방백(守令榜白)이 부임할 때 의식을 치르고 임금의 상징인 전패(殿牌)를 안치하여 초하루와 보름에 망배(望拜, 임금이 있는 대궐을 향해 절하는 것)를 드리던 곳이다. 때로는 사신의 숙소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부산시사(1991)》 제4권 8. 문화재 명승고적편과 2006년 3차 개정판으로 《부산의 문화재》 65페이지에서 다대포객사의 기록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다대포객사의 창건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다대진이 설진된 임진왜란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임진왜란 당시 소실된 것을 수차례 중

건 중수하였다가 1825년(순조 25년)에 마지막으로 중수한 기록이 남아 있어 현재의 모습을 그때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어느 객사건물이 그러하듯 다대포객사도 수난을 많이 겪는다. 1902년 구한말에 설립하여 1904년 개교한 다대포사립실용학교 시절부터 교실로 사용되어 오다가 1943년 다대포공립학교로 개편된 뒤에도 교실로 사용되면서 건물의 구조에 변화가 오는 등 낡아졌지만 부산에서 하나뿐이며 가장 오래된 객사건물이다.

본래 있었던 위치는 오늘날의 부산유아교육진흥원 남북쪽 본관건물이 있는 계단 위였지만 1970년 지금의 자리 몰운대로 옮겨왔다.

기록은 한결같이 부산에서 하나뿐이고 가장 오래된 객사건물로서 다대포객사를 일컬으며 다대포객사 창건시기를 다대진이 설치된 임진왜란 이후로 보고 있으면서도 임진란 당시 소실되었다는 모순된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학술적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아무튼, 몰운대로 옮겨온 이 다대포객사는 앞면 5칸 · 옆면 2칸 규모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벽이 없이 기둥으로만 이루어진 이 객사는 일반적으로 중앙의 정당과 좌우 익실로 이루어진 다른 객사들과는 달리 정당만이 남아있다. 1980년 기둥과 마루를 보수하고 단청공사와 현판을 설치하였다. 현재 이곳은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 3호로 등재되어 있어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몰운대를 찾는 부산시민들과 관광객들은 반드시 이곳을 둘러보게 되는데, 다대진의 의미와 조선시대 객사의 역할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대포객사

2

나라를 위해 순절한, 정운 장군의 정운공순의비(鄭運公殉義碑)

– 부산시 지정 기념물 제20호 –

1798년(정조22년) 정운공이 전사하였다고 전하는 바다근처인 몰운대 위에 공의 순의비를 세워 그 공덕을 추모하고 있다.

홍문관 대제학 민종현(閔鍾顯)이 비문을 짓고 훈련대장 서유대(徐有大)가 썼다. 비석의 앞면에는 '충신정운공순의비(忠臣鄭運公殉義碑)' 라 음각되었고 뒷면에는 공의 순절사적이 18행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비는 정운 공의 8대손 정혁(鄭爀)이 다대첨사(재임기간 1796년 7월 ~1798년 9월)가 되어 자신의 임지(任地)내에 있는 명소 몰운대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비문에는 정운 공이 선봉으로 몰운대 아래에서 왜적을 만났을 때 몰운(沒雲)의 '운(雲)' 자 음이 자기 이름자인 '운(運)' 자와 같음을 알고 이곳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분전하다가 순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정운공 향사

정운공순의비에 이르는 몰운반도 길은 군 작전지역으로 출입금지 구역이 되어있다. 다대진객사에서 곧게 뻗은 길 300m에 이른 곳에 군초소가 있어서 여기에서 출입허가를 받아야 관람할 수 있다.

3

임진왜란 때 목숨바쳐 항전한 윤흥신 첨사의 윤공단(尹公壇)

– 부산시 지정 기념물 제9호 –

임진왜란 때, 이곳 다대포에서 목숨바쳐 나라를 지켜려고 했던 사람은 정운 장군만이 아니었다. 그 당시 다대첨사로 있었던 윤흥신 또한 자신의 목숨을 초개처럼 버리면서 나라를 구하려고 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과 명나라 정벌을 계획하고 있던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정벌을 명령한다. 1592년 음력 4월 13일 대장 고니시 유키나가와 그의 사위 소 요시토시가 포함된 제1군이 병력 1만 8700명과 병선 700척을 이끌고 부산 영도에 상륙한다.

먼저 부산진성을 함락한 고니시 유키나가는 병력을 둘로 나눠 다대포진과 동래성을 같이 공격했다. 이 때 경상좌수사 박홍은 적의 세력이 엄청난 것에 두려워 바로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다대포에 왜군들이 벌떼같이 몰려있는 것을 확인한 다대포 첨사 윤흥신(尹興信)은 동생 윤흥제와 함께 군민을 이끌고 맞서 싸웠으나 결국 순국하고, 중과부적으로 다대포는 함락하고 말았다. 당시 윤흥신 첨사는 자결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때 윤흥신의 군은 모두 800여명으로 추정된다.

임진왜란 때 이조참판을 지낸 구사맹이 지은 책인 팔곡집의 조망록 기록에 의하면 첫날 왜적은 다대포진을 포위 공격했으나, 윤흥신이 힘을 다해 물리쳤다고 한다. 이튿날 적이 다시 공격해 올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했으나 적의 공격이 전날보다 더 격렬하여 마침내는 모두 순사했다고 적고 있다.

부산진과 다대포진이 차례로 함락된 이후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일본군은 동래성을 향해 진격했다.

왜란이 끝난 후에도 이 일이 알려지지 않다가, 영조 37년(1761년) 경상감사로 있던 조엄이 이 사연에 얽힌 자료를 찾아내어 조정에 올리니, 비로소 그의 충절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윤첨사의 충의를 기리기 위해 윤공단(尹公壇)이 세워졌다.

원래 이 윤공단은 윤흥신 첨사가 순절한 곳인 다대객관의 동쪽(현 부산유아교육진흥원)에 있었으나, 1970년 12월 5일 지금의 자리(사하구 다대동 산 1234번지)로 옮겨 놓았다. 면적은 12,890㎡이다. 1972년 6월 26일에는 부산광역시기념물 제9호로 지정되었다.

이 윤공단은 석제단과 비석으로 이루져 있는데, 비석 앞면에는 '僉使尹公 興信殉節碑'(첨사 윤공 흥신순절비)가 음각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공의 전적이 기록되어 있다. 비석 양쪽에는 '義士尹興悌碑'(의사윤흥제비)와 '殉亂士民碑'(순란사민비)가 세워져 있다.

의사윤흥제비의 윤흥제는 함께 순국한 윤첨사의 동생이며, 순란사민

비는 그 당시 왜군에게 대항하다 죽임을 당한 의로운 주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다대첨사영 갑주 [多大僉使營 甲冑]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사에 보관된 조선시대의 갑옷과 투구이다. 윤흥신(尹興信)과 군민들을 제향할 때에 입었던 제복(祭服)으로 전해지고 있다. 1970년 다대포객사를 몰운대로 옮길 때 건물 내에서 발견되었다.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보관해 오다가 1978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 왔다. 갑옷 1점, 투구 1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붉은색 갑옷은 길이 약 122㎝, 폭 약 53㎝, 화장 약 65㎝이다. 소매와 옆선이 모두 트여 있고 목둘레에는 꽃잎처럼 생긴 두정(頭頂)을 10개씩 앞뒤로 장식하였다. 앞과 뒤 몸판에 지름 1㎝와 2.4㎝의 두정을 섞어 배치하였다. 안쪽에 4.5㎝×6.5㎝의 직사각형 철판을 비늘 모양으로 나란히 두었고 겉의 두정과 이어져 있다. 이는 이 갑옷이 실전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짐작케 한다.

투구는 두 겹의 쇠가죽 위에 검은 옻칠을 하고 겉은 여러 가지 놋쇠로 무늬를 넣어 장식하였다. 폭 약 1㎝의 놋쇠 띠를 사방에 세워 정수리에서 합쳐 반구형 놋쇠 장식으로 마무리하였다. 투구 안쪽에는 흰색 가죽 조각이 보이고 겉에는 놋쇠 띠를 가장자리에 두르고 앞이마 부분에는 봉황무늬 장식이 보인다. 조선 후기의 갑옷과 투구의 형태를 연구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2004년 5월 8일 부산광역시 민속자료 제2호로 지정되었다.

다대첨사영 갑주

4

사하의 절경(絶景), 몰운대(沒雲臺)

– 부산시 지정 기념물 제27호 –

몰운(沒雲), 구름 속에 빠져든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여기의 모든 풍광이 아름다운 구름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장관을 보고 있자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몰운대는 해류의 영향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시야가 자주 가려지기 때문에 몰운대라 하였다고 전해진다. 예부터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시인묵객(詩人墨客)들은 몰운대를 배경으로 시와 그림을 앞다투어 그렸다.

호탕한 바람과 파도 천만리에 일고
흰구름 하늘가에 외로운 몰운대를 덮는구나
동녘 하늘 떠오르는 시뻘건 수레바퀴(붉고 둥근 아침햇살)
언제나 신선이 학을 타고 오는 것만 같구나

《동래부지》 1740년에 합철된 《제영잡저*》에 나와 있는 '몰운대' 시다. 이 시는 선조40년(1607년) 동래부사로 부임하였던 이춘원(李春元, 1571~1634)이 썼다. 이 시는 몰운대로 오르는 나무숲길 왼쪽 커다란 바위에 음각되어 있다

영조 기사년(1749)에 동래부사로 부임한 정권(鄭權, 1692~?)도 시심(詩心)을 못 이겨 이곳을 읊었다. 이 시는 《내영지*(1850년)》에 나와 있다.

석양에 술 취하여 몰운대 올랐더니
눈아래 건곤이 만리 멀리 열렸구나
세상 일은 파도와 더불어 함께 사라지고
가슴은 지세따라 절로 높이 치솟누나
긴 바람 타고 멀리 대붕새 치고 오르고
호탕한 피리소리 공중에 어려 학이 춤추며 온다
한스럽다 늙은 고래 죽이지 못해
이빨 갈고 치는 물결 눈같이 하얗네

몰운대는 그림으로도 그려졌다. 18세기 초 진재(眞宰) 김윤겸(金允謙, 1711~1775)의 진재화집(眞宰畵集)에도 '몰운대' 의 비경(秘境)이 나온다. 과감한 생략과 입체감을 살린 힘 있는 붓놀림으로 몰운대의 아름다운 풍경을 멋지게 표현한 그림이다. 몰운대 위의 해송들과 바다의 힘찬 모습이 절묘하게 그려져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16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몰운대는 섬이었다. 몰운도(沒雲島)라 불렸다

* 제영잡저(題詠雜著) : 동래읍지 등에 기록되어 있는 시(詩)들을 한데 모아 기록한 책
* 내영지(萊營誌) : 1850년에 간행된 경상좌수영 부대 역사서

몰운대

한다. 몰운도의 기록은 《중종실록*》 을미년(중종30년, 1535) 2월 을사조(乙巳條)》에 '동백우거진 작은 섬' 이었다고 기록돼 있다.

또 1763년 일본통신사의 정사로 갔던 조엄(趙曮, 1719~1777)이 쓴 사행록 《해사일기(海槎日記)》에도 '나전소도(羅前小島)' 라 하여 멀리 신라시대엔 작은 섬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후 낙동강에서 내려오는 흙과 모래가 쌓여 다대포와 연결되어 육지가 되었다고 한다.

몰운대 앞바다는 대마도와 가까워 일본과 교역하는 주요 해상로로 이용되었다. 또한 왜구들이 자주 출몰하여 양민들을 괴롭혔던 통로이기도 하였다. 몰운대는 언덕 전체에 해송(海松)이 숲을 이루고 있지만 예전에는 동백나무가 울창했던 곳이었다. 간간히 상록활엽수, 낙엽활엽수 등도 눈에 띈다. 새들도 많이 찾아와 삼광조, 솔개, 굴뚝새, 갈매기, 바다쇠오리 등 많은 종류의 새들도 볼 수 있다. 새들의 음악소릴 들으며 해송이 우거진 숲길을 걷다보면 어느 듯 기암괴석에 부서지는 하얀 파도의 바다가 눈에 펼쳐진다. 얼굴에 스치는 싱그러운 바람은 마치 구름위에 떠있는 신선이 된 감흥을 느끼게 한다.

눈을 들어 서북쪽을 보면 삼각주(三角洲)인 대마등(大馬), 장자등(長子)들이 눈에 들어오고, 남쪽바다를 살피면 부산의 마지막 끝에 해당하는 고도, 형제도, 목도가 손에 잡힐 듯 다가선다. 주위의 쥐섬, 팔봉, 고리섬, 자섬... 하나 하나 세어보면 모든 섬들이 가슴속으로 들어올 듯하다. 이래서 사람들이 '몰운대, 몰운대' 라고 하는구나 하는 감탄사가 저절로 터진다. 하지만 아무리 경관이 좋다고 해서, 오르는 길에 결코 놓쳐서는

* 중종실록(中宗實錄) – 조선 제11대 왕 중종의 재위 기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 1506년 10월부터 1544년 12월까지 중종 재위 38년 3개월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안 되는 것들이 있다. 바로 몰운대 곳곳에 놓여 진 역사적인 유적들이다. 임진왜란 때 외적을 맞아 장렬하게 싸워 승리한 후 순국한 정운 장군의 정운공순의비(鄭運公殉義碑), 부산 유일의 객사(客舍)인 다대포객사 등도 여기에 놓여 있다. 꼭 챙겨봐야 할 유물들이다.

이곳 몰운대는 1972년에 부산시 문화재기념물 제27호로 지정되었다.

화손대(花孫臺)

화손대는 몰운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 곳이다. 하지만 그 풍광은 몰운대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화손대는 몰운산의 몰운대와 바로 머리와 날개를 맞대고 바다를 굽어보고 있다. 몰운대가 몰운산의 머리 부분이라면 화손대는 왼쪽 날개와도 같다. 몰운산의 모습은 마치 갈매기가 바다를 향해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는 모양과 흡사하다.

오른쪽 날개쪽은 정운공순의비가 놓여져 있는데, 현재는 민간인통제구역이어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관람이 가능해 아쉬움이 있다. 아무튼 화손대는 몰운산의 몰운대를 올라가는 도중에 안내푯말을 보고 왼쪽으로 내려가면 나온다. 대개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은 몰운대를 먼저 보고 돌아나와 화손대쪽으로 나와 있는 좁은 길로 접어드는데, 화손대를 먼저 관람하고 몰운대를 올라가는 것도 좋다. 이유는 동선(動線)이 좋은 점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운대를 먼저 보면 화손대를 잊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몰운산의 또 다른 절경을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이다.

화손대에 가면 멀리 두송반도가 보인다. 또 그 너머에 감천항이 보인다. 자연풍광이 아름다운 몰운대와는 달리 크레인도 보이고 뾰족뾰족 솟은 건축물도 형성돼 있어 인공미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연미만 아름다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인공미도 그에 못지 않는 감상 포인트가 있다.

바다너머, 파도너머, 섬들과 두송반도를 넘어 아득히 보이는 인공미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낸다. 이 아름다움을 부숴지는 파도에 떠다니는 듯한 바위 위에서 낚시를 즐기는 '강태공'을 배경으로 놓고 보면 삶에 대한 관조까지도 생기는 듯하다.

몰운대 낙조 전망대

몰운대를 즐기는 포인트

다대팔경의 3가지 경치가 모두 저녁노을과 관계되어 있다.

남림숙하(南林宿霞 : 남림에 걸려있는 물안개 노을), 팔봉반조(八峰返照 : 팔봉에 비치는 저녁노을), 두송만취(두송만취 : 두송산 해질무렵의 비취 빛 하늘) 그만큼 물운대는 저녁노을 또한 장관이다.

'눈이 멀 것 같은 아름다운 노을', '참으로 아름다워 다리가 땅에 붙어버렸다'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붉고 은은하다. 이곳 노을을 보며 인생을 반추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몰운대는 낮에 걸어서 둘러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반드시 노을이 지는 저녁에 한 번 더 가야 한다.

몰운대는 이 낙조를 즐기려는 사람들을 위해 '몰운대낙조전망대'를 서쪽 경사지에 마련해 놓았다. 크기도 넉넉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한해의 마지막 노을을 구경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어서 그 해의 반성과 다가올 해에 대한 새로운 계획도 짜볼 수 있어 더욱 가치 있다

6

모두가 즐겼던, 다대포후리소리

–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7호 –

예전 '물질하는사람들' 인 다대포어민들은 그들의 고단한 삶의 현장을 소리로 달래었다. 바로 다대포후리소리가 그것이다. 노동하는 사람들이 즐겨 부른 노래를 노동요(勞動謠)라하며 물질하는 사람들이 부른 노래도 노동요라고 하긴 하지만 따로 어로요(漁撈謠)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어로요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좌수영어방놀이고, 나머지 하나는 다대포후리소리다. 좌수영어방놀이는 군민(軍民)이 함께 부른 노래여서 다소 짜임새가 좋지만, 다대포후리소리는 순전히 어민들만 모여서 부른 노래여서 좌수영에 비해 짜임새가 정교하지는 않다. 하지만, 오히려 그러하기에 더욱 서민적일 수 있다. 거칠고 투박한 맛이 바로 이 후리소리의 매력일 수 있다. 4박자로 이뤄진 이 어로요는 지나가는 사람마저도 다함께 참여할 수 있을 만큼 흥겹다.

아래는 다대포후리소리 중 풍어소리 한 토막이다. 어장 넓은 마당에서 어부와 마을사람들이, 심지어는 행인들까지 함께 어울려 "쾌지나 칭칭 나아네"를 불렀다.

쾌지나 칭칭 나아네 쾌지나 칭칭 나아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이수강변 배로 가자
쾌지나 칭칭 나아네 쾌지나 칭칭 나아네

청천 하늘에 잔 별도 많고 시냇가에는 자갈도 많다
쾌지나 칭칭 나아네 쾌지나 칭칭 나아네

정월이라 대보름날 달밤에 나온 소년들은 답교하고 노니는데
쾌지나 칭칭 나아네 쾌지나 칭칭 나아네

이월이라 한식날은 나무마다 춘기 들고 가지마다 순이 난다.
쾌지나 칭칭 나아네 쾌지나 칭칭 나아네

이 풍어소리는 예전에 부산출신 가수 김상국씨가 각색해서 불러 전국적으로 히트친 바가 있다. 쾌지나 칭칭 나아네~ 쾌지나 칭칭 나아네~로 이어지는 흥겨운 리듬에 덩실덩실 어깨 춤을 추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이 '쾌지나 칭칭나아네~'에 대해 민속음악가 손심심씨와 김준호씨 부부는 '괴기나 징징 나아네', 즉 '고기가 징글 징글하게 많이 나오네'란 말이 압축적인 부산 사투리로 인해 변화된 것이라고 풀이한다.

부산사람들은 물고기를 '괴기'라고 부른다.

다대포는 예전부터 멸치후리질로 생계를 유지했던 어민들이 많이 살았다. 멸치잡이는 지예망어업(地曳網漁業 : 배로 그물을 연안의 얕은 바다에 둘러쳐 놓고 그물 양쪽의 끝줄을 바닷가로 끌어 올려 고기를 잡음)으로 잡는데, 다대포는 멸치맛이 좋기로 유명했다. 지금은 그 맥이 끊어졌는데, 그 이유는 멸치잡이 후리어장구역에 목재공장이 들어서면서였다고 하는 말도 있으나, 그 보다 앞선 2~3년 전인 1966년에 이미 어장이 폐쇄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부산항이 발전함에 따라 대형선박 등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어군(魚群)이 다른 곳으로 가버렸기 때문이라는 말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다대포의 멸치후리질은 숨가쁘게 진행된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지 않으면 멸치를 잡을 수 없다. 후리질은 해질 무렵에 진행된다. 먼저 야망대(夜望臺, 지금의 다대현대아파트 107동 뒤 언덕)에 올라가 멸치가 어군을 형성한 것을 살펴본다. 어군형성이 확인되면 바로 낫개(현재 다대 삼환아파트 자리)로 내려가서 작은 배로 바다에 나가 멸치군이 몰려든 것을 재확인한다. 징을 쳐서 신호를 보내면 바닷가에 모여 신호를 기다리던 어부들이 재빨리 그물을 배에 싣고 바다로 나가 후리그물을 친다. 그 사이에 바닷가에서는 용왕제를 올린다.

그물 치는 일이 완료되면 바닷가 어장에서는 벼릿줄을 양편으로 나누어 당겨 그물을 어장에까지 이르게 하고 그물에 담긴 멸치를 소쿠리에 퍼 날랐다.

이런 힘든 과정을 놀이로 승화시킨 것이 바로 다대포후리소리다. 이 후리소리는 그물을 배에 싣는 소리와 용왕제, 노젓는 소리, 후리소리, 그물 터는 소리, 가래소리, 풍어소리 등 일곱 마당으로 구성돼 있다.

4박자의 가락으로 돼 있는 이 후리소리는 앞소리와 뒷소리로 꾸며져 있다. 먼저 선창하는 사람이 앞소리를 하면 모든 사람이 화답하는 형식으로 뒷소리를 메긴다. 그러나 이 후리소리는 1966년에 어장이 폐쇄되면서 잠시 잊혀 지다가 1981년 다대포후리소리 발굴 계획이 세워지고, 1987년 7월 1일에는 드디어 부산지방문화재 제7호로 지정받았다.

지금은 백종근(1933년생, 상쇠), 엄공열(1932년생, 가래소리, 그물 놓는 소리), 차태화(1933년생, 용왕제, 풍어소리, 그물싣는 소리) 세사람의

후리소리 공연의 한 장면

예능보유자와 더불어 60여명이 다대포후리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 후리소리는 지역주민들에 의해 그대로 전승되어 부산지역 고유의 민요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게 했고, 또 민속학적 문화적 음악적 사료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으로 매우 가치있는 무형문화재라 할 수 있다. 이 무형문화재는 현재 다대포 후리소리보존협회에서 전승 보급에 힘쓰고 있으며, 2016년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부산대표로 참여하여 '은상'을 수상했다.

다대포후리소리 내용

① 그물을 배에 싣는 소리

후리그물을 해변의 어장으로 옮겨 배에 실으면서 부르는 소리

"어부님네 한마음 일심으로 그물을 잘 사려 실읍시다"

(앞소리)
에-헤이 사리야
사려보세 사려보세
그물 한 채를 사려보세 (생략)

(뒷소리)
에-헤이 사리야

멸치잡아 무엇하리
열두 독 젖을 담아
황금빛에 맛들거든
첫째독은 헐어다가
나라에 상납하고
둘째 독은 헐어다가 (생략)

"다 실었소?"
"예--"

② 용왕제

바다에서 후리그물을 치고 있는 사이에 어장에서는 풍어를 기원하는 용왕제를 지낸다. 이때 부르는 소리

"어부님네"

"예 –"
"용왕제를 지극정성으로 잘 모십시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께 비나이다
동해바다 용왕님요 (생략)

육지에는 풍년들고 바다에는 풍어들어
부귀영화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원성취를 비나이다
(용왕제는 장단없이 고사 읽듯이 한다)

③ 노 젖는 소리

후리그물을 싣고 바다로 나가면서도 부르고, 그물을 친 후 다시 어장으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소리 (생략)

④ 후리소리

어장터에서 수십명의 어부들이 양쪽에서 벼릿줄을 당기면서 부르는 소리
(생략)

⑤ 그물을 터는 소리

그물에 걸린 멸치를 가운데로 모으기 위해 그물을 당기면서 부르는 소리

에 – 산자
많이도 들었구나
오뉴월 삼복더위에
황소 봉알같이
늘어졌구나 (생략)

어데서 놀다가 (뒷소리) 에 – 산자
이제사 왔나

⑥ 가래소리

멸치를 아낙네들의 소쿠리에 담아주면 어장에 설치된 저장통에 운반하는데 이때 부르는 소리 (생략)

⑦ 풍어소리

후리질을 다 마친 후 바닷가 어장의 넓은 마당에서 어부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부르는 풍어의 소리, 지나가는 행인까지 같이 어울려 '쾌지나 칭칭 나아네'를 부르면서 즐긴다. 이때 선주 또는 수어부(首漁夫)를 작두말에 태워 어장 마당을 한 바퀴 돌기도 한다.

문화재청 전국스토리텔링 대회 참가작품

아래는 2009년 문화재청 전국스토리텔링 대회에 '흥겨운 가락, 다대포후리소리'란 주제로 참가한 당시 다대초등학교 6학년 전송원 학생의 발표내용이다. 이 작품은 부산 사하구의 자랑인 무형문화재 '다대포후리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아이와 엄마가 몇 달간 공들여 만들었으며, 후리소리 전수자에게 직접 감수 받고 암기하여 서울 대회에서 동상까지 수상한 작품이다.

흥겨운 가락, 다대포 후리소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다대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는 전송원입니다.

제 나이는 13살이지만, 제가 다니는 다대초등학교는 그 나이가 무려 105살이나 되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희 학교가 100살을 맞는 큰 행사를 열었고, 거

기서 옛날 어부와 아낙네 복장 차림으로 언니, 오빠들에 의해 재현되어지는 '다대포 후리소리'를 처음 보았습니다.

신나는 노랫가락, 마치 어촌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경상도사투리의 대화형식이 특히 앞소리에서 "여보시오, 어부님들 고기 많이 잡았는교?" 하면 뒷소리가 "예-이, 많이 잡았심니더." 하는 소리가 너무 재미있고 웃겨서 저도 살짝 따라해 보기도 했습니다.

흥미를 가지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후리소리는 학교행사의 보여주기 위한 율동이 아니었고, 부산지방 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된 문화재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후리소리를 배워서 익히는 것은 단순한 재미가 아닌 이 다음에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고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후리소리의 자랑을 늘어놓으니 여러분들도 후리소리에 대해 궁금해지셨다구요?

큰 포구가 많다는 다대포라는 이름처럼 지형적, 생업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저희 고장이다 보니, '다대포 후리소리'는 자연히 어로요의 모습을 갖추었던 것이지요. 바다에서 일을 하면서 부르던 노래였다는 말입니다.

민요를 멸치잡이 후리작업의 순서에 따라 부르고, 민요의 노랫소리에 작업의 동작을 곁들여 입체화를 하지요. 후리소리는 대개 4박자의 단조로운 가락으로 선창과 후창으로 분창하는데 그 시작은 멸치 떼가 들었음을 알리는 징소리와 함께 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부분 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장은 그물을 배에 싣는 소리로서, 후릿그물을 어장 해변으로 옮겨 배에 실으면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후릿그물이란 말이 생소하시다구요? 강이나 바다에 넓게 둘러치고 여러 사람이 두 끝을 끌어당겨 물고기를 잡는 큰 그물을 말합니다.

먼저 '에-헤이 사리야'로 앞소리를 하면 뒷소리도 '에-헤이 사리야'로 뒷소리로 받아 답하면서 그물을 싣습니다.

두 번째 장은 용왕제 순서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미신이라 할지도 모르지만 토속신앙의 한 모습으로, 고깃배에

그물을 옮겨 실어놓고, 음식과 술을 올리면서 바다를 향하여 풍어와 무사를 기원하는 용왕제 고사를 지냅니다.

세 번째 장은 '노 젓는 소리'로 그물을 실은 고기를 바다로 노를 저어가면서 그물을 치며 부르는 소리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는 앞소리를 따라서 노를 젓기 위한 박자와 힘의 단결을 위해 '이여사–' 하며 뒷소리로 받는답니다.

네 번째 장은 '후리소리'로 멸치 떼를 둘러싸고 그물을 치며, 해변에서 수십 명의 남녀 어부들이 양쪽에서 벼릿줄을 당기며 부르는 소리입니다.

앞소리로 '어기여차 당겨주소/ 동해바다 멸러치도/ 다대포로 몰려오고' 하면 뒷소리로 '어기여차 당기주소'로 받습니다.

다섯 번째 장인 '그물 터는 소리'는 후리질을 하여 그물을 해변까지 끌어놓고, 걸린 멸치를 가운데로 모으기 위해 그물을 쪼이면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여섯 번째 '가래질 소리' 그물을 털어 한 가운데 모은 멸치를 가래로 퍼서 아낙네의 소쿠리에 담아주면 어장에 설치된 저장통에 운반하면서 부르는 소리로, 일의 막바지까지 힘든 노동 중에도 한 구절 노랫소리에 즐거움을 찾고자 했던 조상의 지혜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풍어소리'입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어촌에서의 가장 행복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모든 작업을 마치고 어부를 중심으로 온 어촌 사람이 한데 모여 노는 가무의 시간입니다. 옛날 그때의 그 어부들과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행복한 웃음으로 덩실덩실 춤추었을지 조상들의 모습을 실제로 뵙고 싶다는 욕심까지도 생겨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말씀으로 설명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다대포의 푸른 바다에서 멸치고기를 잡는 어부와 그 가족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한 편의 영화처럼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더 넓은 바다가 있고, 인심 좋고, 우리 지방 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된 후리소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다대초등학교가 있는 다대포랍니다.

후리소리 보시러 놀러 오이소.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

새들의 천국,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 제179호 –

괭이갈매기, 흰죽지, 흰뺨검둥오리, 가마우지, 붉은부리갈매기 등이 하늘을 줄지어 날아가는 모습을 보노라면 장관이 따로 없다. 수십 마리가 삼각편대를 지어 우두머리를 따라가는 모습은 신기할 따름이다. 이러한 모습은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삼삼오오 짝을 짓든지 아니면 혼자서 먹이를 쪼아 먹는 새들을 바라보는 재미도 솔솔하다. 조류촬영 전문가 및 아마추어 사진가들의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경쾌한 손놀림도 즐거움을 더해준다.

을숙도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에는 주말이 되면 많은 탐조객들이 몰린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겨울철새들이 대거 월동준비를 하기 위해 이곳에 모이므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새들과 만남을 가진다.

아시아에는 물새의 이동경로가 크게 중앙아시아 경로, 동아시아 · 호주 경로, 서태평양 경로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 호주 경

로에 속한다. 이 경로상에 서식하는 조류는 낙동강 하구를 번식지, 중간 기착지나 월동지로 이용한다.

쇠제비갈매기, 개개비사촌, 큰개개비를 비롯한 여름철새는 4월 말부터 낙동강 하구의 갈대밭과 자갈밭에 둥지를 틀기 위해 찾아온다. 도요, 물떼새류가 주를 이루는 나그네새는 3~4월경 낙동강 하구의 갯벌과 사구에서 잠시 머무르며 시베리아로 이동하기 위한 충전을 한다. 또한 시베리아에서 번식을 마치고 9~10월경에 다시 찾아오며 호주 등지로 날아가기 위한 먹이를 섭취한다. 오리류, 기러기류, 고니류를 주로 하여 겨울철에 찾아오는 겨울철새는 11월부터 낙동강 하구지역에 찾아들기 시작하여 이듬해 2월까지 머무르면서 갈대밭, 갯벌, 하구등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을 먹이자원으로 이용하여 번식지에서 성공적인 번식을 위하여 영양분을 얻는다.

낙동강에 봄철 번식을 위해 찾아오는 여름철새와 봄~가을에 통과하는 나그네새 그리고 겨울철에 월동을 위해 날아드는 겨울철새는 1970년대 전에는 동양최대철새도래지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종류의 조류가 찾아왔다. 하지만 최근 그 역할이 감소되어 국제적인 철새 월동지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서식지 복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낙동강 하구의 조류생태계는 1970년대 이전에는 느시, 물수리, 검독수리, 독수리, 뒷부리장다리물떼새 등 희귀조류가 관찰되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총 개체수에 있어서도 10만 마리 이상이 월동한 지역이었으나 최대 5만마리가 월동하는 지역으로 변화되었다.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철새를 보호하고 또 기념물을 보존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1966년 천연기념물 제 179호로 등록됐다. 그 후 지속적으로 이 일대 습지를 보존하고 철새를 보호하

는 노력이 기울여져왔으며 지금도 계속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원래 낙동강 하구는 상류로부터 송류된 토사에 의해 퇴적된 삼각주로서 위로부터 새알섬, 일웅도, 을숙도 등 3개의 하중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부의 대마등, 반월도, 사자도는 바다에 의한 파랑과 조류의 영향을 형성된 것이다.

이 지역은 울창한 갈대숲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고 연중 따듯한 기운이 유지되고 있으며, 각종 어패류가 살아가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은 새들에게 안락한 휴식처와 지속적인 영양공급을 제공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입지여건이라 할 수 있다.

1966년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가 천연기념물로 등록될 당시에는 이곳의 규모가 을숙도와 더불어 낙동강 하구의 여러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초 지정구역은 약 3천8백만평에 이르는 광대한 구역이었다.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엄궁, 하단, 신평, 일웅도, 녹산간척지, 진해용원, 사하구 공유수면, 장림, 다대지구, 신호동 일원, 명지지구, 녹산지구, 화전, 신호동 등 약 4백9십만평의 지역이 이 구역에서 순차적으로 제외되었다. 그러다가 1996년 다시 약 83만 3천여평에 이르는 지역에 대해

원상복구가 요구되었는데, 이는 이곳을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학계와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문화재관리국의 정책변화에 기인했다. 이곳이 보존되어야 하는 중요한 당위성은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라는 점이었다. 1970년대 전 당시 새들의 종류와 규모면에서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를 따라올 지역은 현재 동양에서는 없었다. 따라서 이곳은 전 세계의 조류학자들의 지대한 관심과 환경보호론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지금은 이곳에서 서식하는 새들의 종류와 개체수가 많이 줄었지만, 향후 지속적인 관리로 다시 한 번 옛날의 위상을 되찾을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하구 구조(區鳥) 고니에 대한 이야기

아주 고와서 고운이, 고니가 아닐까. 낙동강철새도래지에 철마다 방문하는 고니는 그 자태가 매우 아름다워 고운이로 불린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차고 오르듯이 창공을 날아오르는 고니의 모습을 보면 장관이 따로 없다.

고니는 백조다. 새하얀 몸에 긴 목, 가느다란 자태는 많은 새들 중에 단연 아름다움의 상징이다. 그래서 각종 문학작품과 음악, 조각 등에 고니 즉 백조가 자주 등장한다.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안데르센 동화 백조 왕자와 미운 오래 새끼,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에서 백조, 슈베르트 백조의 노래, 여름철 대표 별자리 백조자리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최고의 걸작에 백조는 살아 숨쉰다.

백조는 한자말로 흰 백(白)자에 새 조(鳥)자를 써서 백조다. 순 우리말로는 고니다. 고니는 '곤곤곤' 하고 운다고 고니라 불렀다고 한다. 낙동강철새도래지에 가서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보면 단박에 알 수 있다.

백조라는 말은 중국어사전과 일본어사전에 등장하나 조선왕조실록에는 백조라는 말은 없고 백조 즉 고니를 천아(天鵝)라고 불렀다. 따라서 중국어와 일본어에서 유래된 백조라는 말보다 고운 느낌이 들고 '곤곤곤' 하고 우는 아름다운 소리를 따서 '고니' 라고 불리는 것이 맞다.

우리나라에는 겨울이면 고니, 큰고니, 혹고니 세 종류의 고니가 찾아온다. 그 중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를 찾는 고니가 70%를 차지하며, 12월에는 1일 3천여마리가 넘는 고니가 방문한다.

부리 끝이 검고 콧등이 노란색이 많은 것이 큰고니이고, 부리에 검은색이 많고 노란색이 작은 것이 그냥 고니이며 혹고니는 부리에 혹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를 찾는 고니는 대부분 큰고니이며 고니도 일부 찾는다. 혹고니는 현재는 발견되지 않는다. 2009년경 강원도 동해안 석호 지대에 몇 마리 볼 수 있었고 진주 금산교 아래에서 두 마리가 발견된 바 있었다. 참고로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에 나오는 고니가 바로 혹고니다.

사하구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를 찾는 고니는 12월에 가장 많고(3천여마리) 11월과 1월은 상대적으로 개체수가 작다. 그런데 다른 철새들과 마찬가지로 이곳 철새도래지에 방문하는 고니의 숫자도 낙동강하류의 각종 개발로 인해 매년 줄어들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체계적인 연구와 보호가 이어져야 할 대목이다.

한편 사하구에서 구조(區鳥)로 고니를 채택한 것은 의미가 크다. 철새를 보호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것이며, 곱고 아름다운 고니처럼 구민들 모두가 항상 곱고 아름답게 삶을 가꾸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의 발로일 것이다.

8

한국의 전통 신발의 장인(匠人), 화혜장(靴鞋匠)

–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17호 –

사하구에는 전통신발 화혜(靴鞋)를 만드는 화혜장(靴鞋匠)이 있다. 화혜장은 전국적으로 두명밖에 없는데, 부산지역에서는 유일하다. 사하구 감천동에 작업실을 갖고 있는 안해표씨가 바로 부산 유일의 화혜장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지난 2010년 9월에 부산시지정문화재 제17호로 등록됐다.

화혜(靴鞋)는 본래 우리 전통신발을 일컫는 말인데 화(靴)는 목이 있는 장화형태의 신발이고, 혜(鞋)는 목이 짧고 운두가 없는 신발을 뜻하는 것, 원래는 화와 혜를 별도의 장인(匠人)으로 구분하였으나 지금은 이 두 가지 기술을 합쳐서 화혜장이라고 부른다. 순우리말로는 '갓바치' 라고 한다. 조선시대 발간된 '경국대전' 에 의하면 중앙관청에 화장은 16

명, 혜장은 14명이 소속되어 있을 정도로 신의 수요가 많았으며, 그 기능도 분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신 제작은 가죽을 주재료로 하여 수십 번의 제작 공정을 거쳐 이루어질 만큼 고도의 기술과 숙련된 장인의 솜씨로 완성된다.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장인 및 신과 관련된 각종 문헌이 등장하며 이를 통해 당시 생활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화혜장은 역사적 가치를 포함해 제작기술에 대한 전승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분야이다.

화혜장 기능보유자 안해표씨

화혜장 보유자 안해표씨는 조선말기 조부 때부터 대대로 전통신인 화혜를 만드는 것을 가업으로 삼아온 전승계보자로 알려져 있다. 이 화혜 기술은 조부와 부친 그리고 안해표씨를 거쳐 현재 두 자녀에게까지 4대째 이어지고 있어, 한국의 전통문화유산이 소중하게 전승되고 있다.

안해표씨의 조부는 1880년대에 합천과 부산 등지에서 사대부와 관리들의 신발인 흑혜와 기생의 신발을 제작하였다. 이 기술은 안해표씨의 부친으로 이어졌는데, 그는 평생 가업으로 전통 신발을 제작하였다.

한편 안해표씨는 부친으로부터 12세 때인 1962년부터 전통신발 제작 기능을 전수받기 시작하여 1969년부터 본격적인 가업을 이었다.

그는 조부와 부친이 사용하였던 1920년대의 전통 화자본, 신본, 밑창본, 사구단지, 작두망치, 신골, 송곳과 바늘, 창뚤이판, 자 등의 사용도구를 그대로 물려받아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고, 흑혜, 당혜, 어름해, 목화, 태사혜, 아혜, 제혜 등 대부분의 전통신을 제작하고 있다.

요즘에는 전통신을 신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각종 행사와 TV사극, 관광상품 등으로 전통신의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화혜장 보유자인 안해표씨의 기술은 한국의 전통기술의 전승이라는 점과 새로운 수요창

출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부여하고 싶다.

또한 그의 투철한 장인정신은 부인과 2명의 아들 등 가족 중심의 전승자들에게 이어지고 있어 향후 계속적인 전승이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가족들의 기능이 우수하여 화혜제작기능의 전승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부산의 무형문화재인 화혜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11년 4월에는 이 화혜장의 기술이 행정안전부의 '향토핵심자원 활성화 시범사업'에 선정돼 3년간 생산설비 구축 및 디자인 브랜드 개발, 마케팅 사업비 등 총 4억원을 지원받기로 됐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신성장동력원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향토기술분야 위주의 사업 중 공예자원, 무형문화재(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번 사업에 선정된 사하구의 화혜장은 전통문화계승 뿐만 아니라 사업성에 있어서도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9

바람을 싣고 물살을 헤쳐 나가는 황포돛배 조선장(造船匠)

–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25호 –

사하구는 낙동강 하구에 자리 잡은 지리적인 특성상 어업활동과 물자 수송을 위한 배가 주민들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배 모으는 기술도 발달하였다.

지금은 조선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우리지역의 전통 배인 황포돛배를 고기잡이나 해상운송 수단으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 지역의 옛 전통을 이어가기 위하여 황포돛배를 만드는 장인을 2016년 12월 28일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5호 하단돛배 조선장으로 지정하였다.

하단돛배 조선장 보유자 김창명은 증조부 때부터 하단 토박이로 살며 4대째 가업으로 배 만드는 일을 이어 왔으며 1955년부터 현재까지 낙동강 하구 인근의 황포돛배, 나룻배, 소구엔진 배 등의 100여척의 목선을 만들어 왔다.

김창명 장인의 황포돛배는 낙동강 역사의 상징물 중 하나로 전통선박의 선형과 제작기법의 발달과정, 목선제작 도구, 낙동강 하류 생활문화의 이해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단의 황포돛배인 하단돛배는 크기가 길이 25자~35자(750~1,050㎝), 너비 5.5자~7자(165~210㎝), 깊이 2.5~3.5자(75~105㎝) 범위로서 구한말 때부터 낙동강 인근의 장어 잡이나 재첩채취, 또 규모가 큰 돛배는 남지, 수산, 밀양 삼랑진 등 낙동강 뱃길 인근 지역의 물자수송에 주로 사용되었다. 이 중에 낙동강 상류를 오가던 큰 돛배는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강을 건널 수 있는 교량이 여기저기에 건설되면서 거의 사라지게 되었고, 낙동강 하구 인근의 돛배는 1980년대 중반 합성수지선(FRP)선이 보급되고 하구둑이 건설되면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하단 어촌계 선착장에는 언제든지 하단돛배를 관람할 수 있게 정박시켜 놓고 있으며, 낙동강 굽이굽이 바람을 싣고 물살을 헤쳐 나가는 하단돛배가 오랫동안 전승되기를 바란다.

역사와 자연이 숨쉬는

사하이야기

Storytelling

발행일 | 2017. 8.
발행처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기획 및 디자인 | 디자인세진 T.051-467-5006
제3판 및 인쇄 | 디자인세진 T.051-467-5006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사하구청의 사전동의 없이 복사 · 촬영 ·
제작 · 번역을 포함하는 어떠한 형태라도 변환 · 복제 되어서는 안됩니다.

연락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 12 (당리동 317-16) 사하구청 문화관광과
Tel : 051-220-4081, 4083
(비매품)